2021 다원예술 포럼

다시, 다원

2021년 다원예술 지원사업의 탄생과 복원

3. 16(화) 14:00~17:00

온라인 생중계 진행

YouTube NAVER TV facebook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21 다원예술 포럼

다시, 다원

2021년
다원예술 지원사업의
탄생과 복원

2021 다원예술 포럼

다시, 다원

2021년
다원예술 지원사업의
탄생과 복원

목차

006 **인사말씀** **박종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박경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011 **[발제 1] 다원예술의 탄생과 진화**
김준기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실장

033 **[발제 2] 다원예술 창작지원 사업의 중단, 전과 후**
정진세 극단 문 대표

063 **[발제 3] 사라진 목소리, 사라질 미래 :**
다원예술 창작지원 사업의 중단 - 블랙리스트 사건을 경유하여
임인자 서울변방연극제 전 예술감독

105 **[종합토론]**
박경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김준기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실장
정진세 극단 문 대표
임인자 서울변방연극제 전 예술감독
남하나 서울프린지네트워크 사무국 총괄
정윤희 문화민주주의 실천연대 공동운영위원장

2021 다원예술 포럼

다시, 다원

2021년 다원예술 지원사업의 탄생과 복원

일시 : 2021년 3월 16일(화)

장소 : 아르코미술관 3층 세미나실

프로그램

14:00~14:10	개회	**개회 및 소개** 이종국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총괄부) **인사말씀** 박종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14:10~14:40	발제	사회 : **박경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발제 1] 다원예술의 탄생과 진화** 김준기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실장)
14:40~15:10		**[발제 2] 다원예술 창작지원 사업의 중단, 전과 후** 정진세 (극단 문 대표)
15:10~15:40		**[발제 3] 사라진 목소리, 사라질 미래 :** **다원예술 창작지원 사업의 중단 - 블랙리스트 사건을 경유하여** 임인자 (서울변방연극제 전 예술감독)
15:40~15:50	휴식	
15:50~16:50	종합 토론	**박경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김준기**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실장 **정진세** 극단 문 대표 **임인자** 서울변방연극제 전 예술감독 **남하나** 서울프린지네트워크 사무국 총괄 **정윤희** 문화민주주의 실천연대 공동운영위원장
16:50~17:00	폐회	폐회 및 위원회 향후 일정 공유

인사말씀

박종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2021 다원예술 포럼 〈다시, 다원〉의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위원장 박종관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블랙리스트 작동이 있었고 그 후로 다원예술 지원사업이 없어져 몇 해 동안 다원예술을 지원할 수 없었습니다.

위원장이 되고 다원예술 지원사업을 복원해야 한다는 과제를 최우선의 과제로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다시 시작하는 다원 지원 사업을 논의하는 자리에 무척 와보고 싶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2005년부터 08년까지 예술위에 딱 한 번 구성되었던 다원예술 소위원회의 위원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다원예술 지원사업이 다시 복원되기까지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우선 이점에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 몇 년 동안 다원예술에 대한 예술 환경 내에서의 요구와 대응도 조금 변화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예술의 개념을 넘어 복합장르라는 의미를 포함하여 융·복합이라는 용어가 자연스럽게 우리 예술계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흐름을 만들며 지속적으로 진화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작년 2020년 이후로는 우리 예술 전반은 코로나-19 사태와 매체의 변화라는 변수를 함께 만나면서 융·복합이라는 용어는 더욱 심화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듯 보입니다.

새로운 예술정책, 예술의 힘이 만들어진 것은 지난 2004년의 일이었습니다. 그 비전서가 만들어질 당시에는 문예 진흥법이 예시한 수많은 예술의 갈래를 어떻게 미래지향적으로 대 장르로 묶을 것인지 고민하였습니다. 그 결과 문학 시각 공연 전통 다원의 다섯 개의 대 장르로 구분하자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해묵은 말씀을 드리게 되었지만 이 문제가 오늘 포럼을 아예 비켜가지 않는 것 같아 먼저 이 말씀으로 말을 풀어가 볼까 합니다.

“다원”은 여러 가지를 함께 묶어 부르는 용어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스스로를 비주류라 선언하며 중심이 아닌 변방을 목적의식적으로 선택하고 예술이 마땅히 주목하여야 할 것들, 그러나 누구나 주목하지는 않는 것들에 대해 당당히 그 입장을 견지하는 예술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검열로부터 독립된 예술, 나아가 비상업 대중의 의미를 포함하였습니다. 그리고 장르융합 보통 인터 아트라 불리는 여러 장르의 예술 속성이 나타나는 것들을 총칭하는 것으로 기억이 남아있습니다. 다른 기억으로는 언젠가 무슨 무슨 예술의 해 하는 사업을 전개하면서 예술의 다양성과 미래 예술에 대해 정부가 주도하는 전례가 만들어졌던 기억도 남아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3월 10일, 새 장관과 예술위 위원들이 워크숍을 갖고 거기서 자율 운영 협약서를 체결하기도 하고 광범위한 예술계의 이야기를 워크숍을 통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다원예술에 대한 이야기가 특별히 언급되었으며 여기에 대해 황희 장관은 다원예술의 핵심에 해당하는 예술 내에서 발생되는 소외 문제와 예술의 다양성 유지라는 문제에 대해 다원예술에 대해 깊이 있는 이해가 있음을 피력하기도 하였지요.

그러나 문체부나 기재부 심의 단계에서 다원예술이 무엇인지 그 성과가 무엇인지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를 만나기도 합니다. 예술계 내에서야 누가 다원예술의 가치와 소중함을 감히 부인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예술계 밖으로 나아갔을 때에도 강하게 응원과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필요도 있는 일입니다.

2021년 다원예술 지원사업의 재시작은 의미 있는 출발점이라 생각합니다. 이미 여러 차례 박경주 위원과 현장이 합의한 안이 설계되었었지요. 그리하여 빨리 공고를 내고 지원 사업을 시행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거기에는 다원예술 관련 예술인 분들이 지원사업 복원을 여러 가지 의미로 기대 하리라는 가정을 하고 보니 좀 서둘러야겠다 생각했었지요. 결정적으로는 코로나-19 시대에 예술 현장이 변수들이 많아 가능하면 수행 기간을 길게 드리는 편이 유리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어렵게 지원 사업이 복원되는 만큼 단순한 복원 재시작이 아니라 변화된 예술 환경에 조응하는 보다 잘 설계된 지원 제도가 필요하다는 전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논의 중에 한 번 더 현장점검을 받고 좀 더 든든한 지원 사업 설계를 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예술위 위원회의 조언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한 번 더 사업 설계를 심화하는 차원의 포럼을 열고 거기서 걸러지는 조언을 받기로 하여 오늘 〈다시 다원〉 포럼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전부터 사무처장과 함께 오늘 포럼에 참석하기로 약속을 했었는데 사정이 생겨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나라에서 다원예술 하면 생각나는 분들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객석을 채우신 스무 분 역시 거의 전문가 그룹이라 할 만합니다. 온라인 중계를 겸하여 많은 분들이 넷상에서 관심을 집중해 주시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예술은 결국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참여해 주신 분들의 힘, 사람의 힘이 소중합니다. 오늘 포럼이 더욱 완성된 지원사업을 설계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원예술 현장을 대표하시는 분들의 거침없는 지적과 제안이 그것을 가능케 할 것입니다. 열띤 발제 토론 부탁드립니다.

예술위는 예술 현장의 파트너 기관으로 주신 의견을 토대로 지원사업을 다시 점검하고자 합니다. 예술 다양성을 견지하고 새로운 예술의 가능성을 여는 의미를 갖고, 변방이며 동시에 중심이 되고, 모든 검열로부터 독립된 다원예술. 이런 의미가 다시 예술위 지원사업 내에 다시 구현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예술위는 예술인들의 친구이며 파트너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말씀

박경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안녕하십니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7기 위원 박경주입니다. 먼저 그동안 블랙리스트 사건의 해결을 위해 애써오시고, 수년간 다원예술의 복원을 위해 노력해 오신 박종관 위원장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15년을 끝으로 중단된 다원예술 창작지원사업이 6년 만에 복원되는 시점에 맞춰 마련한 '다시 다원' 포럼에 많은 다원예술 분야 예술가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걸 확인하였습니다.

다원예술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한국문화예술계에 호명한, 특별한 의미와 정의를 갖고 있는 예술입니다. 2007년 탄생한 '다원'이는 2010년대 중반까지 현장의 다양한 예술가들에게 큰 사랑을 받으며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그러나 채 10살이 되기도 전, 8살이던 다원이는 행방불명이 됐습니다. 함께 미학적 실험을 하던 다원이가 사라진 후, 예술가들은 어떻게 지냈을까요? 다원이가 실종된 후,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다원이는 그동안 잘 지냈을까요? 어디 아픈 곳은 없을까요? 오늘은 8살에 집을 떠난 지 6년 만에, 14살이 돼 우리 곁으로 돌아온, 다원이의 몸 이곳저곳을 감각 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2021년 다원예술 포럼 '다시 다원' 포럼의 프로그램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김준기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실장님의 '다원예술의 탄생과 진화' 발제가, 이어서 정진세 극단 문 대표님의 '다원예술 창작지원 사업의 중단, 전과 후' 발제가, 세 번째로 임인자 서울변방연극제 전 예술감독님의 '다원예술 창작지원 사업의 중단–블랙리스트 사건을 경유하며' 발제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첫 번째 발제에서 다원이의 탄생과 성장을, 두 번째 발제에서 다원이의 실종 전과 후, 다원예술 작가들의 삶을, 세 번째 발제에서는 다원이의 실종, 그 순간의 상처를 자세히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다원예술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이는 다원이의 탄생부터 다원이가 우리 곁을 떠났던 시간까지, 그리고 우리 곁으로 돌아온 현재에도 계속되는 질문입니다. 2021년 다원예술 사업의 복원, 다원이는 왜 우리 곁으로 다시 왔을까요? 다원이가 우리에게 돌아와야 할 어떤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요? 앞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예술가가 함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갔으면 합니다.

다시 시작되는 다원예술 사업이 멋지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길 현장의 예술가분들께 요청드립니다.

2021 다원예술 포럼

다시, 다원

2021년
다원예술 지원사업의
탄생과 복원

발제 1

다원예술의 탄생과 진화

김준기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실장)

1. 예술위원회의 탄생

2005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의 탄생은 한국 예술행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예술위 출범 직후부터 논의를 시작해서 2005년 11월 7일에 출범한 예술위 산하 9개 소위원회의 면면을 보면 출범 당시의 가치와 방향을 가늠해볼 수 있다.

"(88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는 예술현장에 맞는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지원프로그램을 개발하며, 위원회가 위임한 분야나 특정사업에 대한 지원심의, 사업 집행에 관한 자문 등을 하게 된다. 각 소위원회는 올해 말까지 집중 토론회, 워크숍, 종합 토론회 등을 거쳐 예술지원정책의 틀을 마련할 계획이다. 예술위는 8월 정부산하기관인 문화예술진흥원이 민간자율기구로 전환하면서 출범했으며 김병익 위원장 등 11명이 위원으로 선임됐다.

문학 · 시각예술 · 연극 · 무용 · 음악 · 전통예술 · 다원예술 등 장르별 7개 소위원회와 남북 및 국제문화교류 · 지역문화 등 기능별 2개 소위원회가 구성됐으며 문예진흥 재원개발을 위한 소위원회 등은 향후 별도로 구성한다. 소위원회 위원은 평균연령이 46.2세로 30–40대의 비중이 전체의 69.3%를 차지해 예술정책 형성에 현장의 신선한 의견이 반영한다. 여성은 31명으로 전체 위원의 35.2%이다. 각 소위원회 위원들의 임기는 1년이며 비상임이다."[1)]

문학위원회	이시영(위원장) 김병익 김정환 최영철 나희덕 은희경 성석제 강영숙 서영채 김이구
시각예술위원회	김정헌(위원장) 강태희 안상수 이종빈 이지호 이영준 공성훈 안인기 양지연 백기영
연극위원회	이강백(위원장) 심재찬 이상우 이승엽 임진택 이종국 김명화 박종관
무용위원회	김현자(위원장) 정은혜 손인영 박명숙 정의숙 김민희 김긍수 김말복 성기숙 이종호
음악위원회	정완규(위원장) 백영은 함일규 이혜전 이나리메 윤경화 유영재 이석렬 박정원 윤승현
전통예술위원회	한명희(위원장) 원일 김덕수 송혜진 현경채 지애리 노재명 김승근 양성옥 진옥섭 박영규 장경희
다원예술위원회	전효관(위원장) 이원재 김소연 이규석 박준흠 김준기 원영오
남북및국제교류위원회	박신의(위원장) 김형수 김성원 최준호 김채현 양성원 주재연 김세준 허권 박인배
지역문화위원회	박종관(위원장) 이종인 김기봉 이춘아 전고필 서영수 양미명 함한희 박승희 지금종 나호열

1) 2005년 11월 7일 자, 연합뉴스 기사

예술위의 출범을 위한 민관 협치 구조로 기초예술연대의 활동이 있었다. 예술위의 출범을 준비하기 위한 민간 예술단체들의 연대체였다. 한국 예술의 역사에서 최초로 모든 단체들이 한 데 뭉친 역사적 사건이었다. 이 단체는 예술위 출범 후 곧바로 해체되면서 초유의 상황은 일시적인 사건으로 그쳤다. 2005년 9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출범은 ▶ 2004년 12월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 통과 이후 본격화 되었는데, ▶ 이는 한국문화예술진흥원에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전환이라는 예술행정 정책의 일대 전환점이다. ▶ 정부 주도의 기관에서 민간 위원회로 출범한 민관협치의 제도화라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 예술위원회는 출범 당시 다음과 같은 비전 및 운영 체계를 공표했다.

예술위원회 출범의 비전 및 운영방향

○ "문화예술진흥기금의 민간주도, 지원확대, 전문성 강화" 지향에서 "예술정책 및 예술지원정책의 민주화(개혁), 전문화, 효율화 등 한국 사회의 문화예술영역을 둘러싼 실질적인 패러다임 전환"으로의 정책적 변화를 지향한다.

○ 예술위원회는 스스로의 정체성과 목표를 설정함에 있어 "개별 사업과 예술가 개인(단체)에 대한 합리적 기금 배분"의 수준을 넘어 "사회적 연계망 확보를 통해 문화예술 자원의 발굴과 자율적 토대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문화예술의 사회적 창조성, 공공성, 다양성 등을 확대"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원회 운영 전반에 있어 구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

○ 예술위원회는 기금에 대한 관행적인 집행기구가 아니라 "한국문화예술의 정체성과 다양성, 문화예술인의 창조적 역량을 사회적으로 공공화할 수 있도록 현장과 직결된 다중심적 지원정책기구(지원네트워크)"로 변화해야 한다.

2. 다원예술의 탄생

다원예술위원회는 1990년대 후반 이래 기성 장르에 편입되지 않는 새로운 예술 흐름을 포착한 예술지원정책의 일환으로 출발하여 몇 년간의 정책적 모색기를 거쳐 예술위의 소위원회로 출범하였다. 다원예술 관련 예술정책의 흐름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2-1. 다원예술정책의 흐름

1997년 문예진흥원 : 실험예술, 대중예술 활동 지원
2000년 문화부 : 새로운 예술의 해

2001년 문예진흥원 : 독립예술지원
2003년 노무현 정부 출범
2005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출범
2006년 다원예술위원회 1기 구성 / 다원예술포럼 운영
2007년 다원예술 지원 공모사업 실행 / 다원예술매개공간 운영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
2014년
2015년
2016년 다원예술 분야 폐지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다원예술 지원사업 재개

2-2. 다원예술지원정책의 한계와 다원예술위원회의 필요성

○ 다원예술에 대한 개념적, 정책적 정의 및 지원체계의 부재
○ 다원예술을 둘러 싼 안정적인 정책, 지원, 매개 단위의 부재
○ 다원예술에 대한 관습적, 장르적 이해 및 접근의 한계 : 다원예술의 사회적 의미 축소 및 배제
○ 다원예술을 둘러싼 의제 및 주체간 통합적 네트워킹 부족
○ 다원예술을 둘러싼 전문성 및 구체성 부족

2-3. 다원예술위원회의 운영 목표 및 방향

○ 예술위원회 전반의 다원예술적 가치 확대 및 지원체계 구축
○ 다원예술 관련 지원체계의 안정화 및 전문화 확보
○ 다원예술 관련 개념, 비전, 정책 목표, 지원체계 수립
○ 다원예술 관련 사회적 연계망 구축 및 현장 참여 확대
○ 다원예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초 인프라 설계 및 구축 모색

2-4. 다원예술 정책사업에 대한 문제 의식

○ 다원예술 정책 활동은 2000년대 초반 노무현 정부가 표방했던 새로운 예술의 가능성을 실험하고 배양하려는 정책적 의제이자 장치였다.

○ 다원예술은 예술을 20세기 버전의 근대적 제도로부터 21세기 버전의 탈근대적 태도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이었다. 그것은 일원론적인 장르주의로부터 탈피하여 다원론적인 탈장르주의를 표방했기 때문이다.

○ 다원예술 장에서 활동한 예술가들은 기성의 장르에서 출구를 발견하기 보다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고자 장르중심주의를 벗어나고자 했던 예술가들이다.

2-5. 지원정책 용어로서 다원예술

○ 소외장르에 대한 지원정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지원사업으로서 출발

○ 무용, 문학, 미술, 연극, 음악 등 기성 장르가 품지 못하는 장르들에 대한 지원 정책 필요성 대두

○ 예술장르 사이의 융합과 복합을 매개하는 인터아트(Inter-art) 영역

○ 대중음악을 비롯한 문화산업 장르들 가운데, 예술적 실험성을 가진 예술 창작

2-6. 다원예술위원회의 다원예술 정의

"장르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다양한 예술적 가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예술창작활동"

○ 다원예술이란 급변하는 예술 환경에서 삶과 예술의 소통을 중시하며 고정화된 예술장르와 결합을 시도하는 행위 전반이다.

○ 다원예술의 분야는 탈장르실험, 장르혼융, 복합장르, 독립예술, 실험예술 등에 걸쳐있는 분야로서 기존의 장르 분과에 확고하게 자리잡고 있지 않은 분야를 포괄한다.

○ 공공예술, 소수자와 이질적인 다문화에 대한 포괄적인 개념으로 확장하며, 독립예술, 비주류 예술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한다.

2-7. 예술위원회 1기의 성과

○ **다원예술 지원정책의 안정적인 기반 마련**

- 다원예술위원회 운영 활성화
- 다원예술위원회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이의 다원예술 지원정책 협의 구조 강화
- 정기공모사업 등 기초 지원사업 구조의 문제점 개선 및 안정화 모색
- 다원예술 현장 네트워크에 대한 이행 및 소통 확대
- 다원예술 지원정책 관련 중장기, 단기 개선 방안 수립

○ 다원예술 지원정책의 다양성 확보
– 기획사업을 통한 다원예술 지원정책 구조의 다각화
– 다원예술 매개공간 등 지원정책 환경개선, 인프라 구축을 통한 지원구조 단일화
– 정기공모사업 전반에 걸쳐 다원예술 지원사업의 다양성 확보
– 다원예술 현장 내부의 실험성, 다양성 등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구조 확보

○ 다원예술 지원정책의 전문성 강화
– 다원예술 지원정책을 둘러 싼 지속적인 연구 추진
– 다원예술 지원정책 관련 토론 포럼 등 확성화
– 다원예술 지원기관 사이의 일상적인 정보공유 및 상호보완적인 지원환경 구축
– 다원예술 현장의 변화, 진화에 따른 다층적인 지원정책 수립

○ 다원예술 현장과의 소통 활성화
– 다원소위 구성 및 운영에 있어 현장 예술가, 단체의 참여 확대
– 다원예술 지원정책과 다원예술 현장 간의 소통을 위한 거점공간으로서 다원예술 매개공간 구축
– 다원예술 지원정책에 대한 현장 수요를 파악하고 이해하기 위한 조사, 연구 사업 추진
– 월례포럼, 토론회, 사업설명회 등 다원예술 지원정책을 둘러싼 다양한 소통 프로그램 운영

3. 다원예술의 진화

다원예술은 예술위 산하의 소위원회를 꾸리는 과정과 그 결과 속에 일정한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 이후의 관건은 다원예술을 지속가능하게 만드는 일이었다. 더 많은 실험의 장과 더욱 다양한 혼성의 장을 만드는 일이 필요했다. 그것은 다원예술의 생태서식지를 만드는 일이었다.

3–1. 다원예술공간

○ 장르혼합 또는 탈장르실험을 하는 실질적인 기관으로 작동하는 것이 다원예술 매개공간의 시대적 소명이다. 장르혼합 또는 탈장르실험을 하는 실질적인 기관으로 작동하는 것이 다원예술 매개공간의 시대적 장르별로 엄격하게 구분하던 근대적인 가치를 깨고 섞어서 함께 공유하려고 하는 탈근대적인 흐름은 공간배치에 있어서도 새로운 전형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 장르혼합 또는 탈장르실험을 하는 실질적인 기관으로 작동하는 것이 다원예술 매개공간의 시대적 특정한 예술장르를 중심으로 전문화한 문화예술공간은 단일한 정체성을 강조하지만 탈전문화, 탈분화 시대의 공간은 다원적인 가치의 공존과 상생을 매개한다. 이러한 제도와 공간은 하이브리드 시대를 선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 장르혼합 또는 탈장르실험을 하는 실질적인 기관으로 작동하는 것이 다원예술 매개공간의 시대적 예술적 혼성은 다원예술의 흐름 속에서 통합적인 예술현상을 낳고 있다. 전시와 공연, 실내공간과 바깥공간의 경계를 허물면서 탈장르, 장르혼합, 예술실험 등을 견인하는 다원예술이 각광을 받는 것은 단일한 것으로부터 다양한 것으로, 동떨어진 순종으로부터 뒤섞인 잡종으로 옮겨가는 시대정신을 담고 있다.

3-2. 다원예술 공간 현황

다원예술공간 시범사업

서울 : 다원예술매개공간 – 박혜강

다원예술공간 매개사업

광주 : 매개 공간 미나리 - 박성현
부산 : 재미난 복수 아지트(AGIT) – 김건우
청주 : 다원예술 매개 공간 톡톡 - 이종현

다원예술 매개장/공간[2)]

서울

서울프린지페스티벌 / 독립예술웹진 인디언밥
일상예술창작센터
한국실험예술제
서울변방연극제
문래예술공단(랩39 / 온앤옵무용단 / 물레아트페스티벌)
가슴네트워크(웹진 가슴)

2) 김소연 외, 〈다원예술 창작현완 연구〉(2008년)의 연구 대상

* 쌈지스페이스
* 문화허브 상상마당(KT&G)
* LIG 아트홀(LIG 손해보험)
* CJ 영페스티벌
* 새라새극장(고양문화재단)

인천/경기

안양 보충대리공간 스톤앤워터
인천 스페이스 빔

강원

후용공연예술센터(무대예술워크숍페스티벌)

대전/충청

하이브 캠프(청주)

부산/대구/영남

대안공간 반디
대안문화행동 재미난복수(재미난복수, 대안문화공간 아지트)
문화잡지 보일라
시지프스의 하늘 (소극장 실천무대, 극단 새벽)

* 연극자리 소풍(대구)
* 대안문화공간 책마을 페다고지,
* 소극장 품(울산 - 극단 새벽)
* 아트팩토리 숨
* 문화골목
* 오픈스페이스 배

광주/호남

매개공간 미나리
컬처클럽 네버마인드
다원예술공간 모리에서다
공공작업소 심심

제주
거리예술제 - 머리에꽃을
간드락소극장(테러J)

4. 글을 마무리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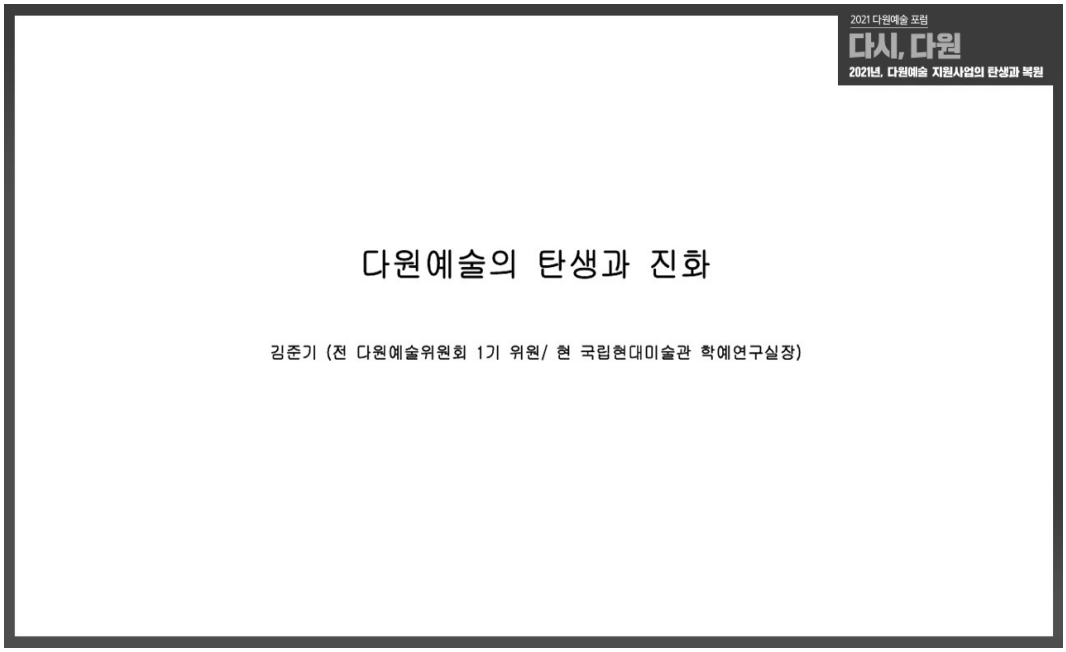
다원예술은 지난한 모색기를 거쳐 새로운 중흥기를 준비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새겨보아야 할 다원예술의 정체성을 생각하며 다음의 세 가지 사항을 중언부언한다. 물론 정체성이란 현재의 시점에서 찾아야할 길이므로, 향후 현장의 새로운 요구에 의해 재개발과 재규정을 겪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지난 10여년을 되돌아보며 생각해야 할 대목들에 관해서는, 이 글을 마치며 간략히 정리해보고자 한다.

○ 장르와 장르 사이를 매개하고 연결하는 복합과 혼융으로서의 예술

○ 고정된 예술 장을 넘어서 새로운 예술을 발견하려는 실험으로서의 예술

○ 예술의 위치를 예술장 내부로 환원하지 않고, 그 바깥 사회의 장으로 확산하려는 예술


2021 다원예술 포럼
다시, 다원
2021년, 다원예술 지원사업의 탄생과 복원
발제 1
다원예술의 탄생과 진화
김준기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실장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21 다원예술 포럼
다시, 다원
2021년, 다원예술 지원사업의 탄생과 복원
다원예술의 탄생과 진화
김준기 (전 다원예술위원회 1기 위원/ 현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실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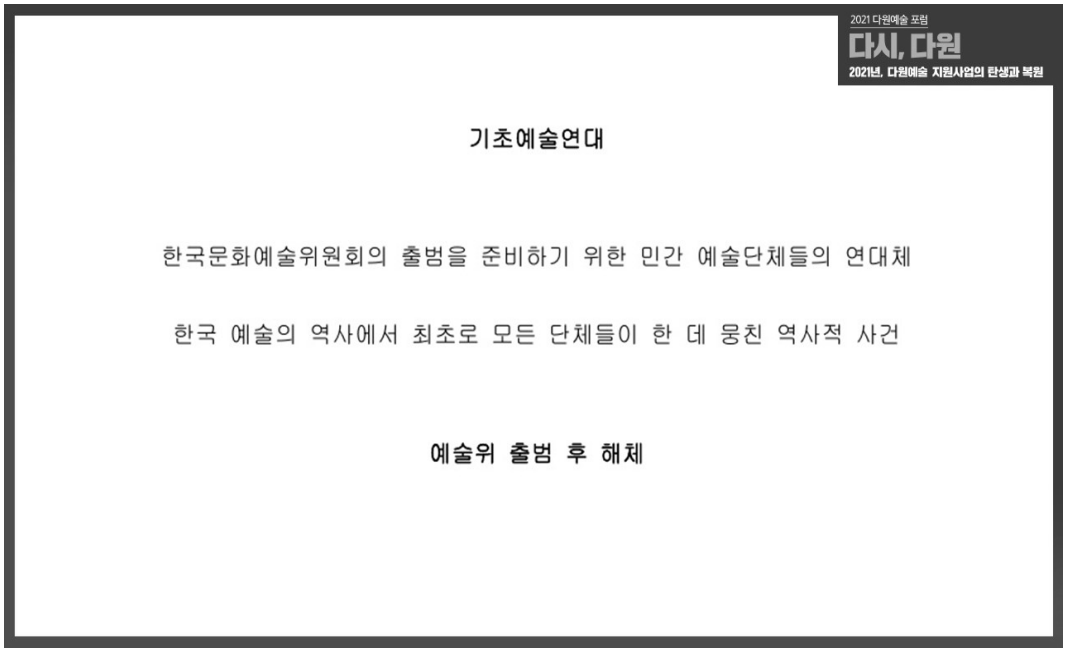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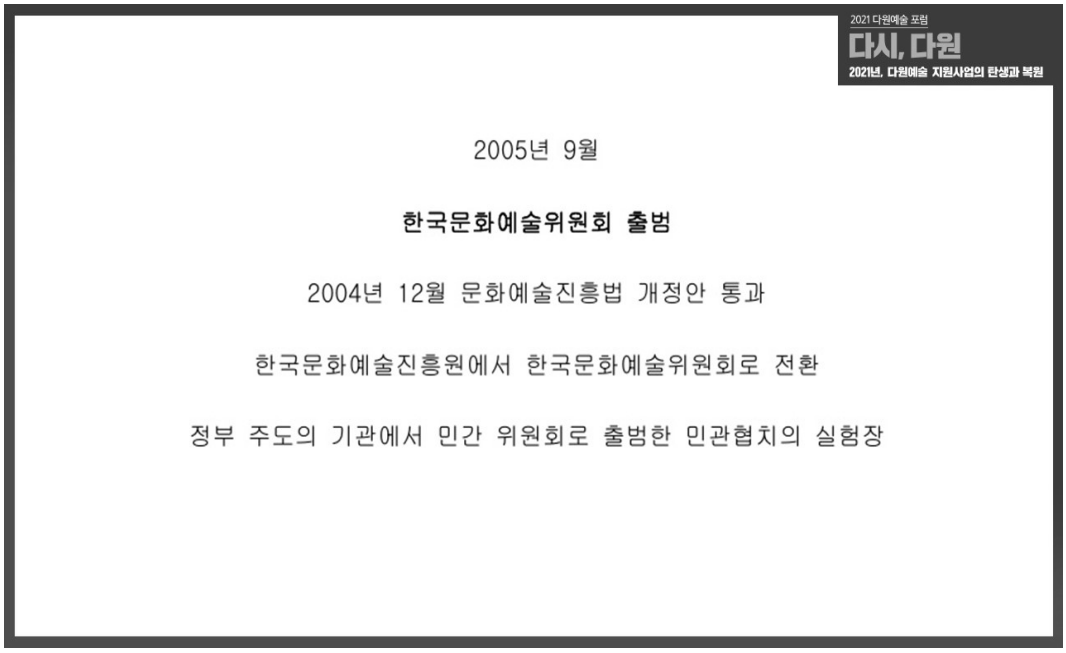
2021 다원예술 포럼
다시, 다원
2021년, 다원예술 지원사업의 탄생과 복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산하 9개 소위원회 구성, 88명의 위원 임명. (2005년 11월 7일)

소위원회는 예술현장에 맞는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지원프로그램을 개발하며, 위원회가 위임한 분야나 특정사업에 대한 지원심의, 사업 집행에 관한 자문 등을 하게 된다. 각 소위원회는 올해 말까지 집중 토론회, 워크숍, 종합 토론회 등을 거쳐 예술지원정책의 틀을 마련할 계획이다. 예술위는 8월 정부산하기관인 문화예술진흥원이 민간자율기구로 전환하면서 출범했으며 김병익 위원장 등 11명이 위원으로 선임됐다.이번에 문학·시각예술·연극·무용·음악·전통예술·다원예술 등 장르별 7개 소위원회와 남북 및 국제문화교류·지역문화 등 기능별 2개 소위원회가 구성됐으며 문예진흥 재원개발을 위한 소위원회 등은 향후 별도로 구성할 예정이다. 소위원회 위원은 평균연령이 46.2세로 30~40대의 비중이 전체의 69.3%를 차지해 예술정책 형성에 현장의 신선한 의견이 반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여성은 31명으로 전체 위원의 35.2%이다. 각 소위원회 위원들의 임기는 1년이며 비상임이다.

▲문학위원회: 이시영(위원장) 김병익 김정환 최영철 나희덕 은희경 성석제 강영숙 서영채 김이구
▲시각예술위원회: 김정헌(위원장) 강태희 안상수 이종빈 이지호 이영준 공성훈 안인기 양지연 백기영
▲연극위원회: 이강백(위원장) 심재찬 이상우 이승엽 임진택 이종국 김명화 박종관
▲무용위원회: 김현자(위원장) 정은혜 손인영 박명숙 정의숙 김민희 김긍수 김말복 성기숙 이종호
▲음악위원회: 정완규(위원장) 백영은 함일규 이혜전 이나리메 윤경화 유영재 이석렬 박정원 윤승현
▲전통예술위원회: 한명희(위원장) 원일 김덕수 송혜진 현경채 지애리 노재명 김승근 양성옥 진옥섭 박영규 장경희
▲다원예술위원회: 전효관(위원장) 이원재 김소연 이규석 박준흠 김준기 원영오
▲남북및국제교류위원회: 박신의(위원장) 김형수 김성원 최준호 김채현 양성원 주재연 김세준 허권 박인배
▲지역문화위원회: 박종관(위원장) 이종인 김기봉 이춘아 전고필 서영수 양미영 함한희 박승희 지금종 나호열


2021 다원예술 포럼
다시, 다원
2021년, 다원예술 지원사업의 탄생과 복원
기초예술연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출범을 준비하기 위한 민간 예술단체들의 연대체
한국 예술의 역사에서 최초로 모든 단체들이 한 데 뭉친 역사적 사건
예술위 출범 후 해체


2021 다원예술 포럼
다시, 다원
2021년, 다원예술 지원사업의 탄생과 복원
2005년 9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출범
2004년 12월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 통과
한국문화예술진흥원에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전환
정부 주도의 기관에서 민간 위원회로 출범한 민관협치의 실험장

2021 다원예술 포럼
다시, 다원
2021년, 다원예술 지원사업의 탄생과 복원

예술위원회 출범의 비전 및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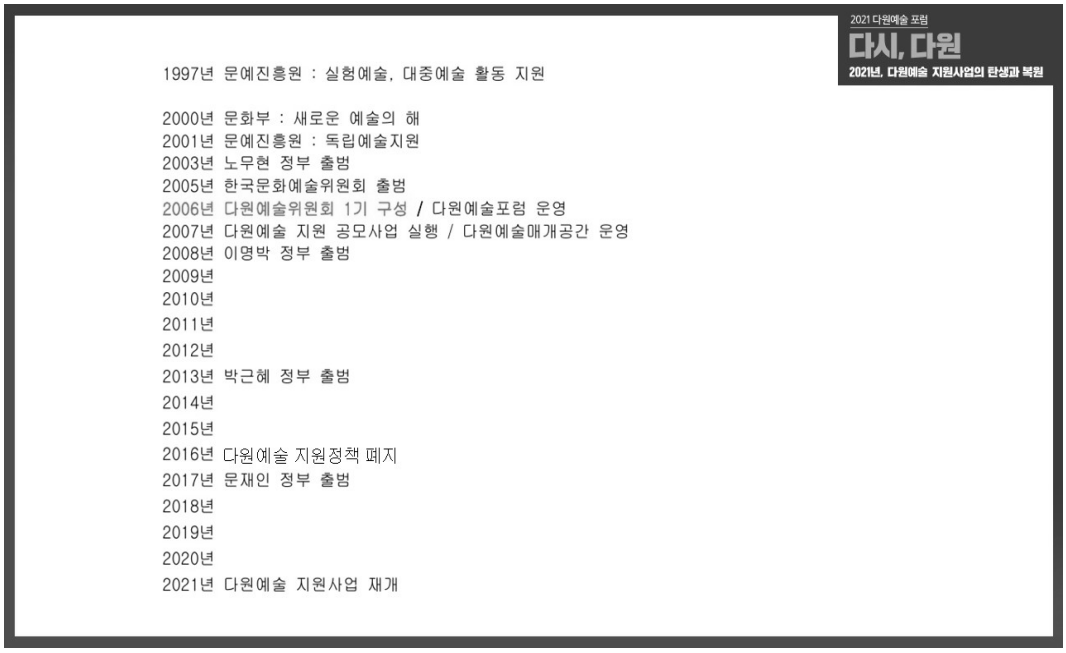
o “문화예술진흥기금의 민간주도, 지원확대, 전문성 강화” 지향에서 “예술정책 및 예술지원정책의 민주화(개혁), 전문화, 효율화 등 한국 사회의 문화예술영역을 둘러싼 실질적인 패러다임 전환”으로의 정책적 변화를 지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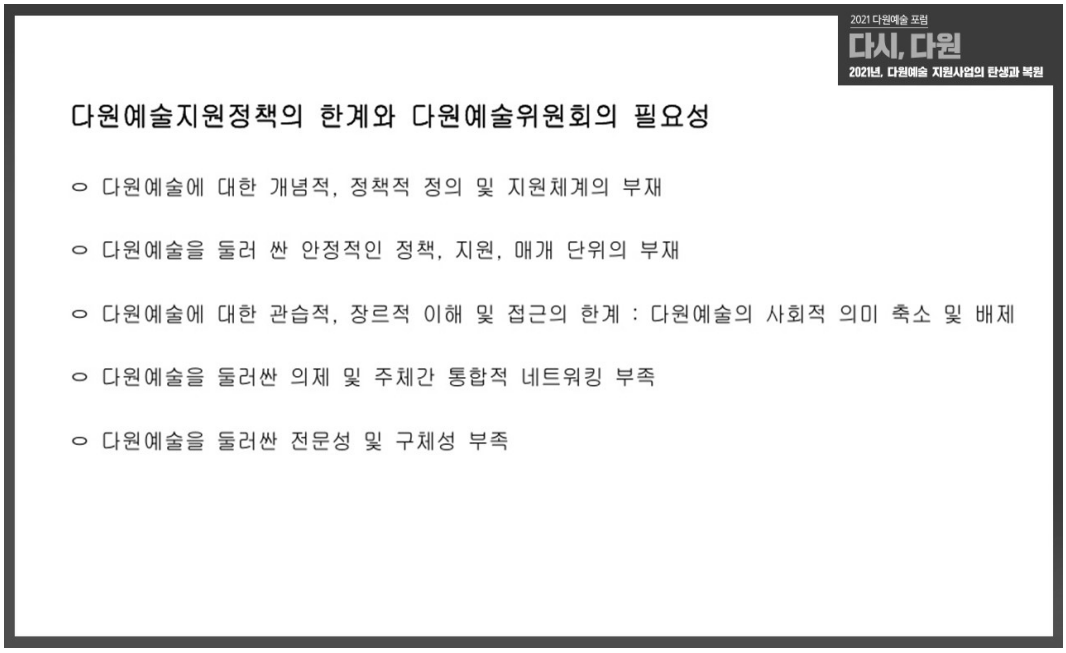
o 예술위원회는 스스로의 정체성과 목표를 설정함에 있어 “개별 사업과 예술가 개인(단체)에 대한 합리적 기금 배분”의 수준을 넘어 “사회적 연계망 확보를 통해 문화예술 자원의 발굴과 자율적 토대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문화예술의 사회적 창조성, 공공성, 다양성 등을 확대”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원회 운영 전반에 있어 구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

o 예술위원회는 기금에 대한 관행적인 집행기구가 아니라 “한국문화예술의 정체성과 다양성, 문화예술인의 창조적 역량을 사회적으로 공공화할 수 있도록 현장과 직결된 다중심적 지원정책기구(지원네트워크)”로 변화해야 한다.

2021 다원예술 포럼
다시, 다원
2021년, 다원예술 지원사업의 탄생과 복원

다원예술의 탄생


2021 다원예술 포럼
다시, 다원
2021년, 다원예술 지원사업의 탄생과 복원
1997년 문예진흥원 : 실험예술, 대중예술 활동 지원
2000년 문화부 : 새로운 예술의 해
2001년 문예진흥원 : 독립예술지원
2003년 노무현 정부 출범
2005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출범
2006년 다원예술위원회 1기 구성 / 다원예술포럼 운영
2007년 다원예술 지원 공모사업 실행 / 다원예술매개공간 운영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
2014년
2015년
2016년 다원예술 지원정책 폐지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다원예술 지원사업 재개


2021 다원예술 포럼
다시, 다원
2021년, 다원예술 지원사업의 탄생과 복원
다원예술지원정책의 한계와 다원예술위원회의 필요성
ㅇ 다원예술에 대한 개념적, 정책적 정의 및 지원체계의 부재
ㅇ 다원예술을 둘러 싼 안정적인 정책, 지원, 매개 단위의 부재
ㅇ 다원예술에 대한 관습적, 장르적 이해 및 접근의 한계 : 다원예술의 사회적 의미 축소 및 배제
ㅇ 다원예술을 둘러싼 의제 및 주체간 통합적 네트워킹 부족
ㅇ 다원예술을 둘러싼 전문성 및 구체성 부족

2021 다원예술 포럼
다시, 다원
2021년, 다원예술 지원사업의 탄생과 복원

다원예술위원회의 운영 목표 및 방향

- 예술위원회 전반의 다원예술적 가치 확대 및 지원체계 구축
- 다원예술 관련 지원체계의 안정화 및 전문화 확보
- 다원예술 관련 개념, 비전, 정책 목표, 지원체계 수립
- 다원예술 관련 사회적 연계망 구축 및 현장 참여 확대
- 다원예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초 인프라 설계 및 구축 모색

2021 다원예술 포럼
다시, 다원
2021년, 다원예술 지원사업의 탄생과 복원

다원예술 정책사업에 대한 문제 의식

o 다원예술 정책 활동은 2000년대 초반 노무현 정부가 표방했던 새로운 예술의 가능성을 실험하고 배양하려는 정책적 의제이자 장치였다.

o 다원예술은 예술을 20세기 버전의 근대적 제도로부터 21세기 버전의 탈근대적 태도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이었다. 그것은 일원론적인 장르주의로부터 탈피하여 다원론적인 탈장르주의를 표방했기 때문이다.

o 다원예술 장에서 활동한 예술가들은 기성의 장르에서 출구를 발견하기 보다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고자 장르중심주의를 벗어나고자 했던 예술가들이다.

2021 다원예술 포럼
다시, 다원
2021년, 다원예술 지원사업의 탄생과 복원

지원정책 용어로서 다원예술

o 소외장르에 대한 지원정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지원사업으로서 출발

o 무용, 문학, 미술, 연극, 음악 등 기성 장르가 품지 못하는 장르들에 대한 지원 정책 필요성 대두

o 예술장르 사이의 융합과 복합을 매개하는 인터아트(Inter-art) 영역

o 대중음악을 비롯한 문화산업 장르들 가운데, 예술적 실험성을 가진 예술 창작

2021 다원예술 포럼
다시, 다원
2021년, 다원예술 지원사업의 탄생과 복원

다원예술위원회의 다원예술 정의

"장르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다양한 예술적 가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예술창작활동"

o 다원예술이란 급변하는 예술 환경에서 삶과 예술의 소통을 중시하며 고정화된 예술장르와 결합을 시도하는 행위 전반이다.

o 다원예술의 분야는 탈장은 장르실험, 장르혼융, 복합장르, 독립예술, 실험예술 등에 걸쳐있는 분야로서 기존의 장르 분과에 확고하게 자리잡고 있지 않은 분야를 포괄한다.

o 공공예술, 소수자와 이질적인 다문화에 대한 포괄적인 개념으로 확장하며, 독립예술, 비주류 예술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한다.

2021 다원예술 포럼
다시, 다원
2021년, 다원예술 지원사업의 탄생과 복원

다원예술위원회 1기의 성과

* 이원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다원예술지원정책, 그 성과와 과제에 대하여, 2008년

다원예술 지원정책의 안정적인 기반 마련

o 다원예술위원회 운영 활성화
o 다원예술위원회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이이의 다원예술 지원정책 협의 구조 강화
o 정기공모사업 등 기초 지원사업 구조의 문제점 개선 및 안정화 모색
o 다원예술 현장 네트워크에 대한 이행 및 소통 확대
o 다원예술 지원정책 관련 중장기, 단기 개선 방안 수립

다원예술 지원정책의 다양성 확보

o 기획사업을 통한 다원예술 지원정책 구조의 다각화
o 다원예술 매개공간 등 지원정책 환경개선, 인프라 구축을 통한 지원구조 단일화
o 정기공모사업 전반에 걸쳐 다원예술 지원사업의 다양성 확보
o 다원예술 현장 내부의 실험성, 다양성 등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구조 확보

2021 다원예술 포럼
다시, 다원
2021년, 다원예술 지원사업의 탄생과 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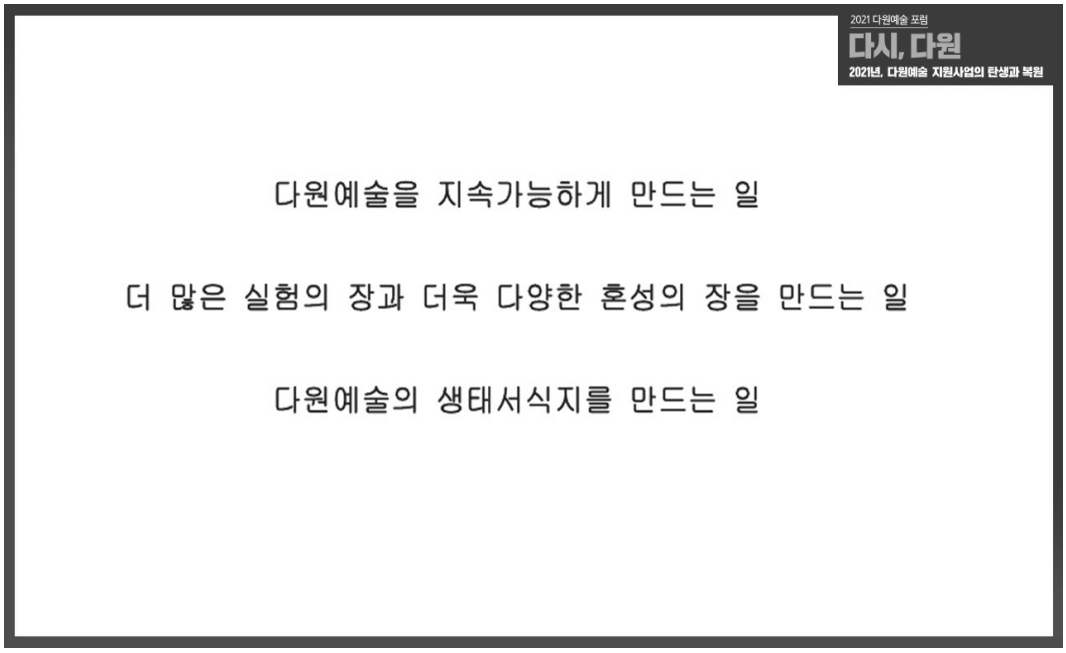
다원예술 지원정책의 전문성 강화

o 다원예술 지원정책을 둘러 싼 지속적인 연구 추진
o 다원예술 지원정책 관련 토론 포럼 등 확성화
o 다원예술 지원기관 사이의 일상적인 정보공유 및 상호보완적인 지원환경 구축
o 다원예술 현장의 변화, 진화에 따른 다층적인 지원정책 수립

다원예술 현장과의 소통 활성화

o 다원소위 구성 및 운영에 있어 현장 예술가, 단체의 참여 확대
o 다원예술 지원정책과 다원예술 현장 간의 소통을 위한 거점공간으로서 다원예술 매개공간 구축
o 다원예술 지원정책에 대한 현장 수요를 파악하고 이해하기 위한 조사, 연구 사업 추진
o 월례포럼, 토론회, 사업설명회 등 다원예술 지원정책으 둘러싼 다양한 소통 프로그램 운영


2021 다원예술 포럼
다시, 다원
2021년, 다원예술 지원사업의 탄생과 복원
다원예술의 진화


2021 다원예술 포럼
다시, 다원
2021년, 다원예술 지원사업의 탄생과 복원
다원예술을 지속가능하게 만드는 일
더 많은 실험의 장과 더욱 다양한 혼성의 장을 만드는 일
다원예술의 생태서식지를 만드는 일

2021 다원예술 포럼
다시, 다원
2021년, 다원예술 지원사업의 탄생과 복원

다원예술공간

o 장르혼합 또는 탈장르실험을 하는 실질적인 기관으로 작동하는 것이 다원예술 매개공간의 시대적 소명이다. 장르혼합 또는 탈장르실험을 하는 실질적인 기관으로 작동하는 것이 다원예술 매개공간의 시대적 장르별로 엄격하게 구분하던 근대적인 가치를 깨고 섞어서 함께 공유하려고 하는 탈근대적인 흐름은 공간배치에 있어서도 새로운 전형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o 장르혼합 또는 탈장르실험을 하는 실질적인 기관으로 작동하는 것이 다원예술 매개공간의 시대적 특정한 예술장르를 중심으로 전문화한 문화예술공간은 단일한 정체성을 강조하지만 탈전문화, 탈분화 시대의 공간은 다원적인 가치의 공존과 상생을 매개한다. 이러한 제도와 공간은 하이브리드 시대를 선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o 장르혼합 또는 탈장르실험을 하는 실질적인 기관으로 작동하는 것이 다원예술 매개공간의 시대적 예술적 혼성은 다원예술의 흐름 속에서 통합적인 예술현상을 낳고 있다. 전시와 공연, 실내공간과 바깥공간의 경계를 허물면서 탈장르, 장르혼합, 예술실험 등을 견인하는 다원예술이 각광을 받는 것은 단일한 것으로부터 다양한 것으로, 동떨어진 순종으로부터 뒤섞인 잡종으로 옮겨가는 시대정신을 담고 있다.

2021 다원예술 포럼
다시, 다원
2021년, 다원예술 지원사업의 탄생과 복원

다원예술공간 시범사업

서울 : 다원예술매개공간 - 박혜강

다원예술공간 매개사업

광주 : 매개 공간 미나리 - 박성현

부산 : 재미난 복수 아지트(AGIT) - 김건우

청주 : 다원예술 매개 공간 톡톡 - 이종현

2021 다원예술 포럼
다시, 다원
2021년, 다원예술 지원사업의 탄생과 복원

다원예술 매개장/공간

* 김소연 외, <다원예술 창작현완 연구>(2008년)의 연구 대상

서울

서울프린지페스티벌 / 독립예술웹진 인디언밥
일상예술창작센터
한국실험예술제
서울변방연극제
문래예술공단(랩39 / 온앤옵무용단 / 물레아트페스티벌)
가슴네트워크(웹진 가슴)

*쌈지스페이스
*문화허브 상상마당(KT&G)
*LIG 아트홀(LIG 손해보험)
*CJ 영페스티벌
*새라새극장(고양문화재단)

2021 다원예술 포럼
다시, 다원
2021년, 다원예술 지원사업의 탄생과 복원

인천/경기

안양 보충대리공간 스톤앤워터
인천 스페이스 빔

강원

후용공연예술센터(무대예술워크숍페스티벌)

대전/충청

하이브 캠프(청주)

2021 다원예술 포럼
다시, 다원
2021년, 다원예술 지원사업의 탄생과 복원

부산/대구/영남

대안공간 반디
대안문화행동 재미난복수(재미난복수, 대안문화공간 아지트)
문화잡지 보일라
시지프스의 하늘 (소극장 실천무대, 극단 새벽)

*연극자리 소풍(대구)
*대안문화공간 책마을 페다고지,
*소극장 품(울산 - 극단 새벽)
*아트팩토리 숨
*문화골목
*오픈스페이스 배

2021 다원예술 포럼
다시, 다원
2021년, 다원예술 지원사업의 탄생과 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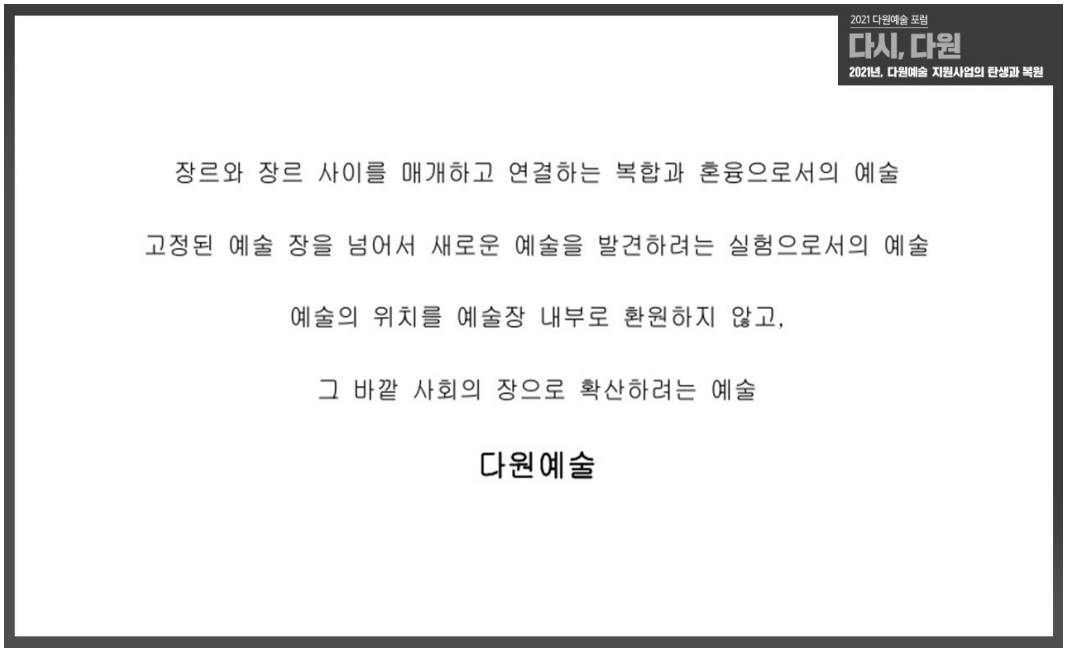
광주/호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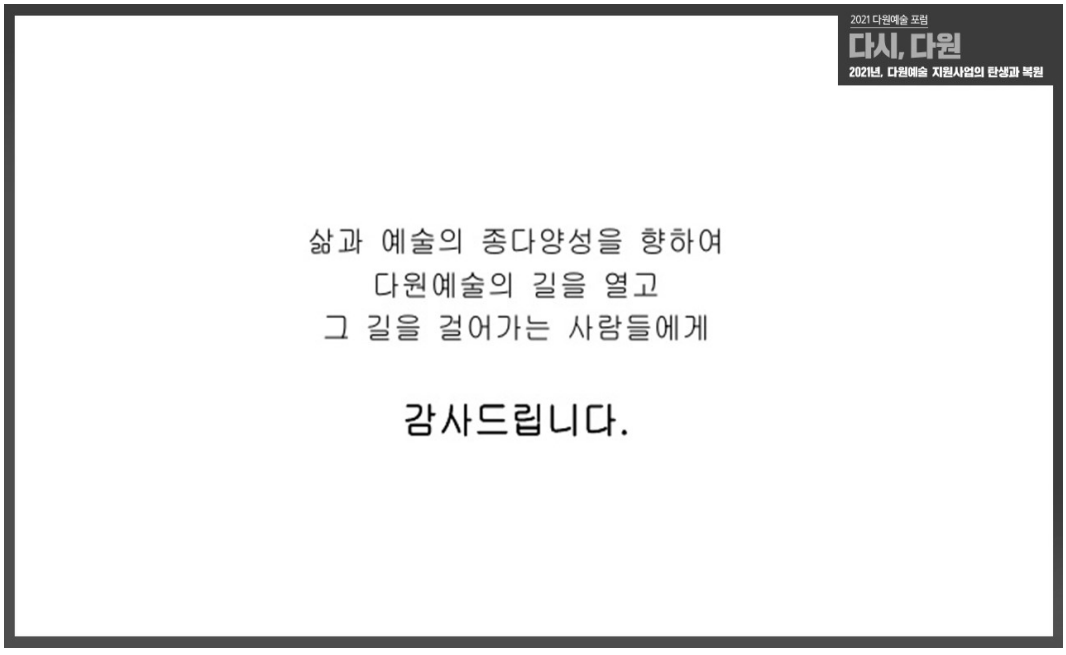
매개공간 미나리
컬처클럽 네버마인드
다원예술공간 모리에서다

공공작업소 심심

제주

거리예술제 - 머리에꽃을
간드락소극장(테러J)


2021 다원예술 포럼
다시, 다원
2021년, 다원예술 지원사업의 탄생과 복원
장르와 장르 사이를 매개하고 연결하는 복합과 혼융으로서의 예술
고정된 예술 장을 넘어서 새로운 예술을 발견하려는 실험으로서의 예술
예술의 위치를 예술장 내부로 환원하지 않고,
그 바깥 사회의 장으로 확산하려는 예술
다원예술


2021 다원예술 포럼
다시, 다원
2021년, 다원예술 지원사업의 탄생과 복원
삶과 예술의 종다양성을 향하여
다원예술의 길을 열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감사드립니다.

2021 다원예술 포럼

다시, 다원

2021년
다원예술 지원사업의
탄생과 복원

발제 2

다원예술의 창작지원 사업의 중단, 전과 후

2010년대 아르코의 '다원예술 창작지원'은 예술가에게
어떤 의미였나?

정진세 (극단 문 대표)

□ 세월호 사태 이전, 2010년대 초 다원예술계의 풍경

– 창작자로서, 관객으로서, 매체 종자사로서 가장 행복하던 시기
– 사계절 내내, 매월 실험적인 예술활동을 목격/경험할 수 있었던 시절
– 미술, 문학, 음악, 무용, 연극, 전통 장르가 '퍼포먼스(몸, 수행성)'에 대한 관심을 두던 시기
– '출판–전시–공연–축제' 라는 미학적 제작 사이클이 맞물려 돌아가던 시기
– 다원예술 작품이 상연되는 곳은 언제나 예술적 만남이 존재함
– 서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던, 선순환 하던 예술계(2009–2014)

→ '이 작업은 문화예술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만들어졌습니다'는 문구가 의미하는 것

□ 다원예술 창작지원의 효과 "플랫폼의 플랫폼", "예술가의 예술가" 역할

– 2000년대 아르코가 지원한 다원예술 분야에서 성장한 예술가의 활약
– 2000년대 말, 2010년대 초 다원예술을 보고 성장한 '이후' 세대의 등장

– 담론의 장 마련 : 다원예술이라는 키워드 아래, 기존의 예술을 재정의 하는 비평적 시도 장려, 비평지원 계기 마련
– 예술계 내부/외부의 사각지대 예술가를 발견하는 장치 : 장르, 세대, 공간, 매체, 문화, 지역, 장소 어디에나 존재했던 예술의 '사각지대' 발견 또는 사각지대 예술가를 호명하기

– 해외/국내 아티스트간의 교류, 서울–지역 활동 간의 교류
– 하위문화, 서브컬쳐, 기술문화, 특정취향, 특정로컬 –씬과 예술과의 만남
– 예술관객과 일반시민과의 만남, '대중'의 개념 확장

– 예술지원의 결과물이 가시적인 '성과'가 아닌, '과정, 실험, 미완성, 진행 중, 비평적 –인 어떤 것'일 수 있다는 개념 제시

→ 창작환경을 더 깊고, 더 넓게, 더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지원제도
→ 다원예술가는 예술가에게 영감을 주는 "예술가의 예술가" 역할로 호명
→ 다원예술정책은 '예술가의 예술가'를 매개하는 '플랫폼의 플랫폼' 역할

□ 다원예술분야 정책실험의 안정화 단계(2000년대 아르코의 성과)

- 다원예술소위원회 활동 : 다원예술포럼, 현장예술가와의 만남, 모니터링, 심사 및 평가
- 다원예술 창작지원에 있어서, '공모–심사–지원선정–사업수행–모니터링–환류' 과정의 충실함
- 다원예술 정책실험 : 결과물이 아닌 과정물에 대한 지원 사례 마련, 다원예술 분야의 예산 집행에서의 다양한 케이스 마련
- 감당 가능한 NCAS(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제도
- 예술행정가와 현장예술가의 건강한 긴장관계 수립

□ 정책적 본질을 환기시켰던 아르코 다원예술 지원사업(혹은 기금)

- 지원사업은 서로 다른 예술가들을 만나게 하는 기회로 작용했다
- 지원기금은 일종의 상호규약(예술가–매개자–행정가간의 최소한의 소통 약속)이었다
- 예술현장과 정책 사이에 비평/질문이 필요한 시기에 서로 소통할 수 있었던 단 하나의 '계' 혹은 '씬'의 활성화 장치였다
- 정책실험 혹은 실험정책의 테스트베드 : 문화예술위원회 혹은 예술정책의 본질환기
- 성격이 다른 지원제도나 지원프로그램도 연결하는 정책 간 연결고리

□ 다원예술의 '존재의미'가 가장 빛났던 시기 : 2012년 – 2014년

사례) 2013년 실험적 예술 및 다양성 증진 지원사업 = 다원예술 창작지원 사업

○ 사업내용
- 내용과 형식, 매체실험 등의 측면에서 실험적 예술
- 여러 장르의 특성이 융합된 복합장르 예술창작 활동 및 탈장르예술
- 예술의 다양성을 증진하는 예술 활동
- 장르 간, 학제 간 융합을 통한 새로운 예술창작활동
- 융복합형 사업의 새로운 담론 생산을 위한 비평 및 연구 활동

○ 사업형태
- 공연, 전시, 퍼포먼스, 다큐멘터리, 비평 및 연구, 워크숍 등 창작 및 표현 활동
- 융복합형 예술창작을 증진하기 위한 실험성과 대안성이 강조된 프로젝트

□ 2000년대 아르코가 수행한 다원예술의 의의는 무엇이었나?

- 동시대적 예술(컨템포퍼리 아트) 개념의 한국적 수용 : 모더니즘의 성찰적 인식, 포스트모더니즘의 재발견
- 융복합/탈장르/복합장르/장르-가 존재한다는 사실의 발견과 인증
- 문화와 예술간의 대결 혹은 화합을 시도하는 프로젝트의 발견과 인증
- 예술의 '사각지대' 개념을 인증
- 제도권-비제도권, 기성-독립간의 대결 혹은 분리됨을 인증
- '프로젝트', '플랫폼', '매개자', '기획자', '페스티벌', '네트워크' 등의 개념을 재발견, 재정의 : 기존의 창작주체였던 학연 중심의 단체들이 주제 중심의 관련 집단으로 재편
- 공공성, 동시대성, 정체성과 같은 예술미학적 의제의 계발 및 탐구

□ 10년간의 다원예술 지원사업 중간점검의 결론들

- 다원예술 지원사업은 필요하다.
- 개별 장르를 확장시키는 것보다 중간지대를 넓히는 것이 낫다.
- 다원예술을 재정의하려는 시도는 완결된 규정이 아니라, 비평적인 차원에서 계속 이뤄져야 한다.
- 다원예술 파이를 늘리거나, 다원예술 트랙을 다양화하거나, 다원예술 매개공간을 더 만들어야 한다.

→ 그러나, 2015년 융복합 예술트랙 신설, 2016년 다원예술 부문 전체 폐지

□ '아르코 다원예술' 혹은 '실다지'라는 용어가 사라진 것에 대한 의미

- '플랫폼의 플랫폼'의 소멸
- 정책-현장 간의 파트너쉽 종료 : 독립예술 입지 축소
- 중앙-지역의 연결고리 끊어짐 : 로컬예술 퇴화
- 예술활동에 있어서 '과정'이 아닌 '결과'로 다시 회귀하는 경향
- 중간지대가 좁아지고, 사각지대가 더욱 넓어짐.
- 다원예술 매체들의 폐간, 다원예술 공간들의 어려움(특정 장르로 쏠림)

□ 아르코의 다원예술 지원중단이 다원예술 붕괴로 이어지지 않은 까닭

- 서울문화재단 등의 대체자 역할 : 다원예술 창작지원, 유망예술지원 MAP, 최초예술지원, 창작공간 지원사업, 거리예술창작지원센터
- 2010년대 다원예술 선정자들의 장르 내 흡수
- 아르코 내부 정책적 분화 : AYAF,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창작실험 과정과 공유, 비평지원 활성화 사업 등의 프로그램
- 예술경영지원센터 : 비평지원활성화 사업, 시각예술 관련 다양한 사업 시행
- '국립 = 현대' 라는 타이틀 아래, '국현'의 시도, ACC의 시도들
- 서울시 및 지역 : 2010년대 말 청년예술지원정책 다원예술 파트 지속
- 민간차원의 시도 : 두산아트랩, 남산서치라이트, 우란문화재단 등
- 예술가 차원의 시도 : 신생공간, 신생축제, 신생매체 등의 자구적 연대

□ 붕괴는 되지 않았지만… 후퇴한 것은 확실

- 다원예술의 논쟁적 담론의 장 실종, 지역의 다원예술지원트랙 변질
- 기존의 다원예술 주체들의 위축 및 축소
- 새로운 세대들의 고립, 장르 내 투신 혹은 씬 바깥으로 탈예술
- 2018년 미투운동, 장르 내 문제점을 장르 내에서만 논의(문학, 연극, 미술, 무용, 전통이 서로 연대하지 못하고 각개 고군분투 하는 양상)
- 거버넌스 실행에 있어서, 장르를 이해하고 횡단하는 전문가 부족

□ 다원예술로 인해 있었을 거라 예측되었던 행정상의 어려움들

- 사업 재편에 대한 끊임없는 요구 –〉 사업 자체에 대한 인정과 존중을 넘어서 주관적 입장에 입각한 사업 개선 요구(사업폐지요구로도 오해받을 수 있었던 다양한 의견 표출)
- 용어의 혼란 혹은 끊임없이 반복되었던 개념의 재정의 –〉 정의 내리라는 압박처럼 여겨짐 (다원예술은 끊임없이 토론하며 만들어가는 '비어있는' 개념임)
- 예산수립과 예산수렴에 있어서의 문제(예산처, 기재부에 대한 해명 문제)
- 융복합, 통섭 등의 기술 및 산업과 예술의 만남에 대한 외압 존재
- 예술행정가 입장에서 만족감/자존감은 낮고, 복잡성/피로도는 높았던 사업 –〉 차년도, 차후년도의 가시적인 성과가 아닌 3–5–10년을 내다보는 장기적 사업
- 기성 예술가, 기성 예술계, 학계의 비협조적인 대응 –〉 신진 예술가, 새로운 씬의 비적극적

인 응답
– 현장과의 파트너쉽 부재 –〉 파트너쉽을 위한 상호간의 노력이 부재함

□ 다원예술에 대한 몇 가지 오해들

– 단일사업에 있어서 나오는 다양한 의견(사업 개선 등)은 오히려 그 사업에 대한 강력한 필요를 전제함(예술가들이 바라는 것은 다양화나 예산증액 요구이지 사업 고도화나 사업폐지가 아님)
– 다원예술 창작지원 사업은 융복합 창작지원 사업과는 별개임(시대에 맞춰, 혹은 예술계의 상황에 맞춰 각각 중요한 미션을 갖고 있음. 다원예술 지원사업이 융복합예술 지원트랙에서 수행할 수 없는 미션이 있고, 융복합예술이 다원예술 트랙에서 수행할 수 없는 미션이 각각 존재함)
– 다원예술 창작지원을 없애는 것은, 문화부/문예위에서는 사업 하나를 없애는 것이지만, 예술계 입장에서는 플랫폼을 연결하던 '허브'가 없어지는 현상이 발생함(장르, 세대, 지역, 매개자, 가치 등의 연결고리가 다 끊어짐)
– (정책으로 보전된) 다원예술이 개별 장르에서의 깊이와 확장을 방해한다는 의견은, 2018년 '미투운동'으로 인해 개별 장르의 위계가 얼마나 폭력적이었는지 밝혀지면서, 그간 다원예술 분야가 누군가에겐 '안전지대' 역할을 해 왔음이 드러남. 이 시대에 중간지대가 왜 필요한지, 그것이 어떤 기능을 해 왔는지 증명함
– 다원예술이 미학적으로만 기능할 뿐 사회적으로 기능하지 못한다는 것은, 세월호–블랙리스트 사건을 지나오며, '아르코'를 대체한 이외의 창작지원파트(다원예술)의 성과로 틀렸음이 증명됨. 사회적 의제 계발에 충실하였음. 인권, 노동, 젠더, 장애, 기술, 미래 이슈 등등

□ 나가며 : 예술지원정책이란 무엇인가?

– 예술위원회의 설립의미는 무엇인가?
– 2000년대, 2010년대 문예위의 파트너는 누구였는가?
– 2020년대, 다원예술을 전망하며

→ '이 작업은 문화예술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만들어졌습니다'는 문구가 의미하는 것

예시 1)

2013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사업평가 최종보고서(요약본)(2014. 7)

[104] 예술다양성증진지원

1. 평가결과

평가항목		평가지표	가중치	득점
계획 (25)	사업 계획 (15)	1–1. 사업목적이 명확하고 성과목표 달성에 부합하는가?	5	5
		1–2. 다른 사업과 불필요하게 유사중복되지 않는가?	5	5
		1–3. 사업내용이 적정하고 추진방식이 효율적인가?	5	3
	성과 계획 (10)	2–1. 성과지표가 사업목적과 명확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가?	5	5
		2–2.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 되었는가?	5	5
집행 (30)		3–1.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도록 노력하였는가?	15	12
		3–2. 사업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가?	5	5
		3–3. 사업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였는가?	10	6
성과 (45)		4–1. 계획된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달성하였는가?	30	25
		4–2. 평가결과(개선과제)를 충실히 환류(이행)하였는가?	12	9
		4–3 우수사례 평가	3	2
전체합계			100	82.00

〈총평〉

○ 동 사업은 사회 문화적 통섭의 시대적 환경에 부응하는 예술활동을 견인하기 위하여 새로운 예술담론 생산과 융복합형 예술의 창작기반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동 사업은 '실험적예술및다양성증진지원'과 '융복합공동기획프로젝트지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년도 지적사항이었던 명확한 지원사업 기준 확립에 대한 보완이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필요로 하며, 사업계획 시 분석을 통해 지원대상 기준을 재설정하고, 새로운 예술의 방향성 설정, 비예술분야와의 소통채널 구축 등의 다양한 시도를 꾀하는 등 구체적인 문제해결 방안을 제시한 것은 긍정적이며 적절한 것으로 평가됨.

○ 또한, 지원사업 대상 기준 명확화를 위해 최근 4년간 지원사업의 현황 분석을 통해 성과지표 재조정과 일부 지표를 강화함으로써, 성과지표가 사업목적 및 성과목표와 적절한 인과관계를 형성하고 있음.

○ 하지만, 사업명칭(특히 '실험적 예술 및 다양성 증진')에 대한 개념이 모호하여 이로 인한 혼란의 가능성이 있음.

○ 이어 사업 목적을 추진하기에 세부사업의 예산, 지원 시스템 등이 빈약한 문제도 보완되어야 할 것임. 또한 '실험'과 '융 · 복합'이 주는 의미가 매우 추상적이어서 다른 사업과 달리 사업기준 설정 이전에 용어 개념을 정립하고 개념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 수행 범위를 명확히 하는 작업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그렇지 않을 경우 지원대상의 변별력을 갖추지 못한 사업이 될 가능성이 높음.

○ 한편, 사업모니터링이 정기적으로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다수 전문가가 참여하여 객관성을 확보하는 노력은 돋보임. 급변하는 예술환경에 민감한 분야이므로 사업과는 별도로 예술환경 트렌드 파악에 주력하여 실현가능한 실험과 융 · 복합 성향에 대해 미리 파악하는 노력이 더해진다면 보다 선도적으로 실험예술과 융 · 복합예술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예술다양성증진사업〉 (82점/100점), 우수 등급

2. 주요 평가결과 요약

○ 예술다양성증진지원사업은 100점 만점에 82점을 획득하여 우수등급으로 평가됨.

○ 세부 평가항목별로 살펴보면, 계획 부문의 사업계획 부문(15점 만점)에서는 13점을 획득하였고, 성과계획 부문(10점 만점)에서는 10점을, 집행 부문(30점 만점)에서는 23점을, 성과부문(45점 만점)에서는 36점을 받았음.

〈사업계획〉 (13점/15점)

○ 동 사업은 분석을 통해 지원대상 기준을 재설정하고, 새로운 예술의 방향성 설정, 비예술분야와의 소통채널 구축 등의 다양한 시도를 꾀하는 등 구체적인 문제해결 방안을 제시한 것은 긍정적이고 적절하다 평가됨.

○ 하지만, 사업명칭(특히 '실험적 예술 및 다양성 증진') 에 대한 개념이 모호하여 이로 인한 혼란의 가능성이 있음.

○ 한편 사업 목적을 추진하기에 세부사업의 예산, 지원 시스템 등이 빈약한 문제는 보완되어야 할 것임.

〈성과계획〉 (10점/10점)

○ 지원사업 대상 기준 명확화를 위해 최근 4년간 지원사업의 현황 분석을 통해 성과지표 재조정과 일부 지표를 강화함으로써, 성과지표가 사업목적 및 성과목표와 적절한 인과관계를 형성하고 있음이 주목됨.

〈집행〉 (23점/30점)

○ 사업 명칭이나 내용에서 지원 분야를 선정하기 어려운 상태이지만 계획하였던 사업 실적이 잘 이루어지었으며, 지원사업 설명으로 부터 단계별로 모니터링이 잘 이루어져 제시되었고, 소통의 문제, 작품의 유지관리 및 불화 가능성의 문제를 직시하고 해결하려 노력하였음이 인정됨.

○ 그러나 예술 창작 수요자인 관람객의 관점에 대한 모니터링과 자료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실험성과 다양성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사업목적과 성과목표를 구체화하라는 지적에 대한 해결이 보이지 않음.

〈성과〉 (36점/45점)

○ '평균창작작품수' 및 '평균관람객수' 등 2개의 성과지표 목표치를 모두 초과 달성하였으나, 문화예술위원회 전체 사업 중 가장 최하위인 75.7의 결과를 바탕으로 융합의 코드가 우선 잘못 연결이 된 것은 아닌지, 오해와 타부서간의 협력 시스템은 안전한지 점검해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됨.

[2013년 문화예술진흥기금 사업평가 최종점수 및 등급]

단위사업명	평가점수	등급
예술창작의 역량강화	85.01	우수
생활 속 예술활성화	86.13	우수
지역문화 예술진흥	92.43	매우우수
예술의 사회적가치 제고	84.26	우수

단위사업	세부사업	평가점수	평가등급
예술창작의 역량강화	[101] 문학창작지원	73.75	보통
	[102] 시각예술창작지원	83.80	우수
	[103] 공연예술창작지원	73.00	보통
	[104] 예술다양성증진지원	82.00	우수
	[105] 전시 · 창작소통공간운영	84.80	우수
	[106] 차세대예술인력육성(AYAF)	91.11	매우우수
	[107] 예술인력재교육	93.47	매우우수
	[108] 국제교류활성화지원	90.31	매우우수
	[109] 국제교류협력체계구축	92.84	매우우수
생활 속 예술활성화	[201] 문화복지(문화바우처)	87.76	우수
	[202] 문화나눔(문화바우처 외)	84.49	우수
지역문화 예술진흥	[301] 지역문예활동지원	92.43	매우우수
예술의 사회적가치 제고	[401] 문화예술홍보및간행물발간	84.55	우수
	[402] 기초예술정책연구조사	81.25	우수
	[403] 문화예술사회공헌지원	89.44	우수
	[404] 공공미술사업운영	81.78	우수
최종 평가점		85.42	우수

예시 2)

2015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사업 편제(조정)

단위사업	세부사업	세세부사업		내역사업(하위사업)	예산 (백만원)	담당부서
예술창작 역량강화	예술창작 지원	문학창작지원	1	문학창작활동지원	1,000	문학지원부
			2	우수문예지발간지원	1,000	문학지원부
			3	사이버문학광장운영	500	문학지원부
			4	문학집필공간운영지원	500	문학지원부
			5	문학행사및연구지원	200	문학지원부
		시각예술창작지원	6	시각예술창작및전시공간지원	1,250	시각예술부
			7	시각예술행사지원	500	시각예술부
			8	시각예술비평연구활성화지원	150	시각예술부
			9	사립미술관네트워크활성화	120	시각예술부
			10	사립미술관전문인력지원	1,412	시각예술부
			11	코리안아티스트프로젝트	200	국제교류부
		공연예술창작지원	12	공연예술비평연구활성화지원	340	공연지원부
			13	기초공연예술활성화지원	10,000	공연지원부
			14	창작뮤지컬육성지원	6,000	공연지원부
			15	공연예술창작산실육성지원	5,200	공연지원부
			16	공연예술활성화기반조성	1,100	공연지원부
		융복합예술창작지원공간운영	17	융복합예술창작지원공간운영	900	시각예술부
		융복합예술창작지원	18	융복합예술창작지원	1,000	시각예술부
		예술가소통공간지원	19	예술가소통공간지원	330	시각예술부
	예술인력 육성	차세대예술인력육성	20	AYAF-문학	250	문학지원부
			21	AYAF-시각예술	300	시각예술부
			22	AYAF-공연예술(창작자/실현자)	950	창의예술인력센터
		예술인력재교육	23	예술인력기반운영관리(무대교육 포함)	1,000	창의예술인력센터
			24	전문무용수센터지원	1,000	창의예술인력센터
			25	문화예술기관연수단원지원	4,568	창의예술인력센터
			26	전통예술기획자양성프로젝트	50	창의예술인력센터
	국제예술 교류지원	문화예술교류및협력	27	민간국제예술교류지원	2,800	국제교류부
			28	국제문화기관협력지원	300	국제교류부
		한국문화예술세계화	29	국제교류기반강화지원	1,950	국제교류부
			30	미술품해외시장개척지원	1,280	국제교류부
			31	전통예술텍스트번역 및 해외전통예술보급지원	300	국제교류부
생활속 예술 활성화	소외계층 문화역량 강화	통합문화이용권	32	통합문화이용권(문화)	42,643	문화누리부
		소외계층문화순회	33	소외계층문화순회	10,000	순회사업부
		사랑티켓	34	사랑티켓	1,278	순회사업부
		방방곡곡문화공감	35	방방곡곡문화공감	8,000	순회사업부
		생활문화공동체지원	36	생활문화공동체지원	1,200	순회사업부
지역문화 예술진흥	지역문화 예술지원	지역문예활동지원	37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	16,190	예술후원센터
			38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8,400	예술후원센터
			39	지역문화협의체운영(평가 포함)	230	예술후원센터
예술 가치의 사회적 확산	문화예술 사회적 인식제고	예술정책실행력제고	40	문화예술홍보및간행물발간	600	기획조정부
			41	기초예술정책연구조사	250	기획조정부
			42	예술가종합지원실운영	100	문학지원부
			43	예술정책실행력제고(평가)	300	공연지원부
		문화예술기부활성화	44	기부금사업 및 문화예술기부활성화	10,695	예술후원센터
			45	기업과예술의만남활성화	1,000	예술후원센터
			46	문화예술협력네트워크지원	550	예술후원센터
			47	후원매개단체지원	150	예술후원센터
			48	문화로인사합시다	100	예술후원센터
			49	원로문예인복지지원	188	문화누리부
		예술경영지원센터지원	50	예술경영지원센터지원	2,057	국제교류부
4개	6개	19개		50개	152,181	

05 내역사업

융복합예술창작지원

본부	부서	본부장	부장	사업담당자
문학시각예술본부	시각예술부			

I 사업 추진배경

1 사업환경 및 여건

❑ 기금지원의 논리적 근거

○ 예술현장의 현실과 요구를 정책으로 수렴하고 '예술 환경의 변화와 새로운 예술'에 주목(ARKO 비전 2020)해야 하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예술 환경의 변화와 이에 따른 새로운 예술 활동과 예술주체, 예술 가치를 발굴하고 예술계의 창조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원 및 융복합예술창작지원사업은 반드시 필요한 전략적 지원사업임.

○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는 예술창작활동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는 반면, 기성 장르들만을 포용하는 기존 지원사업의 한계에 대한 지적에 따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다원예술 및 융복합예술이라는 카테고리를 신설

❑ 기금운용방향

○ 예술 장르 간 및 학제 간 융복합을 지향하는 '다원예술창작지원'과 예술장르와 타 장르의 융복합을 지향하는 '융복합예술창작지원'으로 이원화하여 추진함

○ '융복합예술창작지원 프로그램'에서는 타분야 전문기관과의 협업기획사업 적극 추진

2 재정지원 필요성 및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 다양한 예술활동 지원 필요

○ 고착화 및 관성화된 장르체계와 배타적인 장르질서를 기반으로 한 기존의 지원사업으로 인해 새로운 창작을 추구하는 예술가들의 어려움이 꾸준히 제기되어 옴.

○ 기존 개념을 가로지르는 다원예술 정책과 지원정책이 필요함에 따라 실험성, 다양성, 잠재성 등을 주요한 특성으로 내재하고 있는 다원예술에 대한 문화예술 장르별 교류와 진화 등을 위해서는 공공지원이 매우 필요함.

○ 결합, 통섭, 연계 등 융·복합을 통한 새로운 창의성 모색의 움직임이 예술계에서도 역시 강조됨에 따라 다원적 예술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예술의 창조적 종 다양성을 확대하려는 사업목적은 명확하고 타당하다고 할 수 있음.

❶ 예술창작역량강화

2 내역사업 추진개요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사업내용	예산액
다원예술창작지원	특정 예술 장르에 속하지 않는 실험성과 다원예술의 예술적 특성으로 한 사업을 대상으로 개방형 공모사업 추진	600
융복합예술창작지원	융복합예술 활동의 모델 개발을 위해 신청 주체와 우리 위원회가 협업 프로젝트로 사업추진	400

◎ 사업목적 불명확과 관련한 외부지적 사항(최근 3년) : 해당사항 없음

3 예·결산 현황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14년 예산	'15년 예산(A)	'16년 예산(B)	증감(B-A)	%
☐ 기능별 분류	Σ1,000	Σ1,000	-	-	
· 다원예술창작지원	600	600	-	△600	순감
· 융복합예술창작지원	400	400	-	△400	순감
☐ 세출예산비목	Σ1,000	Σ1,000	-	-	
· 일반수용비(210-01)	50	100	-	△600	순감
· 민간경상보조(320-01)	950	900	-	△400	순감

❑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13년 결산	'14년 결산(A)	'15년 결산(B)	증감(B-A)	%
☐ 기능별 분류	Σ	Σ962	Σ509	△453	△47.1
· 다원예술창작지원	-	588	414	△174	△29.6
· 융복합예술창작지원	-	374	95	△279	△74.6
☐ 세출예산비목	Σ	Σ962	Σ509	△453	△47.1
· 일반수용비(210-01)	-	25	14	△11	△44
· 민간경상보조(320-01)	-	937	495	△442	△47.2

Ⅲ 사업의 집행·관리

1 예산 집행 및 관리

❑ 분기별 집행현황

구분	계(' 15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계획	1,000,000,000	-	-	-	-
집행	509,000,000	113,839,340	198,744,400	79,224,810	79,787,200
잔액	490,000,000	-	-	-	-

❑ 예산집행률

○ 세부사업 : 다원예술창작지원 사업 등 2개 사업
○ 예산액 : 1,000,000,000원
○ 집행액 : 509,000,000원
○ 집행율 : 50.9%

(단위 : 백만원, %)

구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현액 (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A)							
○ 세세부사업명	1,000	1,000	-	1,000	509	50	50	0	490
다원예술창작지원	600	600		600	414	69	69	0	186
융복합예술창작지원	400	400	-	400	95	23	23	0	305

❑ 미집행 사유 및 후속조치 결과 : 사업 잔여예산(490백만원) 불용처리

Ⅳ 사업의 실적 및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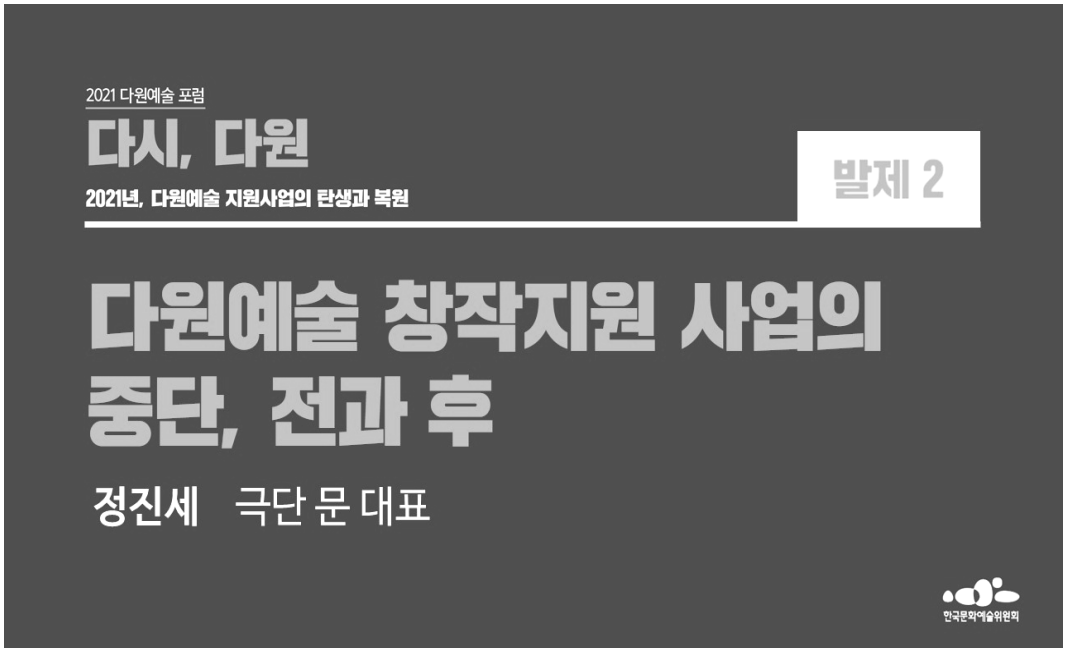
Ⅰ 성과목표 및 달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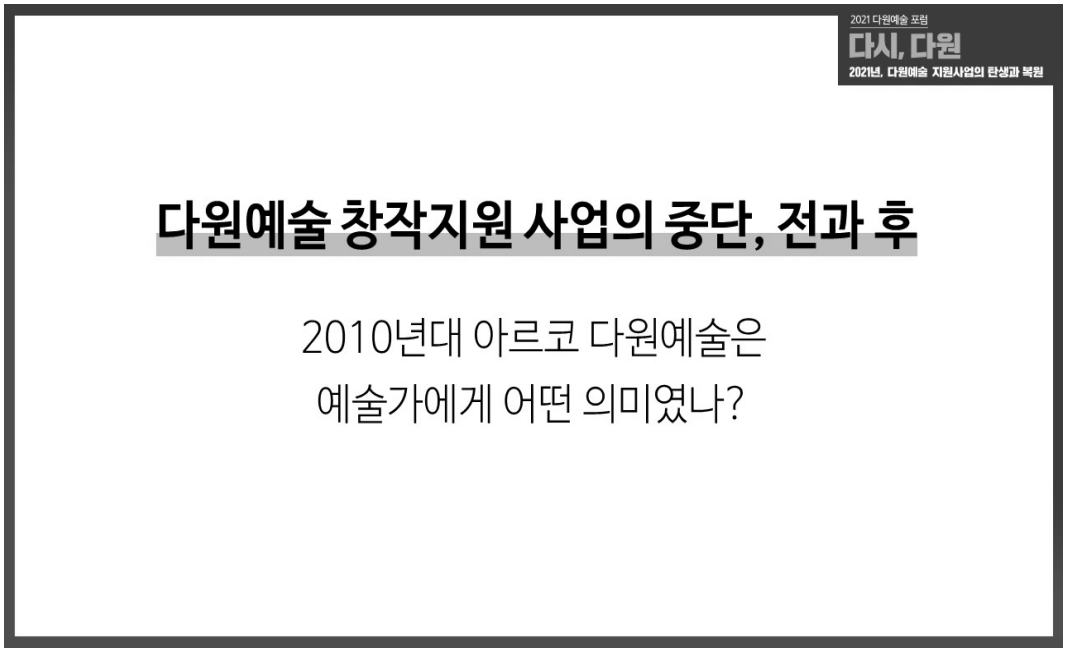
❑ 사업목적과 성과목표 연계성

• 사업목적	융복합형 창작을 추구하는 예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
• 성과목표	새로운 예술담론 생산과 융복합형 예술창작기반 조성
- 사업목적과의 연계성	기존 장르의 범위(경계를 없앰)를 벗어나고 관습과 제도를 탈피하는 실험적 예술을 육성하고 예술의 확장과 다양성을 증진하여 예술창작의 변화와 발전을 촉진함

❑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측정산식 및 측정방법
①융복합예술 지원예술인·단체 만족도(점)	• 목표	-	-	90.0	85.7	91.4	-측정방법:기획재정부 조사 -측정산식:기획재정부 자료 -자료출처:기획재정부
	• 실적	75	77.3	75.7	79.2	75.6	
	• 달성률	-	-	84.1	92.4	82.7	
②융복합예술 평균 창작 작품수(건)	• 목표	-	-	-	10	10	-측정방법:전수조사 -측정산식:창작작품수/지원건수 -자료출처:내부ERP
	• 실적	-	-	-	9	6	
	• 달성률	-	-	-	90.0	60	
③융복합예술창작 평균 참여자수(명)	• 목표	-	51	85	95	151	-측정방법:전수조사 -측정산식:참여예술가수/지원건수 -자료출처:내부ERP
	• 실적	48	55	86	137	14	
	• 달성률	-	107.8	101.2	143.2 →	9.2	
④융복합예술 지원프로그램 평균 참여관객수(명)	• 목표	9,887	10,163	15,391	15,937	25,231	-측정방법:전수조사 -측정산식:관람객수/지원건수 -자료출처:내부ERP
	• 실적	9,567	10,810	15,498	6,773	1,695	
	• 달성률	96.8	106.4	100.7	42.5	6.7	
⑤융복합예술 지원프로그램 참여관객 만족도(점)	• 목표	-	-	신규	85.8	86.8	-측정방법:기획재정부 조사 -측정산식:기획재정부 자료 -자료출처:기획재정부
	• 실적	-	-	-	83.5	미조사	
	• 달성률	-	-	-	97.3	-	


2021 다원예술 포럼
다시, 다원
2021년, 다원예술 지원사업의 탄생과 복원
발제 2
다원예술 창작지원 사업의 중단, 전과 후
정진세 극단 문 대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21 다원예술 포럼
다시, 다원
2021년, 다원예술 지원사업의 탄생과 복원
다원예술 창작지원 사업의 중단, 전과 후
2010년대 아르코 다원예술은
예술가에게 어떤 의미였나?

2021 다원예술 포럼
다시, 다원
2021년, 다원예술 지원사업의 탄생과 복원

세월호 사태 이전, 2010년대 초 다원예술계의 풍경

- 창작자로서, 관객으로서, 매체 종자사로서 가장 행복하던 시기
- 사계절 내내, 매월 실험적인 예술활동을 목격/경험할 수 있었던 시절
- 미술, 문학, 음악, 무용, 연극, 전통 장르가 '퍼포먼스(몸, 수행성)'에 대한 관심을 두던 시기
- '출판-전시-공연-축제' 라는 미학적 제작 사이클이 맞물려 돌아가던 시기
- 다원예술 작품이 상연되는 곳은 언제나 예술적 만남이 존재함.
- 서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던, 선순환 하던 예술계 (2009-2014)

2021 다원예술 포럼
다시, 다원
2021년, 다원예술 지원사업의 탄생과 복원

다원예술 창작지원의 효과- "플랫폼의 플랫폼" 역할

- 2000년대 아르코가 지원한 다원예술 분야에서 성장한 예술가의 활약
- 2000년대말, 2010년대초 다원예술을 보고 성장한 '이후' 세대의 등장

2021 다원예술 포럼
다시, 다원
2021년, 다원예술 지원사업의 탄생과 복원

다원예술 창작지원의 효과- “플랫폼의 플랫폼” 역할

- 담론의 장 마련 :
  다원예술이라는 키워드 아래, 기존의 예술을 재정의 하는 비평적 시도 장려, 비평지원 계기 마련
- 예술계 내부의/외부 사각지대 예술가를 발견하는 장치 :
  장르, 세대, 공간, 매체, 문화, 지역, 장소 어디에나 존재했던 예술의 ‘사각지대’ 발견 또는 사각지대 예술가를 호명하기

2021 다원예술 포럼
다시, 다원
2021년, 다원예술 지원사업의 탄생과 복원

다원예술 창작지원의 효과- “플랫폼의 플랫폼” 역할

- 해외/국내 아티스트간의 교류, 서울-지역 활동 간의 교류
- 하위문화, 서브컬쳐, 기술문화, 특정 취향, 특정 로컬씬과 예술과의 만남
- 예술관객과 일반시민과의 만남, 대중의 개념 확장
- 예술지원의 결과물이 가시적인 ‘성과’가 아닌, ‘과정, 실험, 미완성, 진행중, 비평적 -인 어떤 것’ 일 수 있다는 개념 제시

2021 다원예술 포럼
다시, 다원
2021년, 다원예술 지원사업의 탄생과 복원

다원예술 창작지원의 효과- “플랫폼의 플랫폼” 역할

→ 창작환경을 더 깊고, 더 넓게, 더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지원제도

→ 다원예술가는 예술가에게 영감을 주는 “예술가의 예술가” 역할로 호명

→ 다원예술정책은 ‘예술가의 예술가’를 매개하는 ‘플랫폼의 플랫폼’ 역할

2021 다원예술 포럼
다시, 다원
2021년, 다원예술 지원사업의 탄생과 복원

다원예술분야 정책실험의 안정화 단계 (2000년대 아르코의 성과)

- 다원예술소위원회 활동 : 다원예술포럼, 현장예술가와의 만남, 모니터링, 심사 및 평가
- 다원예술 창작지원에 있어서, ‘공모-심사-지원선정-사업수행-모니터링-환류’ 과정의 충실함
- 다원예술 정책실험 : 결과물이 아닌 과정물에 대한 지원 사례 마련, 다원예술 분야의 예산집행에서의 다양한 케이스 마련
- 감당 가능한 NCAS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제도
- 예술행정가와 현장예술가의 건강한 긴장관계 수립

2021 다원예술 포럼
다시, 다원
2021년, 다원예술 지원사업의 탄생과 복원

정책적 본질을 환기시켰던 아르코 다원예술 지원사업 (혹은 기금)

- 지원사업은 서로 다른 예술가들을 만나게 하는 기회로 작용했다.
- 지원기금은 일종의 상호규약(예술가-매개자-행정가간의 최소한의 소통 약속)이었다.
- 예술현장과 정책 사이에 비평/질문이 필요한 시기에 서로 소통할 수 있었던 단 하나의 '계' 혹은 '씬'의 활성화 장치였다.
- 정책실험 혹은 실험정책의 테스트베드 : 문화예술위원회 혹은 예술정책의 본질 환기
- 성격이 다른 지원제도나 지원프로그램도 연결하는 정책 간 연결고리

2021 다원예술 포럼
다시, 다원
2021년, 다원예술 지원사업의 탄생과 복원

다원예술의 '존재의미'가 가장 빛났던 시기 : 2012년 - 2014년

사례) 2013년 실험적 예술 및 다양성 증진 지원사업 = 다원예술 창작지원 사업

○ 사업내용
- 내용과 형식, 매체실험 등 측면에서 실험적 예술
- 여러 장르의 특성이 융합된 복합장르 예술창작 활동 및 탈장르예술
- 예술의 다양성을 증진하는 예술 활동
- 장르간, 학제간 융합을 통한 새로운 예술창작활동
- 융복합형 사업의 새로운 담론 생산을 위한 비평 및 연구 활동

○ 사업형태
- 공연, 전시, 퍼포먼스, 다큐멘터리, 비평 및 연구, 워크숍 등 창작 및 표현 활동
- 융복합형 예술창작을 증진하기 위한 실험성과 대안성이 강조된 프로젝트

2021 다원예술 포럼
다시, 다원
2021년, 다원예술 지원사업의 탄생과 복원

2013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사업평가 최종보고서(요약본)(2014. 7)

[104] 예술다양성증진지원

1. 1. 평가결과

평가항목		평가지표	가중치	득점
계획 (25)	사업계획 (15)	1-1. 사업목적이 명확하고 성과목표 달성에 부합하는가?	5	5
		1-2. 다른 사업과 불필요하게 유사·중복되지 않는가?	5	5
		1-3. 사업내용이 적정하고 추진방식이 효율적인가?	5	3
	성과계획 (10)	2-1. 성과지표가 사업목적과 명확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가?	5	5
		2-2.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되었는가?	5	5
집행 (30)		3-1.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도록 노력하였는가?	15	12
		3-2. 사업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가?	5	5
		3-3. 사업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였는가?	10	6
성과 (45)		4-1. 계획된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달성하였는가?	30	25
		4-2. 평가결과(개선과제)를 충실히 환류(이행)하였는가?	12	9
		4-3 우수사례 평가	3	2
전체합계			100	82.00

〈출처 : 2013년 문화예술진흥기금 사업평가 보고서, 한국정책평가원, 2014.〉

2021 다원예술 포럼
다시, 다원
2021년, 다원예술 지원사업의 탄생과 복원

총평

○ 동 사업은 사회 문화적 풍섭의 시대적 환경에 부응하는 예술활동을 견인하기 위하여 새로운 예술담론 생산과 융복합형 예술의 창작기반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동 사업은 '실험적예술및다양성증진지원'과 '융복합공동기획프로젝트지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년도 지적사항이었던 명확한 지원사업 기준 확립에 대한 보완이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필요로 하며, 사업계획 시 분석을 통해 지원대상 기준을 재설정하고, 새로운 예술의 방향성 설정, 비예술분야와의 소통채널 구축 등의 다양한 시도를 꾀하는 등 구체적인 문제해결 방안을 제시한 것은 긍정적이며 적절한 것으로 평가됨.

○ 또한, 지원사업 대상 기준 명확화를 위해 최근 4년간 지원사업의 현황 분석을 통해 성과지표 재조정과 일부 지표를 강화함으로써, 성과지표가 사업목적 및 성과목표와 적절한 인과관계를 형성하고 있음.

○ 하지만, 사업명칭(특히 '실험적 예술 및 다양성 증진')에 대한 개념이 모호하여 이로 인한 혼란의 가능성이 있음.

○ 이어 사업 목적을 추진하기에 세부사업의 예산, 지원 시스템 등이 빈약한 문제도 보완되어야 할 것임. 또한 '실험'과 '융·복합'이 주는 의미가 매우 추상적이어서 다른 사업과 달리 사업기준 설정 이전에 용어 개념을 정립하고 개념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 수행범위를 명확히 하는 작업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그렇지 않을 경우 지원대상의 변별력을 갖추지 못한 사업이 될 가능성이 높음.

○ 한편, 사업모니터링이 정기적으로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다수 전문가가 참여하여 객관성을 확보하는 노력은 돋보임. 급변하는 예술환경에 민감한 분야이므로 사업과는 별도로 예술환경 트렌트 파악에 주력하여 실현가능한 실험과 융·복합 성향에 대해 미리 파악하는 노력이 더해진다면 보다 선도적으로 실험예술과 융·복합예술을 활성화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예술다양성증진사업 (82점/100점), 우수 등급

〈출처 : 2013년 문화예술진흥기금 사업평가 보고서, 한국정책평가원, 2014.〉

2021 다원예술 포럼
다시, 다원
2021년, 다원예술 지원사업의 탄생과 복원

가. [2013년 문화예술진흥기금 사업평가 최종점수 및 등급]

단위사업명	평가점수	등급
예술창작의 역량강화	85.01	우수
생활 속 예술활성화	86.13	우수
지역문화 예술진흥	92.43	매우우수
예술의 사회적가치 제고	84.26	우수

단위사업	세부사업	평가점수	평가등급
예술창작의 역량강화	[101] 문학창작지원	73.75	보통
	[102] 시각예술창작지원	83.80	우수
	[103] 공연예술창작지원	73.00	보통
	[104] 예술다양성증진지원	82.00	우수
	[105] 전시 창작소통공간운영	84.80	우수
	[106] 차세대예술인력육성(AYAF)	91.11	매우우수
	[107] 예술인력재교육	93.47	매우우수
	[108] 국제교류활성화지원	90.31	매우우수
	[109] 국제교류협력체계구축	92.84	매우우수
생활 속 예술활성화	[201] 문화복지(문화바우처)	87.76	우수
	[202] 문화나눔(문화바우처 외)	84.49	우수
지역문화 예술진흥	[301] 지역문예활동지원	92.43	매우우수
예술의 사회적가치 제고	[401] 문화예술홍보및간행물발간	84.55	우수
	[402] 기초예술정책연구조사	81.25	우수
	[403] 문화예술사회공헌지원	89.44	우수
	[404] 공공미술사업운영	81.78	우수
최종 평가점		85.42	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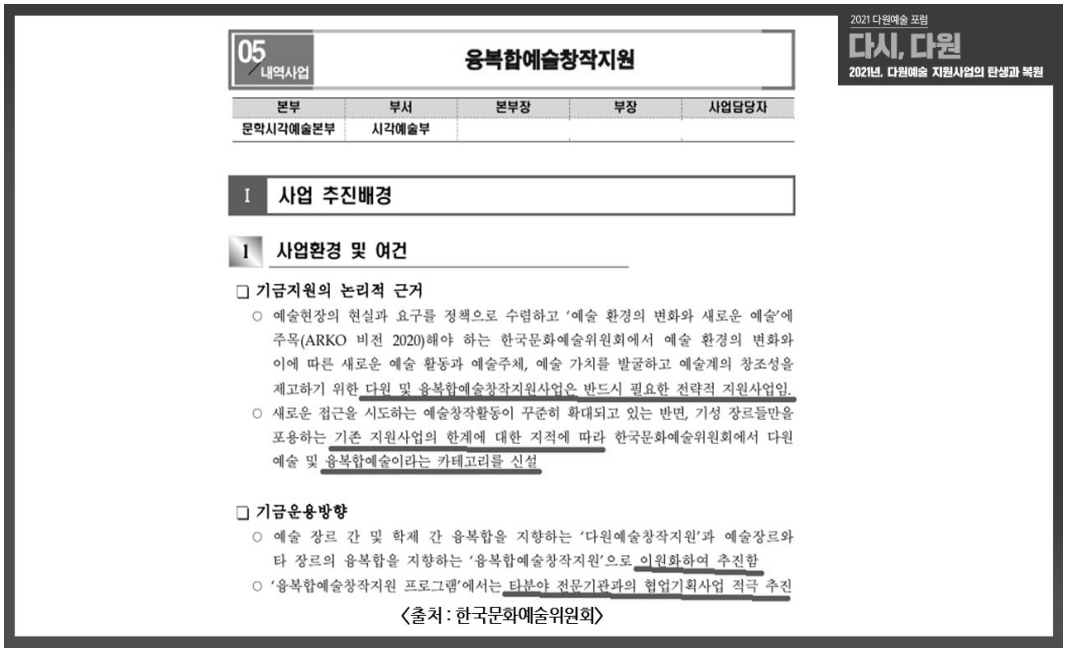
〈출처 : 2013년 문화예술진흥기금 사업평가 보고서, 한국정책평가원, 2014.〉

2021 다원예술 포럼
다시, 다원
2021년, 다원예술 지원사업의 탄생과 복원

2015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사업 편제[조정]

단위사업	세부사업	세세부사업		내역사업(하위사업)	예산 (백만원)	담당부서
예술창작 역량강화	예술창작 지원	문학창작지원	1	문학창작활동지원	1,000	문학지원부
			2	우수문예지발간지원	1,000	문학지원부
			3	사이버문학광장운영	500	문학지원부
			4	문학집필공간운영지원	500	문학지원부
			5	문학행사및연구지원	200	문학지원부
		시각예술창작지원	6	시각예술창작및전시공간지원	1,250	시각예술부
			7	시각예술행사지원	500	시각예술부
			8	시각예술비평연구활성화지원	150	시각예술부
			9	사립미술관네트워크활성화	120	시각예술부
			10	사립미술관전문인력지원	1,412	시각예술부
			11	코리안아티스트프로젝트	200	국제교류부
		공연예술창작지원	12	공연예술비평연구활성화지원	340	공연지원부
			13	기초공연예술활성화지원	10,000	공연지원부
			14	창작뮤지컬육성지원	6,000	공연지원부
			15	공연예술창작산실육성지원	5,200	공연지원부
			16	공연예술활성화기반조성	1,100	공연지원부
		융복합예술창작지원공간운영	17	융복합예술창작지원공간운영	900	시각예술부
		융복합예술창작지원	18	융복합예술창작지원	1,000	시각예술부
		예술가소통공간지원	19	예술가소통공간지원	330	시각예술부
	예술인력 육성	차세대예술인력육성	20	AYAF-문학	250	문학지원부
			21	AYAF-시각예술	300	시각예술부
			22	AYAF-공연예술(창작자/실현자)	950	창의예술인력센터
		예술인력재교육	23	예술인력개발원운영[전략교육 포함]	1,000	창의예술인력센터
			24	전문무용수센터지원	1,000	창의예술인력센터
			25	문화예술기관연수단원지원	4,568	창의예술인력센터
			26	전통예술기획지양성프로젝트	50	창의예술인력센터
	국제예술 교류지원	문화예술교류및협력	27	민간국제예술교류지원	2,800	국제교류부
			28	국제문화기관협력지원	300	국제교류부
		한국문화예술세계화	29	국제교류기반강화지원	1,950	국제교류부
			30	미술품해외시장개척지원	1,280	국제교류부
			31	전통예술텍스트번역 및 해외전통예술보급지원	300	국제교류부

〈출처 : 2013년 문화예술진흥기금 사업평가 보고서, 한국정책평가원, 2014.〉



2021 다원예술 포럼
다시, 다원
2021년, 다원예술 지원사업의 탄생과 복원

05 내역사업 **융복합예술창작지원**

본부	부서	본부장	부장	사업담당자
문학시각예술본부	시각예술부			

I 사업 추진배경

1 사업환경 및 여건

❑ 기금지원의 논리적 근거

○ 예술현장의 현실과 요구를 정책으로 수렴하고 '예술 환경의 변화와 새로운 예술'에 주목(ARKO 비전 2020)해야 하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예술 환경의 변화와 이에 따른 새로운 예술 활동과 예술주체, 예술 가치를 발굴하고 예술계의 창조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원 및 융복합예술창작지원사업은 반드시 필요한 전략적 지원사업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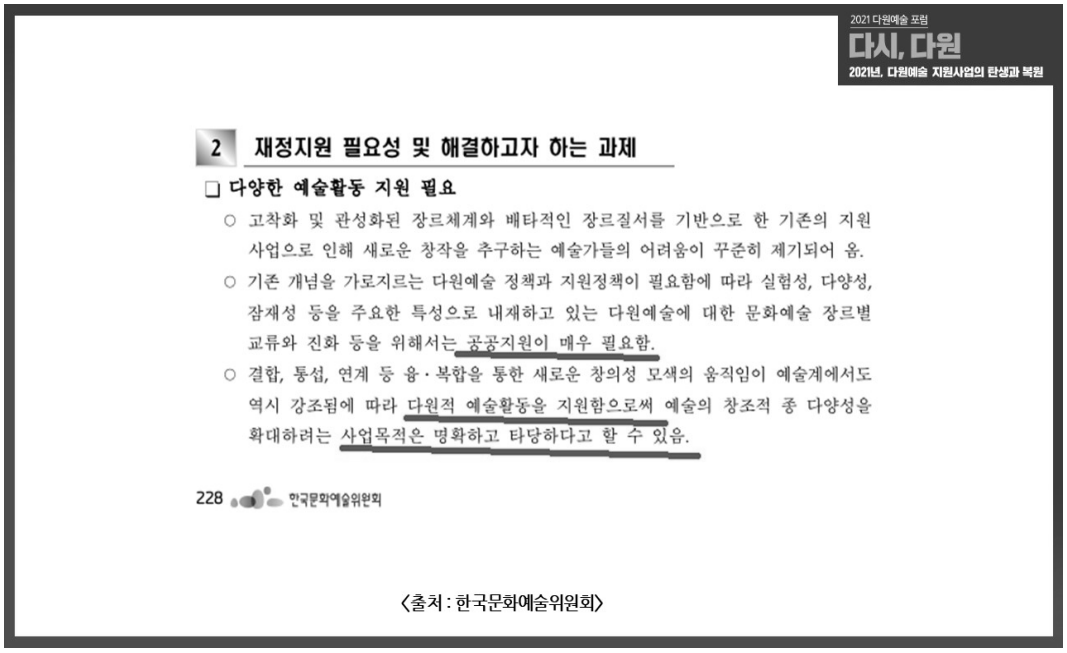
○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는 예술창작활동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는 반면, 기성 장르들만을 포용하는 기존 지원사업의 한계에 대한 지적에 따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다원예술 및 융복합예술이라는 카테고리를 신설

❑ 기금운용방향

○ 예술 장르 간 및 학제 간 융복합을 지향하는 '다원예술창작지원'과 예술장르와 타 장르의 융복합을 지향하는 '융복합예술창작지원'으로 이원화하여 추진함

○ '융복합예술창작지원 프로그램'에서는 타분야 전문기관과의 협업기획사업 적극 추진

〈출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21 다원예술 포럼
다시, 다원
2021년, 다원예술 지원사업의 탄생과 복원

2 재정지원 필요성 및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 다양한 예술활동 지원 필요

○ 고착화 및 관성화된 장르체계와 배타적인 장르질서를 기반으로 한 기존의 지원사업으로 인해 새로운 창작을 추구하는 예술가들의 어려움이 꾸준히 제기되어 옴.

○ 기존 개념을 가로지르는 다원예술 정책과 지원정책이 필요함에 따라 실험성, 다양성, 잠재성 등을 주요한 특성으로 내재하고 있는 다원예술에 대한 문화예술 장르별 교류와 진화 등을 위해서는 공공지원이 매우 필요함.

○ 결합, 통섭, 연계 등 융·복합을 통한 새로운 창의성 모색의 움직임이 예술계에서도 역시 강조됨에 따라 다원적 예술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예술의 창조적 종 다양성을 확대하려는 사업목적은 명확하고 타당하다고 할 수 있음.

228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출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21 다원예술 포럼
다시, 다원
2021년, 다원예술 지원사업의 탄생과 복원

2 내역사업 추진개요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사업내용	예산액
다원예술창작지원	특정 예술 장르에 속하지 않는 실험성과 다원예술의 예술적 특성으로 한 사업을 대상으로 개방형 공모사업 추진	600
융복합예술창작지원	융복합예술 활동의 모델 개발을 위해 신청 주체와 우리 위원회가 협업 프로젝트로 사업추진	400

◎ 사업목적 불명확과 관련한 외부지적 사항(최근 3년) : 해당사항 없음

〈출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21 다원예술 포럼
다시, 다원
2021년, 다원예술 지원사업의 탄생과 복원

Ⅲ 사업의 집행·관리

1 예산 집행 및 관리

❑ 분기별 집행현황

구분	계(' 15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계획	1,000,000,000	-	-	-	-
집행	509,000,000	113,839,340	198,744,400	79,224,810	79,787,200
잔액	490,000,000	-	-	-	-

❑ 예산집행률

○ 세부사업 : 다원예술창작지원 사업 등 2개 사업
○ 예산액 : 1,000,000,000원
○ 집행액 : 509,000,000원
○ 집행율 : 50.9%

(단위 : 백만원, %)

구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현액 (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A)							
○ 세세부사업명	1,000	1,000	-	1,000	509	50	50	0	490
다원예술창작지원	600	600		600	414	69	69	0	186
융복합예술창작지원	400	400	-	400	95	23	23	0	305

❑ 미집행 사유 및 후속조치 결과 사업 잔여예산(490백만원) 불용처리

〈출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21 다원예술 포럼
다시, 다원
2021년, 다원예술 지원사업의 탄생과 복원

2000년대 아르코가 수행한 다원예술의 의의는 무엇이었나?

- 동시대적 예술(컨템포퍼리 아트) 개념의 한국적 수용 : 모더니즘의 성찰적 인식, 포스트모더니즘의 재발견
- 융복합/탈장르/복합장르/장르-가 존재한다는 사실의 발견과 인증
- 문화와 예술간의 대결 혹은 화합을 시도하는 프로젝트의 발견과 인증
- 예술의 '사각지대' 개념을 인증
- 제도권-비제도권, 기성-독립간의 대결 혹은 분리됨을 인증
- '프로젝트', '플랫폼', '매개자', '기획자', '페스티벌', '네트워크' 등의 개념을 재발견, 재정의
- 공공성, 동시대성, 정체성과 같은 예술미학적 의제의 계발 및 탐구

2021 다원예술 포럼
다시, 다원
2021년, 다원예술 지원사업의 탄생과 복원

2010년대 (아르코가 지원하다가 중단한) 다원예술의 의의는 무엇이었나?

- '발견'한 예술 현상의 활동 및 작품 인정과 지원 → 동시대 예술, 당대 예술 개념
- 예술가, 예술작품, 예술활동 간의 매개와 연결
- 재발견, 재정의한 동시대 예술개념의 담론-화, 학술-화, 확장-화 → 미학에서 정책까지
- 미래예술, 다음예술 등의 의제 및 미션 발굴 → 아방가르드에서 배리어프리까지
- 장르 안쪽에서 이야기되지 못한 문제들을 바깥에서 의제화 → 젠더, 노동, 사회참여

2021 다원예술 포럼
다시, 다원
2021년, 다원예술 지원사업의 탄생과 복원

10년간의 다원예술 지원사업 중간점검의 결론들

- 다원예술 지원사업은 필요하다
- 개별 장르를 확장시키는 것보다 중간지대를 넓히는 것이 낫다
- 다원예술을 재정의하려는 시도는 완결된 규정이 아니라, 비평적인 차원에서 계속 이뤄져야 한다.
- 다원예술 파이를 늘리거나, 다원예술 트랙을 다양화 하거나, 다원예술 매개공간을 더 만들어야 한다.

→ 그러나, 2015년 융복합 예술트랙 신설, 2016년 다원예술 부문 전체 폐지

2021 다원예술 포럼
다시, 다원
2021년, 다원예술 지원사업의 탄생과 복원

'아르코 다원예술' 혹은 '실다지'라는 용어가 사라진 것에 대한 의미

- '플랫폼의 플랫폼'의 소멸
- 정책-현장 간의 파트너쉽 종료 : 독립예술 입지 축소
- 중앙-지역의 연결고리 끊어짐 : 로컬예술 축소
- 예술활동에 있어서 '과정'이 아닌 '결과'로 다시 회귀하는 경향
- 중간지대가 좁아지고, 사각지대가 더욱 넓어짐.
- 다원예술 매체들의 폐간, 다원예술 공간들의 어려움(특정 장르로 쏠림)

2021 다원예술 포럼
다시, 다원
2021년, 다원예술 지원사업의 탄생과 복원

아르코의 다원예술 지원중단이 다원예술 붕괴로 이어지지 않은 까닭

- 서울문화재단 등의 대체자 역할 : 다원예술 창작지원, 유망예술지원 MAP, 최초예술지원, 창작공간 지원사업, 거리예술창작지원센터
- 2010년대 다원예술 선정자들의 장르 내 흡수
- 아르코 내부 정책적 분화 : AYAF,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창작실험 과정과 공유, 비평지원 활성화 사업 등의 프로그램
- 예술경영지원센터 : 비평지원활성화 사업, 시각예술 관련 다양한 사업 시행
- '국립 = 현대' 라는 타이틀 아래, '국현'의 시도, ACC의 시도들
- 서울시 및 지역 : 2010년대 말 청년예술지원정책 다원예술 파트 지속
- 민간차원의 시도 : 두산아트랩, 남산서치라이트, 우란문화재단 등
- 예술가 차원의 시도 : 신생공간, 신생축제, 신생매체, 독립기획자 등의 자구적 연대

2021 다원예술 포럼
다시, 다원
2021년, 다원예술 지원사업의 탄생과 복원

붕괴는 되지 않았지만... 정체된 것은 확실

- 다원예술의 논쟁적 담론의 장 실종, 지역의 다원예술지원트랙 변질
- 기존의 다원예술 주체들의 위축 및 축소
- 새로운 세대들의 고립, 장르 내 투신 혹은 씬 바깥으로 탈예술

- 2018년 미투운동 이후, 장르 내 문제점을 장르 내에서만 논의
  (문학, 연극, 미술, 무용, 전통이 서로 연대하지 못하고 각개 고군분투 하는 양상)
- 거버넌스 실행에 있어서, 장르를 이해하고 횡단하는 전문가 부족

2021 다원예술 포럼
다시, 다원
2021년, 다원예술 지원사업의 탄생과 복원

다원예술로 인해 있었을 거라 예측되었던 행정상의 어려움들

- 사업 재편에 대한 끊임없는 요구 → 사업 자체에 대한 인정과 존중을 넘어서 주관적 입장에 입각한 사업 개선 요구 (사업폐지요구로 오해받을수 있었던 여러 의견제시)
- 용어의 혼란 혹은 끊임없이 반복되었던 개념의 재정의 → 정의 내리라는 압박처럼 여겨짐 (다원예술은 끊임없이 토론하며 만들어가는 '비어있는' 개념임-조차도 설명하기 어려움)
- 예산수립과 예산수령에 있어서의 문제 (예산처, 기재부에 대한 해명 문제)
- 융복합, 통섭 등의 기술 및 산업과 예술의 만남에 대한 외압과 강요
- 만족감/자존감은 낮고, 복잡성/피로도는 높았던 사업 → 차년도, 차후년도의 가시적인 성과가 아닌 3-5-10년을 내다보는 장기적 사업
- 기성 예술가, 기성 예술계, 학계의 비협조적인 대응 → 신진 예술가, 새로운 씬의 비적극적인 응답
- 현장과의 파트너쉽 부재 → 파트너쉽을 위한 상호간의 노력이 부재함, 문제해결과 소통을 위한 '매개자의 매개자' 필요

2021 다원예술 포럼
다시, 다원
2021년, 다원예술 지원사업의 탄생과 복원

다원예술 정책에 대한 몇 가지 오해들

- 단일사업에 있어서 나오는 다양한 의견(사업 개선 등)은 오히려 그 사업에 대한 강력한 필요를 전제함 (예술가들이 바라는 것은 다양화나 예산증액 요구이지 사업 고도화나 사업폐지가 아님)
- 다원예술 창작지원 사업은 융복합 창작지원 사업과는 별개임 (시대에 맞춰, 혹은 예술계의 상황에 맞춰 각각 중요한 미션을 갖고 있음. 다원예술 지원사업이 융복합예술 지원트랙에서 수행할 수 없는 미션이 있고, 융복합예술이 다원예술 트랙에서 수행할 수 없는 미션이 각각 존재함)
- 다원예술 창작지원을 없애고 마는 것은, 문화부/문예위에서 결정할수 없음 (지원기관 입장에서는 사업 하나를 없애는 것이지만, 예술계 입장에서는 플랫폼을 연결하던 '허브'가 없어지는 현상이 발생함. 연쇄적으로 장르, 세대, 지역, 매개자, 가치 등의 연결고리가 다 끊어짐) 따라서 사업의 변화나 존폐에 대해서는 예술적 책임이 요구되고 거버넌스 영역이 구축되어 있어야 함.

2021 다원예술 포럼
다시, 다원
2021년, 다원예술 지원사업의 탄생과 복원

다원예술에 대한 몇 가지 오해들

- (정책으로 보전된) 다원예술이 여타 개별 장르에서의 깊이와 확장을 방해한다는 의견은, 2018년 '미투운동'으로 인해 개별 장르의 위계가 얼마나 폭력적이었는지 증명되면서, 그간 다원예술 분야가 누군가에겐 '안전지대' 역할을 해 왔음이 드러남.
- 다원예술이 미학적으로만 기능할 뿐 사회적으로 기능하지 못한다는 것은, 세월호-블랙리스트 사건을 지나오며, '아르코'를 대체한 이외의 창작지원파트(다원예술)의 성과로 틀렸음이 증명됨.

2021 다원예술 포럼
다시, 다원
2021년, 다원예술 지원사업의 탄생과 복원

나가며 : 예술지원정책이란 무엇인가?

- 예술위원회의 설립의미는 무엇인가?
- 2000년대, 2010년대 문예위의 파트너는 누구였는가?
- 2020년대, 다원예술을 전망하며

→ '이 작업은 문화예술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만들어졌습니다' 라는 문구가 의미하는 것

2021 다원예술 포럼

다시, 다원

2021년
다원예술 지원사업의
탄생과 복원

발제 3

사라진 목소리, 사라질 미래 : 다원예술창작지원 사업의 중단

– 블랙리스트 사건을 경유하여

임인자 (독립기획자, 서울변방연극제 전 예술감독)

2015년 이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다원예술은 사라졌습니다. 블랙리스트에 오른 다원예술분야의 예술인과 예술단체들의 지원배제를 위해서입니다. 도대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을까요? 저는 오늘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사라진 그리하여 서울문화재단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예술현장에서 사라져 버린 다원예술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다원예술은 다양한 목소리로부터 시작하였습니다. 1999년대 말과 2000년대 초, 밀레니엄 시기에 독립예술제(현, 서울프린지 페스티벌(1998년 시작))와 변방연극제(현, 서울변방연극제(1999년 시작) 등 새로운 세대와 주체 그리고 목소리들이 발현하면서 다양한 예술적 가치를 실현하고 기존의 제도를 전복하고자 하는 다양한 활동들이 전개되었고, 페스티벌 봄(2007년 시작) 등 다양한 미학적 실험에 이르는 활동들이 전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역시 하나의 장르이자 하나의 분야로 다원예술이 자리 잡았고, 수많은 작품들이 발표되었고 활동이 전개되었습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올해의 예술상을 시상했던 2005년도에는 다원예술분야에서 서울프린지 네트워크, 서울변방연극제, 서울뉴미디어페스티벌, 서울실험예술제, 홍성민 연출 등이 올해의 예술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에서 예술이 새로운 가치와 활동으로 점점 태동해 갔습니다.

때로는 다른 장르와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서울변방연극제의 경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다양한 시각과 장르가 결합되고 실험되면서 연극분야에서는 오히려 지원받기 어려웠습니다. 대규모의 축제가 아닌 민간에서 만드는 실험적 성격의 축제였고, 제가 예술감독을 맡은 후부터는 사회적인 목소리를 주목하며 '변방'의 의미를 제도의 안과 밖을 넘어 안과 밖 사이에 깔린 대감금의 역사에 주목하면서 다양한 주체들이 무대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실험들은 다원예술분야에서 응원해주었던 축제였습니다.

또한 서울프린지페스티벌은 개인적으로는 2000년에 서울프린지페스티벌에서 배우로 참여하면서 데뷔하기도 하여 늘 관심에 두던 축제였으면서도, 독립예술제의 시작에 걸맞게 다양한 가치를 전시, 영화, 공연 등 다양한 장르로 풀어내면서 그야말로 인디씬을 형성했고 이끌었던 축제였기에 늘 응원하였던 축제였습니다.

2014년 세월호 사태 이후, 그리고 예술 활동이 점점 자본에 잠식되어 가면서, '예술의 방향은 무엇이어야 하는가'에 대해 많이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10여년 넘게 민간 축제를 이끌어가며, 혼자서 모든 것을 담당해야하는 고단함으로 지쳐가고 있을 때,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2014년 말, 2015년 초의 이야기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 속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주시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2014년 말

서울연극제가 아르코예술극장에서 탈락하며, 연극인들의 문제제기가 시작되었고, 2015년 1월에는 '우리는 생산적인 논의를 원한다'는 주제로 '대학로X포럼'이 열리기도 했습니다. 이때부터 연극계를 중심으로 배제와 탈락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정확히 정체는 알 수 없었지만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감각되고 있었습니다.

…

그래서 오늘 이야기할 것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오프더레코드", **"기록할 수 없는 이야기"**에 대한 것입니다. 바로 블랙리스트 이야기입니다. 2015년 6월 25일 전라남도 나주시 예술위원회 3층 회의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제162차 회의에서는 이런 대화가 오고 갑니다. 이 회의는 바로 박명진 신임위원장이 취임한 이후 첫 회의였으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전체 위원이 참여한 자리였습니다.

"연극을 보시면 무용이나 음악, 전통예술에 비해서 지원 선정단체수나 지원 인원수에서 차등 나는 이유는 정부와의 회의과정에서 제외되는 단체들이 타 분야에 비해 많았던 탓"이라고 당시 이OO 당시 예술진흥본부장이 보고를 합니다. 그러자 한 위원이 묻습니다. "기록할 수 없는 이야기라는… 그런 이유로 배제된 단체들의 (항의를) 인력개발원뿐만 아니라 저도 굉장히 많이 받았다." 이OO 당시 예술진흥본부장은 탈락 사유를 "충분히 다 (준비)해 놨다"고 답하자, "몇 군데는 설명이 좀 안되는 것 같다"는 질문이 나오고, "그런 곳이 몇 군데 있기는 하다"는 답이 돌아옵니다.

회의는 후반부로 갈수록 상부 지시에 무방비 상태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행태를 비판하는 위원들의 목소리가 도드라집니다. 한 위원이 "아까 말씀하신 중에 **'정부와의 협의 과정에서'라면서 오프더레코드 예기를 했는데,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그것을 왜 기록하면 안 되는 건가"**라고 지원단체 선정 과정의 불투명과 관련한 설명을 회의록에 남기지 말도록 한 처사를 비판했습니다. 그러자 박명진 당시 신임위원장이자 전 위원장은 **"저도 최근 부분적으로 보고 받았다. 제가 전체적으로 검토해보고, 이 문제를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 고민해보겠다"**고 넘어갑니다.[1] 물론 이후에 박명진 위원장은 2017년 5월 18일 사퇴할 때까지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기록할 수 없는 이야기"라고 명시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검열과 블랙리스트의 논의가 처음 진행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1) 2015년 6월 25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제162차 회의 회의록, 『기록할 수 없는 이야기』 검열백서위원회, 2017년 4월, 초판, 59~60쪽

이미 2015년 5월 29일 제161차 회의에서는 이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당시 위원장이었던 권영빈 위원장은 "책임심의위원을 선정해놓고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 중에 지원해 줄 수 없도록 판단되는 리스트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을 안 진다는 겁니다"라고 발언합니다.[2] 이어 "또 하나는…참 말씀을 드리기가 힘든데요. 심의를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게 되어 있다. 그런 점에서 자율적인 심의가 원만하지 않다"고 덧붙입니다. 그러면서 권영빈 전 위원장은 "우리 예술위원들이 추천해서 책임심의위원들을 선정하면 해당 기관에서 그분들에 대한 신상파악 등을 해서 '된다,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탈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3]

이렇게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는 이미 검열과 블랙리스트가 자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2014년 말부터 아르코예술극장에서 배제된 연극인들을 중심으로 항의를 시작했지만, 그러한 일은 없다고 발뺌하였습니다. 심지어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공공극장으로서 공정한 심의 진행'이라고 입장문을 2014년 11월 21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4] 후에 이는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사실로 확인되기도 하였습니다. 대외적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검열과 블랙리스트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 동안 많은 일들이 있어나고 있었습니다. 창작산실에서는 2015년 6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직원들이 심사위원을 찾아가 이미 선정된 작품 '모든 군인은 불쌍하다'를 선정취소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결국 작품의 작가이자 연출이었던 박근형 연출가를 찾아가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2015년 9월 9일 JTBC를 통해 공개되었습니다.

저는 2014년 말~2015년 초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무엇인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된 순간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또한 예술가에게 직접 취소 사인을 하라고 찾아간 것이 마치 고문처럼 느껴졌습니다. 2015년 민주사회인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에 큰 충격과 분노를 느꼈습니다.

저는 2015년 9월 5일부로 서울변방연극제 예술감독을 사직한 상태였습니다. 2004년부터 시작하여 11년간 변방연극제를 운영하면서 경제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너무나 힘든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검열과 블랙리스트라는 고문 행위, 살인 행위가 일어난 것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또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연극분야, 다원예술창작지원 사업에서의 검열

2) 예술계 '블랙리스트' 존재 단서 나왔다. 2016년 10월 10일 한겨레, 손준현 기자
http://www.hani.co.kr/arti/culture/music/764932.html
3) 2015년 5월 29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제161차 회의 회의록, 『기록할 수 없는 이야기』 검열백서위원회, 2017년 4월, 초판, 57쪽
4) 2014년 11월 21일, 공연예술센터 2015 정기대관공모 '서울연극제 미선정'에 대한 입장
https://www.arko.or.kr/board/view/4057?page=10&cid=35980&searchValue=%EC%9E%85%EC%9E%A5&searchOperator=or&searchField=title,body

행위에 대한 심사위원의 내부 고발이 발표되었습니다. 하지만 2015년 10월 11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즉각 그런 일이 없다며 "예술계 편파 지원 논란에 대한 예술위 입장"이라는 반박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우려 사항을 제시했을 뿐"이며, "사회적 논란 예방 등 사업 추진에 있어서 일반적인 유의사항을 지시"한 것이라는 둥 그 자체로 이미 검열 행위를 인정하는 것이지만, 검열이 없었다는 식으로 입장문을 발표 하였습니다.[5] 이러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말도 안 되는 행태에 연극인들은 혜화동1번지에서 모여 긴급 좌담회를 개최하였고, 이양구, 김소연, 윤한솔, 김재엽, 이해성, 이진아 그리고 제가 참여하여 함께 쓴 성명서에 밤을 새워 연대 성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0월 초에는 이 성명서를 들고 국회에 찾아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고, 검열과 파행이라는 세미나도 했습니다.

하지만, 2015년 10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예술센터(현 아르코,대학로 예술극장)에서는 '이아이'라는 작품을 취소시키려 하였고, 직원의 반발로 취소가 되지 않자, 공연 방해를 하였습니다. 이는 당시 공연예술세터에 근무했던 김진이씨의 내부 고발로 세상에 밝혀지게 되었습니다.[6]

예술가들은 계속 저항해 갔지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 그리고 윗선으로 지목된 청와대에서도 아무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술가들은 예술활동을 통해 저항의 목소리를 계속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2016년 6월부터 10월까지 '검열각하 : 권리장전'을 개최하며 21개 단체(개인 포함)가 〈검열언어의 정치학〉, 〈이반검열〉 등 작품을 릴레이로 공연하였습니다.

그리고 〈검열각하 : 권리장전〉의 마지막차의 공연들이 무대에 올라가고 있을 때인 2016년 10월 10일, "기록할 수 없는 이야기"라고 기록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회의록이 언론(한겨레, 손준현 기자)를 통해 드러나면서 '리스트'의 존재가 세상에 알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2016년 10월 12일 한국일보를 통해 '세월호 선언 등 9,473명 문화계 블랙리스트 확인'이라는 블랙리스트의 존재가 확인되었습니다. 10월 26일에는 최순실(최서원)의 태블릿 피씨가 발견되었다는 기사와 함께 모두 아시는 것처럼 '촛불혁명'이 시작되었습니다.

2016년 11월 7일에는 한겨레 노형석, 손준현 기자를 통해 '블랙리스트, 청와대 공식문서 아닌 메일 팩스로...기록 감추기'라는 기사가 발표되면서 블랙리스트의 존재와 함께 '기록되지 않도록'전달되었던 블랙리스트의 전달 과정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체 위원회의에서의 발언들이 공개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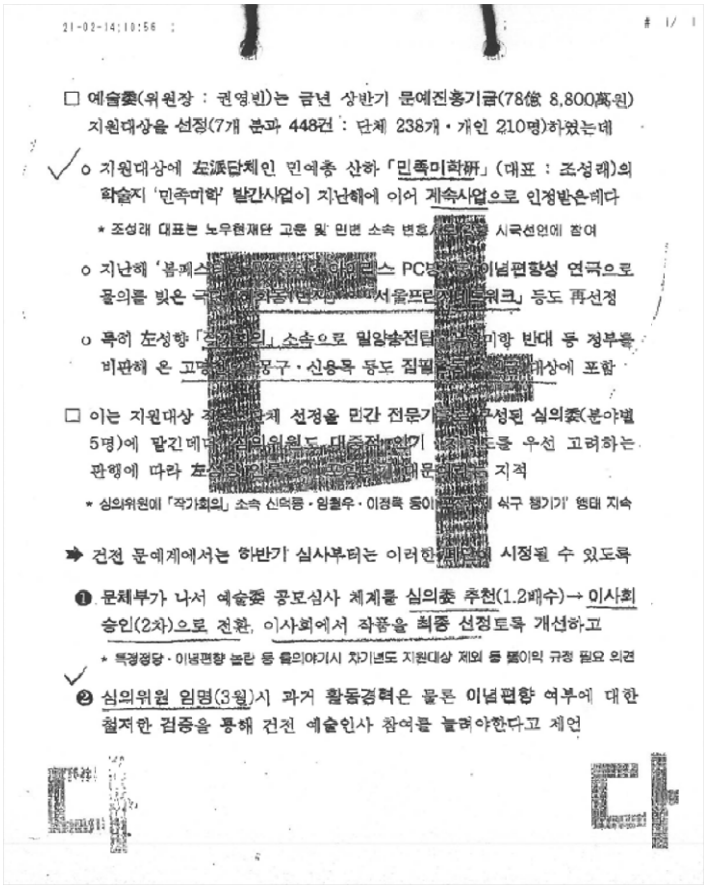
5) https://www.arko.or.kr/board/view/4057?page=8&cid=360746&searchValue=%EC%9E%85%EC%9E%A5&searchOperator=or&searchField=title,body
6) "수학여행이 왜 나와? 이거 세월호 이야기 아냐?" https://www.nocutnews.co.kr/news/4498609, 2015년 11월 4일, CBS 시사자키

저는 그중에서 다시 2015년 5월 29일 제161차 회의록으로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왜 돌아가려고 하느냐면, 위원들의 회의 이전에 이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무처에서 블랙리스트가 실행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저의 발제문 PPT 12~13페이지를 확인해주세요.) 그리고 이것은 청와대–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내려오는 과정이었으며, 이에 대한 검열 및 블랙리스트 집행자로서 예술위원회 직원들의 제대로 된 증언을 요청하기 위해서입니다. 아직도 다원예술분야에 대한 블랙리스트 실행여부를 인정하지 않는 임직원(간부진 포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재 검열과 블랙리스트에 대한 직권남용 및 강요죄를 묻는 김기춘 외 검열지시 및 집행자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미 대법원에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의 문체부 및 청와대에 검열 및 블랙리스트 실행을 위해 지원서류를 보내는 행위를 일상적인 것으로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해 버렸고, 그의 이유가 된 것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직원의 전에도 그런 적이 있다는 증언 때문입니다. 물론 증언을 거부하고, 그런 일이 없다고 하여 이미 1심부터 무죄 판결이 나도록 한 임직원도 있습니다. 때문에 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직원분들께서 블랙리스트 실행에 대한 증언을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만일 전에도 명단 및 지원서를 송부하는 일이 있었다면, 예술인으로서 청와대가 지원서를 검열할 것이라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며, 그런 일이 있었다면 분명 잘못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블랙리스트 관련한 재판을 방청했습니다. 1심의 재판에서는 중간 중간 참여하였고, 2심 재판은 거의 모든 재판에 다녀왔습니다. 그 재판에서 저는 수기로 된 이름들을 발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다원예술분야가 왜 사라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김기춘이 박근혜 정부의 대통령 비서실장이 된 것은 2013년 8월의 일입니다. 이때부터 아마 이념에 대한 검열을 자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2008년 이명박 정부 때부터 검열이 있었음이 밝혀졌습니다. 2013년 9월 26일에는 국정원이 작성한 문서인 〈시도 문화재단의 좌편향, 일탈 행태 시정 필요〉 문건에 인천문화재단, 광주문화재단 등이 언급되었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지원부는 2014년 2월 17일에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 실태조사보고서〉를 제출하기도 합니다. 이는 통상적인 실태조사보고서가 아닌, 국정원 문건처럼 이념을 조사하는 보고서였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는 서울프린지페스티벌 등이 지원에서 선정됩니다. 이는 통상적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다음연도 공모를 10월에 하고 12월까지 심의를 완료하여 12월 말 혹은 1월 초에 발표해오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대통령 비서실에서는 엄청난 지탄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2014년 2월 21일 김기춘은 모OO 교문수석에게 팩스로 국정원 문건을 전달합니다.



□ 예술委(위원장 : 권영빈)는 금년 상반기 문예진흥기금(78億 8,800萬원) 지원대상을 선정(7개 분과 448건 : 단체 238개 · 개인 210명)하였는데

✓ ○ 지원대상에 左派단체인 민예총 산하 「민족미학硏」(대표 : 조성래)의 학술지 '민족미학' 발간사업이 지난해에 이어 계속사업으로 인정받은데다

* 조성래 대표는 노무현재단 고문 및 민변 소속 변호사 시국선언에 참여

○ 지난해 '봄페스 PC방 이념편향성 연극으로 물의를 빚은 서울프린지 워크」 등도 再선정

○ 특히 左성향 「작가회의」 소속으로 밀양송전탑 미향 반대 등 정부를 비판해 온 고명 공구 · 신용목 등도 집필 대상에 포함

□ 이는 지원대상 체 선정을 민간 전문가 성된 심의委(분야별 5명)에 맡긴데 심의위원도 대중적 인기 도를 우선 고려하는 관행에 따라 左 지적

* 심의위원에 「작가회의」 소속 신덕룡 · 임철우 · 이정록 등이 식구 형기가 현재 지속

➡ 건전 문예계에서는 하반기 심사부터는 이러한 시정될 수 있도록

❶ 문체부가 나서 예술委 공모심사 체계를 심의委 추천(1.2배수)→ 이사회 승인(2차)으로 전환, 이사회에서 작품을 최종 선정토록 개선하고

* 특정정당 · 이념편향 논란 등 들의야기시 차기년도 지원대상 제외 등 별이익 규정 필요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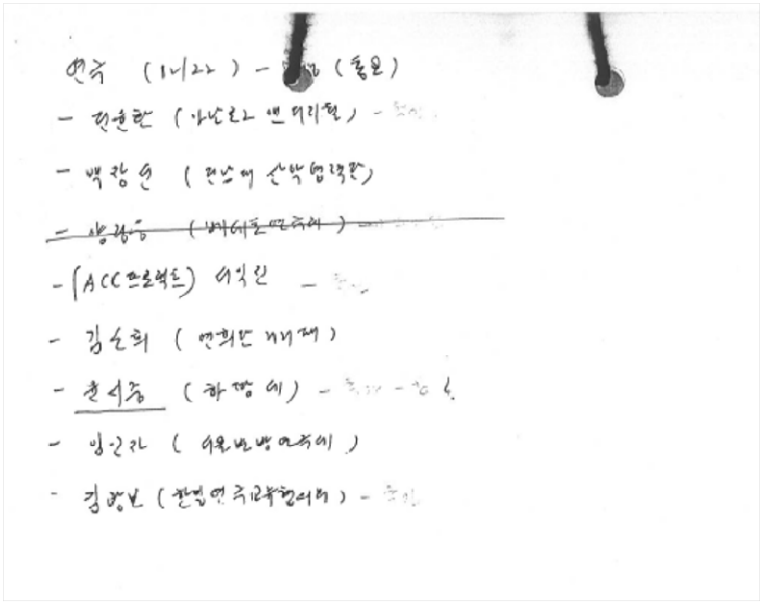
✓ ❷ 심의위원 임명(3월)시 과거 활동경력은 물론 이념편향 여부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 건전 예술인사 참여를 늘려야한다고 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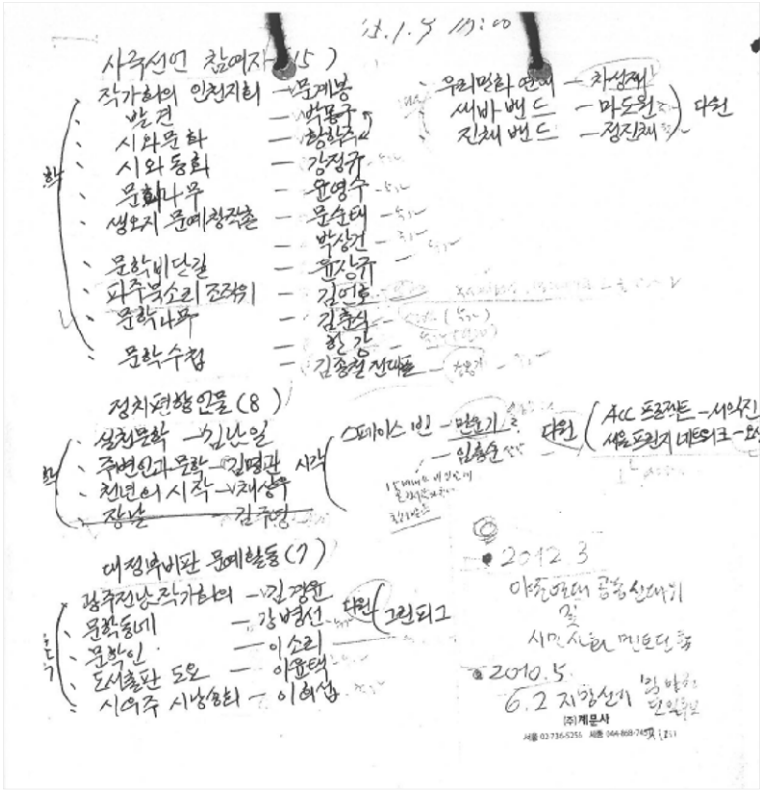
여기에 바로 혜화동1번지, 서울프린지네트워크가 왜 지원되었는지 현황이 공개됩니다. 이 자료를 중심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념편향 논란의 노서 또는 사업 진행관련 대책방안〉을 문체부에서 대통령 비서실로 제출합니다. 그리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는 〈문예기금 지원사업 관련〉이라는 문서를 만들어 문체부로 제출합니다. 여기에는 2014년 지원사업 선정 경위라고 하여 (사)민족미학연구소, 서울프린지페스티벌, 혜화동1번지(윤한솔, 이양구, 김수희, 김제민, 김한내) 등을 지원하였던 심의 기준과 지원 내역을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여 작품과 사업을 선정하였던 책임심의위원까지 변경할 것을 문서화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해 2014년 4~5월부터 정무 수석실을 중심으로 이른바 '블랙리스트'가 각 분야별로 작성이 되고, 교문수석실을 통해 문체부로 그리고 다시 한국문화예술위원회까지 하달되었습니다.

그리고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이라고 하여 문서를 작성하고 〈블랙리스트〉를 작성합니다. 여기에는 (사)대안영상문화발전소 아이공 등이 기록되었고, 이는 단체명에 '주체'라는 뜻 포함, 평등사회주장, 대안영상을 통한 사회운동 전개라는 이유까지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 11월, 12월~2015년 1월 그리고 그 이후까지 완벽하게 모든 블랙리스트들은 배제되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로 불러주면 수기로 받아주고, 팩스 메일 등으로 전달되었습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직원들은..... 블랙리스트 '시뮬레이션'까지 하여 메일을 주고 받으며 블랙리스트 배제 진행사항을 함께 공유하였습니다. 리스트는 음영으로 표시하여 심사위원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증언한 임직원이 있지만, 여전히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임직원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제가 작성한 PPT 자료에도 있지만, 비서실과 문체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수시로 〈공모사업 신청현황〉 및 이른바 '특이사항'으로 기재한 각 분야별 블랙리스트 실행 결과를 공유하고 보고합니다. 이렇게 계속 현황을 보고 하는 것이 '직권남용'으로 유죄판결이 나지 않은 대법원 결과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다시 각설하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배제 작업이 이루어졌고, 결국 다원예술분야는 그 분야 자체가 사라지게 된 결과가 되었습니다. (이 수많은 문서 내용은 PPT 내용을 꼭 확인해주시길 글을 읽는 분들게 부탁드립니다.) 심지어 예술가들에 대한 동향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6년 사업 개편안에 따르면 '공모 위주의 단순 지원사업'을 '지양'한다고 하면서, 애초에 예술가들이 자유롭게 창작할 수 있는 지원 사업을 폐지해버립니다. 그리고 기획사업을 확대하면서, 블랙리스트에 없는 예술가들과의 기획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렇게 다원예술은 사라졌습니다.

저는 작년, 2020년 9월에...블랙리스트 사건 이후로 처음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방문하였습니다. 2015년, 그리고 2016년의 저항과 싸움, 그리고 2017년 블랙텐트를 만들며 '빼앗긴 목소리'를 찾고자 했던 노력 끝에, 그해 2월엔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나주 본관을 찾아가 항의를 하는 피켓을 들며 박명진 위원장 사퇴하라고 외쳤던 그 때를 지나 처음 방문한 것이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서울뉴미디어페스티벌 김장연호 집행위원장, 서울프린지페스티벌의 정진세 운영위원, 그리고 서울변방연극제 전 예술감독이라는 직함으로 제가 참여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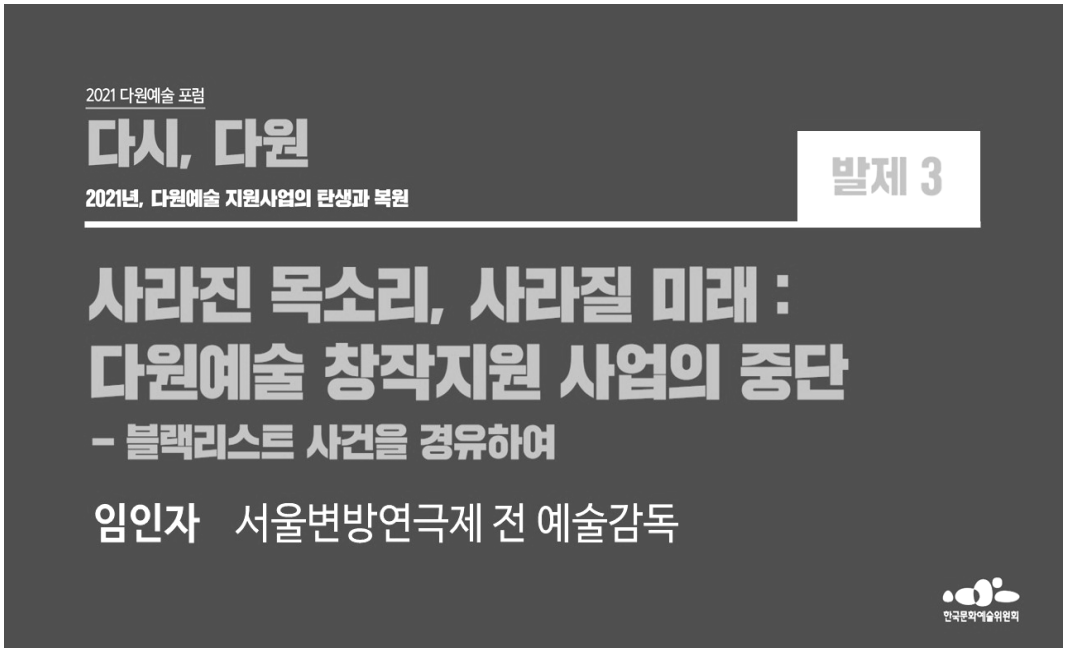
울려고 간 것은 아니었는데, 울 수 밖에 없었습니다. 변방연극제를 힘겹게 운영했던 지난 11년간, 그리고 검열과 블랙리스트로 싸웠던 6년간의 시간 끝에 처음 방문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 〈다시, 다원〉의 발표 자리에 선 것은 블랙리스트로 사라졌던 다원예술은 꼭 반드시 복원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형식도 내용도 모든 것이 자유롭고 규정할 수 없는 그래서 가치 있는 다원예술의 복원을 통해 우리 생태계와 예술의 자율성이 복원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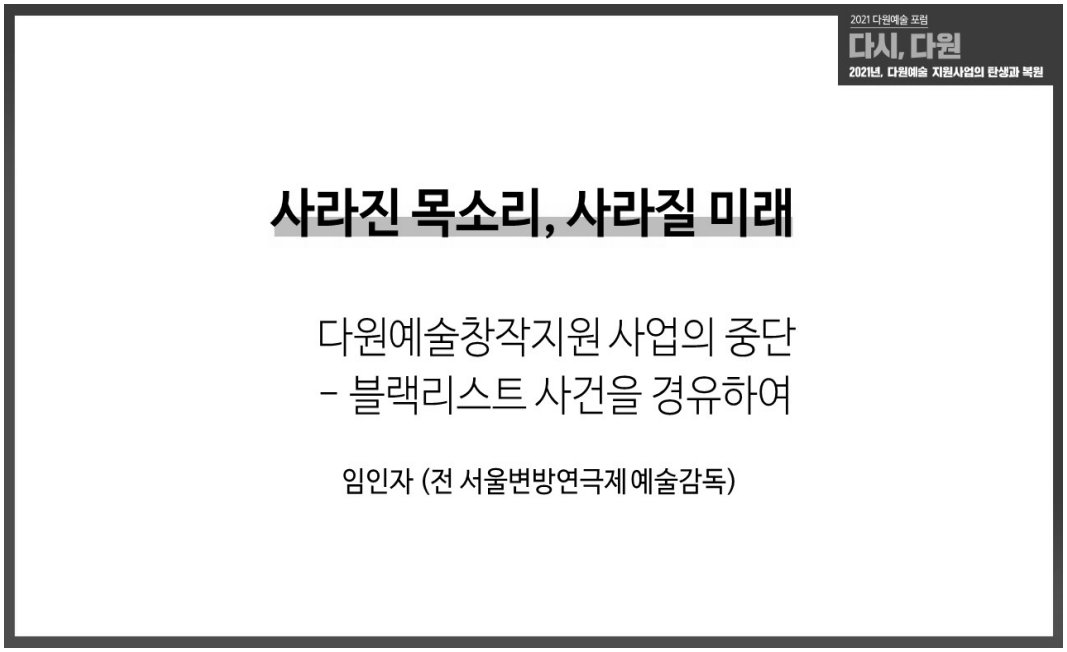
다원예술은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주었습니다. 문제적인 예술, 질문하는 예술, 동시대를 말하고자 하는 예술은 왜 사라졌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시대에, 우리의 가능성에, 또한 우리의 불가

능성에 대해,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예술의 존재 이유를 질문하고 실험하고, 예술이 아닌 것을 질문하며, 지금을 직시하고 말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미래란 오지 않을 것입니다.

사라진 과거를 회복하지 않는다면 미래는 다시 사라질 것입니다.

예술가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응원하며, 부족한 저이지만 긴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유로운 목소리를 사라지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다원예술은 복원되어야 하고 그것은 예술가들에게 되도록 많은 자유를 주는 방식으로 그렇게 예술의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본 PPT 자료는 원본 자료 이미지의 해상도를 최대한 편집한 상태입니다.

2021 다원예술 포럼
다시, 다원
2021년, 다원예술 지원사업의 탄생과 복원

"오프더레코드-기록할 수 없는 이야기"

2015년 6월 25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제162차 위원회 회의

"아까 말씀하신 중에 "정부와 협의 과정에서"라고 얘기하면서
오프더레코드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015년 6월 25일 회의록, 〈기록할 수 없는 이야기〉 검열백서위원회(2017.4)

2021 다원예술 포럼
다시, 다원
2021년, 다원예술 지원사업의 탄생과 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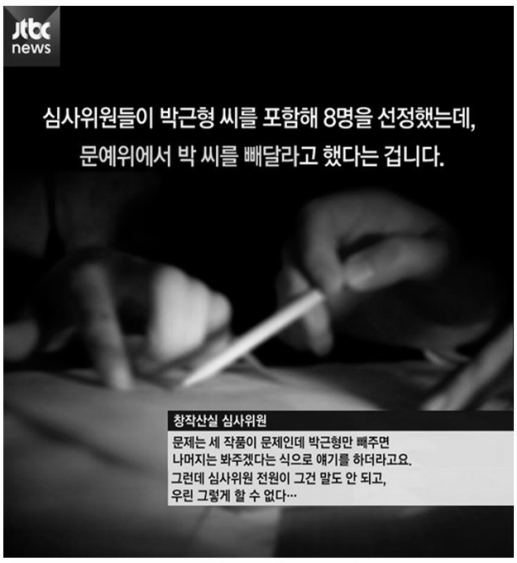
"지원해 줄 수 없도록 판단되는 리스트가 있는데"

-2015년 5월 29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제161차 위원회 회의

"책임심의위원을 선정해놓고 보니까 여러가지 문제 중에 지원해 줄 수 없도록 판단
되는 리스트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을 안진다는 겁니다"

(예술계 '블랙리스트' 존재 단서 나왔다. 2016년 10월 10일 한겨레, 손준현 기자)

2021 다원예술 포럼
다시, 다원
2021년, 다원예술 지원사업의 탄생과 복원



연극분야
창작산실

2015년 9월 9일
jtbc 정치검열 기사

〈출처 : 정권 비판 불편? … 창작지원 '정치검열 ' 의혹, jtbc, 강신후, 2015.09.09.〉

2021 다원예술 포럼
다시, 다원
2021년, 다원예술 지원사업의 탄생과 복원

2015년 다원예술창작지원사업

◈ 관련 증거(중략 없이 인용/ 낭독)

- 심의위원 L씨의 제보 : 제보 ①

○그러면 원래는 2차 심사명단에 올라와 있고, 거기서 탈락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정상적이지 않은 거죠? 방법이?

L: 그렇죠. 그런데 그 쪽에서 이미 심사할 때 그거는 빼고 다른 작품을 가지고 2차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거는 빼고 나머지 가지고. 이렇게 됐던 거고. *그렇게 얘기했던 게 세월호였고, 000(연출가)이었고. 그래서 안 된다, 곤란하다 위에서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다고 했고요.* 말을 먹으러 가서 *몇몇 리스트가 있다는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때 알았어요. 문예위에서 이렇게 몇몇 리스트가 있구나.

-심의위원 L씨의 제보 : 제보②

2차 최종심사 자리에서 이게 세월호와 연관되서 곤란하니 빼줬으면 좋겠다고 발하더군요. 제가 이의제기를 했지만 말씀 드린 것처럼 ….주장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중략) 아쉽거나 그때 이미 문예위 심사중간 심사결과에 대해 위로부터 수시로 모니터링이 있다는 인상을 받은 건 맞아요.

그리고 식사자리에서 사적으로 이야기가 오갔고 000의 작품들이 정치적이라고 '위에서 생각한다 그래서 자기네도 중간에서 일하기가 힘들다' 고 말하더군요.

〈출처 :유기홍 의원실, 이데일리, 김미경, 2015.〉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184886609501432&mediaCodeNo=257


2015년 1월 5일
대학로X포럼
대학로X포럼
“우리는 생산적인 논의를 원한다”
한택의 공공성 훼손과 서울연극제 문제에 대한 시선과 주장
2015년 10월 5일
검열과 파행
2015년 9월
국회 방문
2015년 10월
팝업시어터 저항연대


2016년 6월~10월
권리장전-검열각하

2021 다원예술 포럼
다시, 다원
2021년, 다원예술 지원사업의 탄생과 복원

'예술계 블랙리스트' 정부 회의록서 확인

도종환 의원 '예술위 회의록' 공개
"리스트 있어 심의 맘대로 못해"
기금지원금지 리스트 존재 확인
청와대 심사위원 선정 개입 발언도



정부의 '예술 지원 정치검열'과 관련해 그동안 소문으로 떠돌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의 존재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예술위) 회의록(사진)을 통해 확인됐다. 또 이 과정에서 심사위원 선정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발언까지 공개됐다. ▶관련기사 8면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한겨레〉 수행할 수 없음을 토로한 것이다.

이날 회의는 예술위의 기금지원심의 운영 규정에 대한 안건을 논의했다. 권 위원장은 상황을 정리하며 "우리 예술위원들이 추천해서 책임심의위원들을 선정하면 해당 기관에서 그분들에 대한 신상파악 등을 해서 '된다,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

블랙리스트 존재 의혹은 지난해 9월 국정감사에서 특정 연극에 대한 '외단 지원 배제의 배경으로 제기됐다. 당시 '세월호'를 다룬 윤한솔 연출의 연극 〈안산순례길〉이 예술위 지원 대상에서 탈락했고, 박근형 연출의 〈모든 군인은 불쌍하다〉는 예술위 지원사업에 선정되고도 '2013년 연출작 〈개구리〉가 박정희 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을 빗댔다'는 이유로 예술위로부터 신청 포기를 종용받은 바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의 도의원은 "예술위가 블랙리스트가 있음을 인정한 발언으로, 심사 개입, 정치검열이 '윗선'의 지시였다는 점이 명백해졌다"고 지적했다.

2015년 11월6일 예술위 회의에선 '청와대

〈출처 : 예술계 '블랙리스트' 존재 단서 나왔다, 한겨레, 손준현, 2016.〉

2021 다원예술 포럼
다시, 다원
2021년, 다원예술 지원사업의 탄생과 복원

한국일보
HANKOOKILBO.COM

세월호 선언 등 9473명 문화계 블랙리스트 확인

문재인·박원순 지지자들도 포함
문체부 공무원 "곧서 내려 보내"
국감서 제기된 검열 의혹 탈반침



혜범대 병력 올림도 배치
2018년부터 중대급 이상

2016년 10월 12일
한국일보

9473명
블랙리스트 확인

〈출처 : 9473명 문화계 블랙리스트 확인, 한국일보, 2016.1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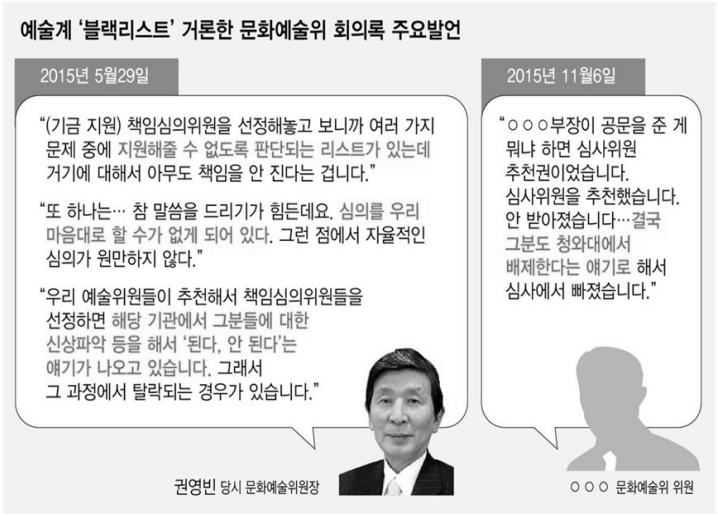
2021 다원예술 포럼
다시, 다원
2021년, 다원예술 지원사업의 탄생과 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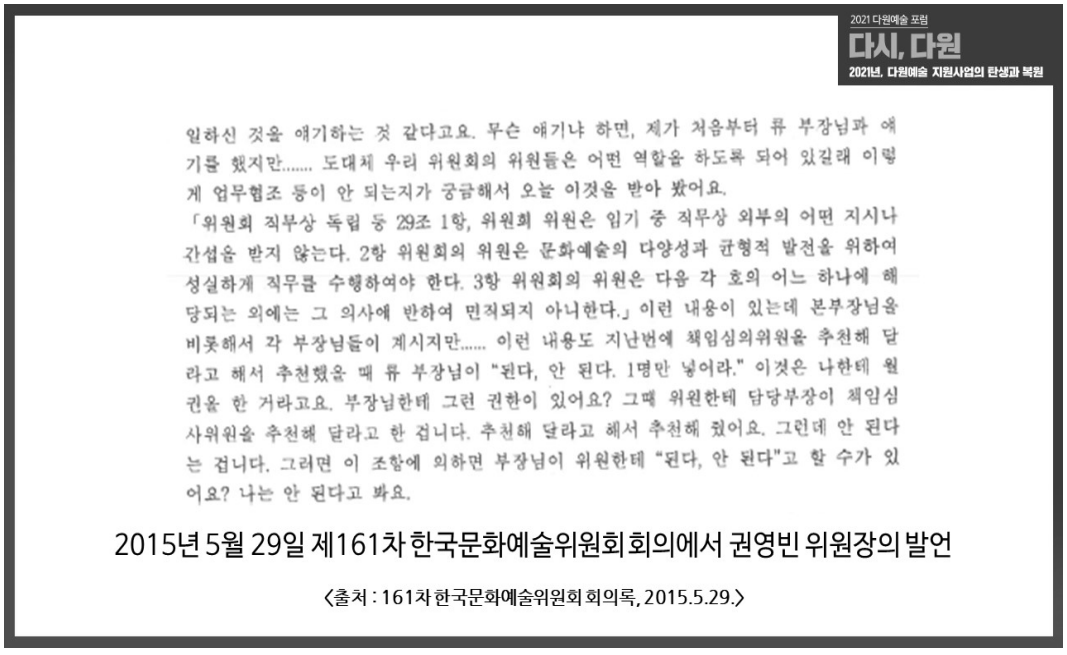
"리스트 전달은 공식기록이 남지 않는 방법을 썼다."

〈출처 : 블랙리스트 청와대 공식문서 아닌 메일 팩스로…기록 감추기, 한겨레, 노형석, 2016.〉
http://www.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769216.html

2021 다원예술 포럼
다시, 다원
2021년, 다원예술 지원사업의 탄생과 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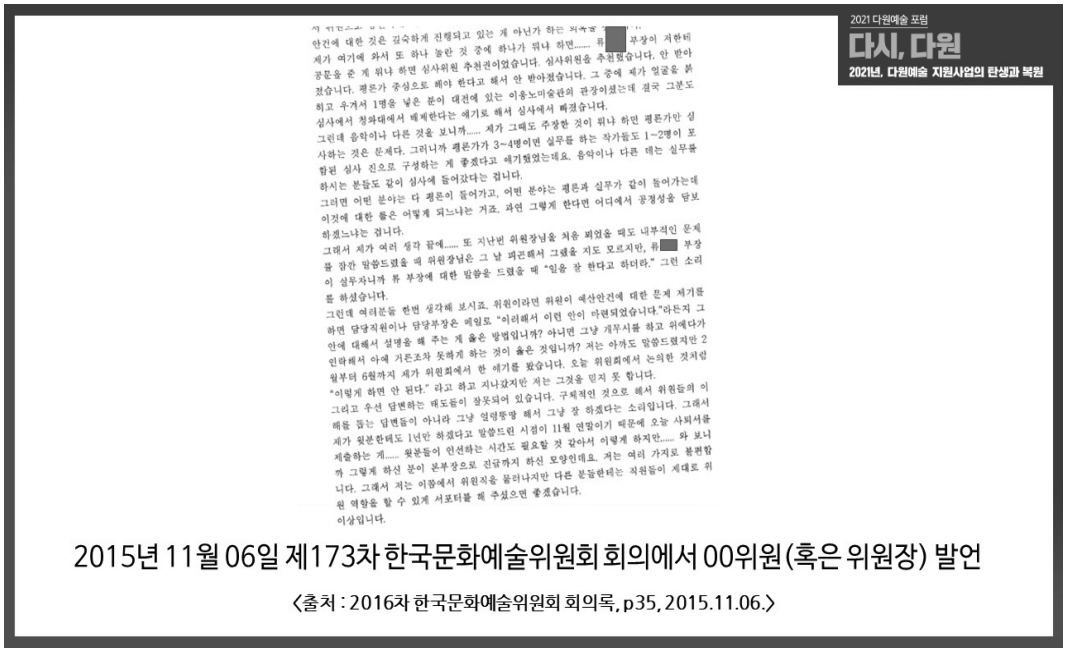
〈출처 : 정부 비판 예술가 '정치검열' 확인…"리스트 방대" 증언도, 한겨레, 손준현, 2016.〉
http://www.hani.co.kr/arti/culture/music/765033.html



일하신 것을 얘기하는 것 같다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제가 처음부터 류 부장님과 얘기를 했지만..... 도대체 우리 위원회의 위원들은 어떤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길래 이렇게 업무협조 등이 안 되는지가 궁금해서 오늘 이것을 받아 봤어요.
「위원회 직무상 독립 등 29조 1항, 위원회 위원은 임기 중 직무상 외부의 어떤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는다. 2항 위원회의 위원은 문화예술의 다양성과 균형적 발전을 위하여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항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외에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각 부장님들이 계시지만..... 이런 내용도 지난번에 책임심의위원을 추천해 달라고 해서 추천했을 때 류 부장님이 "된다, 안 된다. 1명만 넣어라." 이것은 나한테 월권을 한 거라고요. 부장님한테 그런 권한이 있어요? 그때 위원한테 담당부장이 책임심사위원을 추천해 달라고 한 겁니다. 추천해 달라고 해서 추천해 줬어요. 그런데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조합에 의하면 부장님이 위원한테 "된다, 안 된다"고 할 수가 있어요? 나는 안 된다고 봐요.

2015년 5월 29일 제161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회의에서 권영빈 위원장의 발언

〈출처 : 161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회의록, 2015.5.29.〉



안건에 대한 것은 깊숙하게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니가 하는 [redacted] 부장이 저한테 제가 여기에 와서 또 하나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류[redacted] 부장이 저한테 공문을 준 게 뭐냐 하면 심사위원 추천권이었습니다. 심사위원을 추천했습니다. 안 받아 졌습니다. 평론가 중심으로 해야 한다고 해서 안 받아졌습니다. 그 중에 제가 얼굴을 붉히고 우겨서 1명을 넣은 분이 대전에 있는 이응노미술관의 관장이셨는데 결국 그분도 심사에서 청와대에서 배제한다는 얘기로 해서 심사에서 빠졌습니다.
그런데 음악이나 다른 것을 보니까..... 제가 그때도 주장한 것이 뭐냐 하면 평론가만 심사하는 것은 문제다. 그러니까 평론가가 3~4명이면 실무를 하는 작가들도 1~2명이 포함된 심사 진으로 구성하는 게 좋겠다고 얘기했었는데요. 음악이나 다른 데는 실무를 하시는 분들도 같이 심사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분야는 다 평론이 들어가고, 어떤 분야는 평론과 실무가 같이 들어가는데 이것에 대한 룰은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과연 그렇게 한다면 어디에서 공정성을 담보하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생각 끝에..... 또 지난번 위원장님을 처음 뵈었을 때도 내부적인 문제를 잠깐 말씀드렸을 때 위원장님은 그 날 파곤해서 그랬을 지도 모르지만, 류[redacted] 부장이 실무자니까 류 부장에 대한 말씀을 드렸을 때 "일을 잘 한다고 하더라." 그런 소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위원이라면 위원이 예산안건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면 담당직원이나 담당부장은 메일로 "이러해서 이런 안이 마련되었습니다."라든지 그 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는 게 옳은 방법입니까? 아니면 그냥 개무시를 하고 위에다가 인락해서 아예 가론조차 못하게 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월부터 6월까지 제가 위원회에서 한 얘기를 봤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논의한 것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하고 지나갔지만 저는 그것을 믿지 못 합니다.
그리고 우선 답변하는 태도들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으로 해서 위원들의 이해를 돕는 답변들이 아니라 그냥 얼렁뚱땅 해서 그냥 잘 하겠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뭣본한테도 1년만 하겠다고 말씀드린 시점이 11월 연말이기 때문에 오늘 사퇴서를 제출하는 게..... 뭣본들이 인선하는 시간도 필요할 것 같아서 이렇게 하지만..... 와 보니까 그렇게 하신 분이 본부장으로 진급까지 하신 모양인데요. 저는 여러 가지로 불편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참에서 위원직을 물러나지만 다른 분들한테는 직원들이 제대로 위원 역할을 할 수 있게 서포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15년 11월 06일 제173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회의에서 00위원(혹은 위원장) 발언

〈출처 : 2016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회의록, p35, 2015.11.06.〉

2021 다원예술 포럼
다시, 다원
2021년, 다원예술 지원사업의 탄생과 복원

< 국회 제출 회의록 현황 >

·도종환의원 지적 : 초법에 비해 국회에 제출한 회의록은 내용이 많이 삭제되어 있음.

전체회의 (일시)	초법 속기록	국회제출 속기록	전체회의 (일시)	초법 속기록	국회제출 속기록
제193차 회의록(2016.08.26)	25p	15p	제173차 회의록(2015.11.06)	44p	30p
제192차 회의록(2016.07.29)	11p	8p	제169차 회의록(2015.9.24)	23p	17p
제189차 회의록(2016.06.24)	25p	18p	제167차 회의록(2015.8.28)	25p	22p
제186차 회의록(2016.05.19)	29p	16p	제165차 회의록(2015.7.31)	37p	31p
제185차 회의록(2016.04.29)	28p	25p	제162차 회의록(2015.6.25)	34p	22p
제183차 회의록(2016.03.25)	26p	15p	제161차 회의록(2015.5.29)	46p	31p
제182차 회의록(2016.02.26)	32p	27p	제160차 회의록(2015.4.24)	30p	29p
제179차 회의록(2016.01.29)	24p	20p	제159차 회의록(2015.3.27)	23p	23p
제177차 회의록(2015.12.28)	30p	22p	제157차 회의록(2015.2.26)	25p	23p
제175차 회의록(2015.12.04)	25p	17p	제156차 회의록(2015.1.30)	26p	25p

< 초법 속기록 중 논란발언 >

제161차 회의록 (2015.5.29)	**권영빈 전 예술위원장,** "우리 예술위원들이 추천해서 책임심의의원들을 선정하면 해당 기관에서 그분들에 대한 신상파악 등을 해서 "된다, 안 된다..." "지원해 줄 수 없도록 판단되는 **리스트가 있는데**..." "심의를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게 되어 있다."
제162차 회의록 (2015.6.25)	**예술위 예술인력개발원장,** "연극이 무용이나 음악, 전통예술에 비해서 지원선정 단체 수나 지원인원 수에서 차등이 나는 이유는 정부와의 협의과정에서 연극분야의 제외되는 단체들이 타 분야에 비해 많았던 탓으로..."
제173차 회의록 (2015.11.06)	**박병원 위원(경총회장),** "오늘 포스코 이사회 참석시, 재단법인 '미르'라는 것을 만들어서 포스코가 30억원을 내기로 했다고 하면서 "전경련을 통해 대기업들의 발목을 비틀어서 이미 450억~460억을 내는 것으로 해서 굴러가는 것 같다"

삭제되고 제출된 회의록 현황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작성자료〉

2021 다원예술 포럼
다시, 다원
2021년, 다원예술 지원사업의 탄생과 복원

1. 개 요

○ 2013년~2016년 기간중, 청와대 교문수석실(문체비서관, 담당행정관 등)은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사업(문학, 연극 등), 영화분야 지원사업, 출판분야 지원사업(우수도서 등) 등의 분야에서 과편향 인사 등의 폐지등 개속 요구하면서, 정부지원사업에서 배제되어야 할 특정인사들의 구체적인 명단을 수시로 지시(하달)하였음.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시(하달)된 특정인사들에 대해서 명단을 관리하며 지시(하단)된 몇 특정인사들이 신청한 해당 지원사업에서 배제될 수 있도록 해당 기관(예: 문화예술위원회 등)에 협조요청(전달)하였음.

※ 청와대 교문수석실도 지원배제 대상 명단을 정의대 내의 모 부서(정무수석실로 추정됨)에서 전달받아, 이를 문체부에 전달하는 창구역할만 수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음.

○ 전단 체제(유형)
- 청와대(문체비서관 등) → 문체부(장,차관, 국장급 등 윈계자)에게 배제대상 특정명단을 수시에 걸쳐 서달 · 하단(명태: 올려줘, 추신, 구두전달 등)
- 청와대의 요청에 따라 문체부 · 예술위 장에서 문화예술지원사업에 공모 후, 선정자 명단을 교문수석실에 추석(보고) → 교문수석실에서 정의대 내부 검토(협의)등 거친 후, 선정자 중 지위에게 명단을 문체부에 서달 · 전달(유선)

○ 관계자 인장: 〈붙임 1〉

2. 그간 경위

(1) 2013년 하반기~2014년 중반

○ 청와대(교문수석실)에서 시 · 도 문화재단의 과편향 · 일탈행위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여 시정을 요구(2013년 9월)

○ 청와대(교문수석실)에서 기 선정된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이 과편향*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2014년 하반기 심사부터 이러한 폐단이 시정되도록 요구(2014년 2월)

*▲민예총 산하 민족미학연구소의 학술지원 '민족미학' 발간 지원선정 ▲국가보안법 국정원 댓글녀 풍자 등 이념편향성 연극으로 물의를 빚은 극단 혜화동1번지, 서울프린지 네트워크 등

BL(블랙리스트) 관련 경위 1차 재판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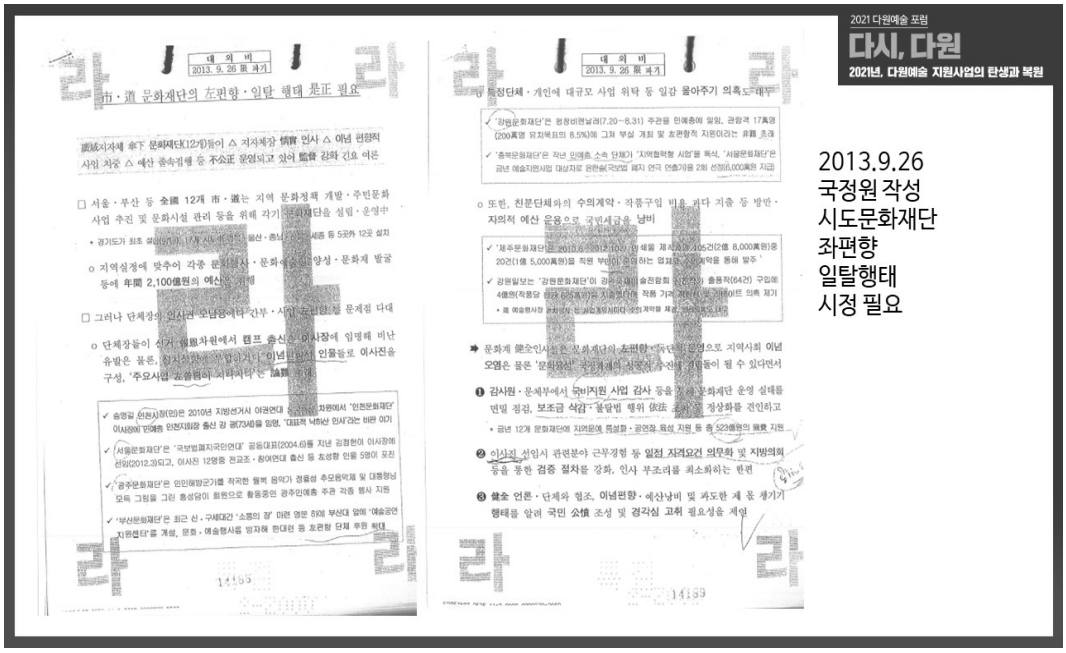
2013년 하반기~2014년 중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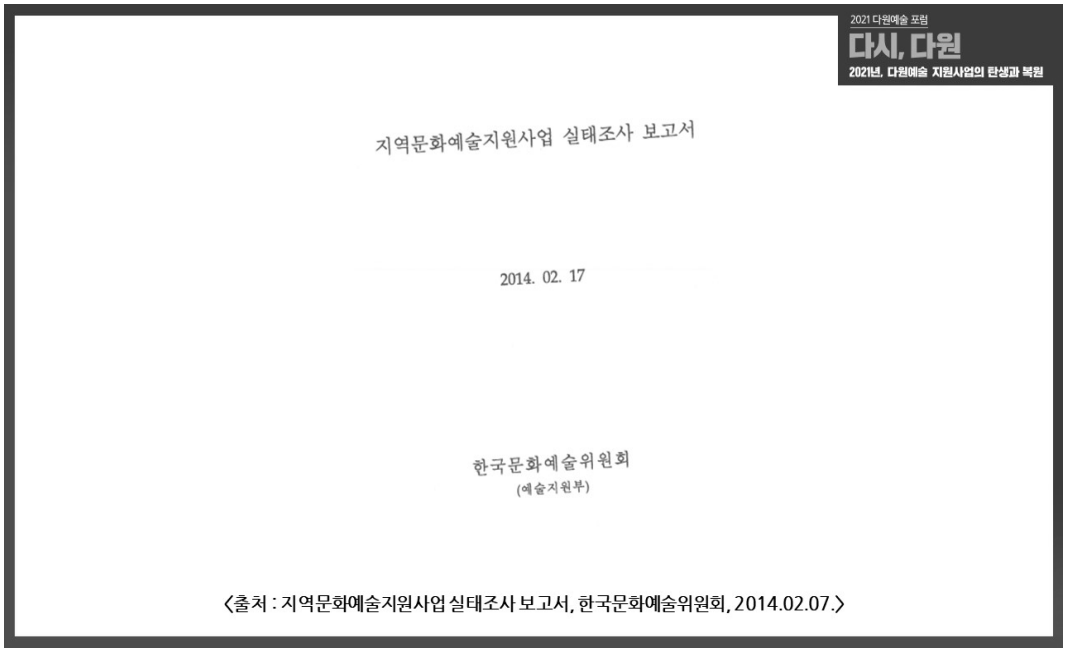
*** 청와대(교문수석실)에서 시.도.문화재단의 좌편향, 일탈행위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여 시정을 요구 (2013년 9월)

***청와대(교문수석실)에서 기 선정된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사업이 좌편향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2014년 하반기 심사부터 이러한 폐단이 시정되도록 요구(2014년 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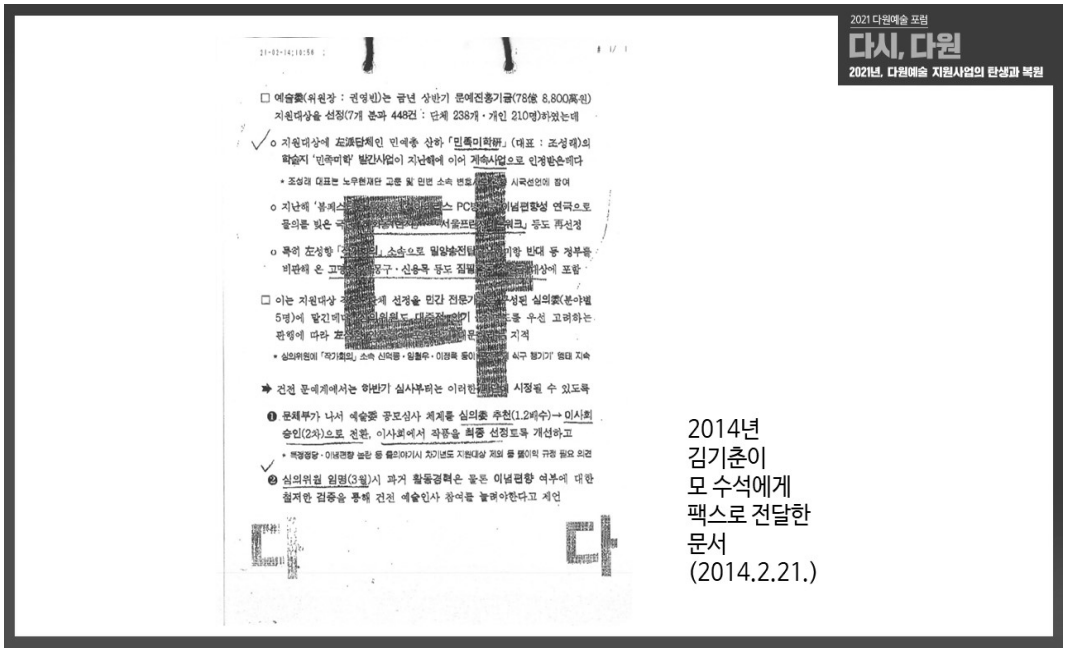
*** 민예총 산하 민족미학연구소의 민족미학 발간, 국가보안법 국정원 댓글녀 풍자 등 이념편향성 연극으로 물의를 빚은 극단 혜화동1번지, 서울프린지 네트워크 등

〈출처 : BL(블랙리스트) 관련 경위 1차 재판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출처 :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 실태조사 보고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4.02.07.〉



□ 예술위(위원장 : 권영빈)는 금년 상반기 문예진흥기금(78억 8,800만원) 지원대상을 선정(7개 분과 448건 : 단체 238개 · 개인 210명)하였는데

✓ ○ 지원대상에 左派단체인 민예총 산하 「민족미학분」(대표 : 조성래)의 학술지 '민족미학' 발간사업이 지난해에 이어 계속사업으로 인정받은데다

* 조성래 대표는 노무현재단 고문 및 민변 소속 변호[redacted] 시국선언의 참여

○ 지난해 '봄피스[redacted]스 PC[redacted]이념편향성 연극으로 물의를 빚은 국[redacted]서울프린[redacted]워크」 등도 再선정

○ 특히 左성향 「[redacted], 소속으로 밀알놀전[redacted]미향 반대 등 정부를 비판해 온 고[redacted]공구 · 신용목 등도 집필[redacted]대상에 포함

□ 이는 지원대상 [redacted]에 선정을 민간 전문가[redacted]성된 심의委(분야별 5명)에 맡긴 비[redacted]원의 [redacted]를 우선 고려하는 판정에 따라 효[redacted]지적

* 심의위원에 「작가회의」 소속 신덕룡 · 임철우 · 이경록 등이[redacted]구 참가기 원태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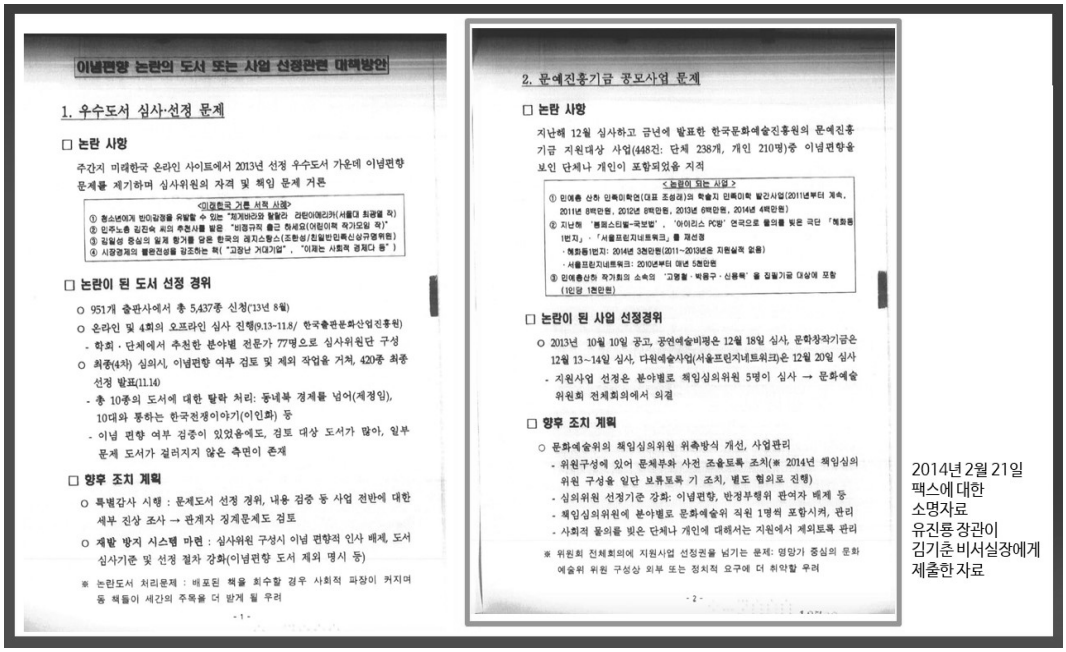
➡ 건전 문예계에서는 하반기 심사부터는 이러한[redacted]시정될 수 있도록

❶ 문체부가 나서 예술委 공모심사 체제를 심의委 추천(1.2배수)→ 미사회 승인(2차)으로 전환, 이사회에서 작품을 최종 선정토록 개선하고

* 특정경향 · 이념편향 심판 등 들어가기시 차기년도 지원대상 제외 등 별이익 규정 필요 의견

✓ ❷ 심의위원 원형(3월)시 과거 활동경력은 물론 이념편향 여부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 건전 예술인사 참여를 늘려야한다고 제언

2014년
김기춘이
모 수석에게
팩스로 전달한
문서
(2014.2.21.)



이념편향 논란의 도서 또는 사업 선정관련 대책방안

1. 우수도서 심사·선정 문제

□ 논란 사항

주간지 미래한국 온라인 사이트에서 2013년 선정 우수도서 가운데 이념편향 문제를 제기하며 심사위원의 자격 및 책임 문제 거론

<이념편향 거론 서적 사례>
① 청소년에게 반미감정을 유발할 수 있는 "체게바라와 할렐라 라틴아메리카(서울대 최광렬 외)
② 민주노총 김진숙 씨의 추천사를 받은 "비정규직 좋은 천세요(여림이학 작가모임 외)"
③ 김일성 중심의 일제 항거를 담은 한국의 레지스탕스(조한성/친일반민족진상규명위원)
④ 시장경제의 불합리성을 강조하는 책("고장난 거대기업", "이제는 사회적 경제다 등")

□ 논란이 된 도서 선정 경위

○ 951개 출판사에서 총 5,437종 신청('13년 8월)
○ 온라인 및 4회의 오프라인 심사 진행(9.13~11.8/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 학회 · 단체에서 추천한 분야별 전문가 77명으로 심사위원단 구성
○ 최종(4차) 심의시, 이념편향 여부 검토 및 제외 작업을 거쳐, 420종 최종 선정 발표(11.14)
- 총 10종의 도서에 대한 탈락 처리: 동네북 경제를 넘어(재정임), 10대와 통하는 한국전쟁이야기(이인화) 등
- 이념 편향 여부 검증이 있었음에도, 검토 대상 도서가 많아, 일부 문제 도서가 걸러지지 않은 측면이 존재

□ 향후 조치 계획

○ 특별감사 시행 : 문제도서 선정 경위, 내용 검증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세부 진상 조사 → 관계자 징계문제도 검토
○ 재발 방지 시스템 마련 : 심사위원 구성시 이념 편향적 인사 배제, 도서 심사기준 및 선정 절차 강화(이념편향 도서 제외 명시 등)

※ 논란도서 처리문제 : 배포된 책을 회수할 경우 사회적 파장이 커지며 동 책들이 세간의 주목을 더 받게 될 우려

- 1 -

2.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문제

□ 논란 사항

지난해 12월 심사하고 금년에 발표한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의 문예진흥기금 지원대상 사업(448건: 단체 238개, 개인 210명)중 이념편향을 보인 단체나 개인이 포함되었을 지적

<논점이 되는 사업 >
① 민예총 산하 민족미학연(대표 조성래)의 학술지 민족미학 발간사업(2011년부터 계속, 2011년 8백만원, 2012년 8백만원, 2013년 8백만원, 2014년 4백만원)
② 지난해 '봄피스틸릭-국보법', '아이리스 PC방' 연극으로 물의를 빚은 극단 「책과통」(1번지, · 「서울프린지네트워크」를 재선정
- 책과통(1번지: 2014년 3천만원(2011~2013년은 지원실적 없음)
- 서울프린지네트워크: 2010년부터 매년 5천만원
③ 민예총산하 작가회의 소속의 '고정희 · 박종국 · 신용목' 을 집필기금 대상에 포함 (1인당 1천만원)

□ 논란이 된 사업 선정경위

○ 2013년 10월 10일 공고, 공연예술비평은 12월 18일 심사, 문학창작기금은 12월 13~14일 심사, 다원예술사업(서울프린지네트워크)은 12월 20일 심사
- 지원사업 선정은 분야별로 책임심의위원 5명이 심사 → 문화예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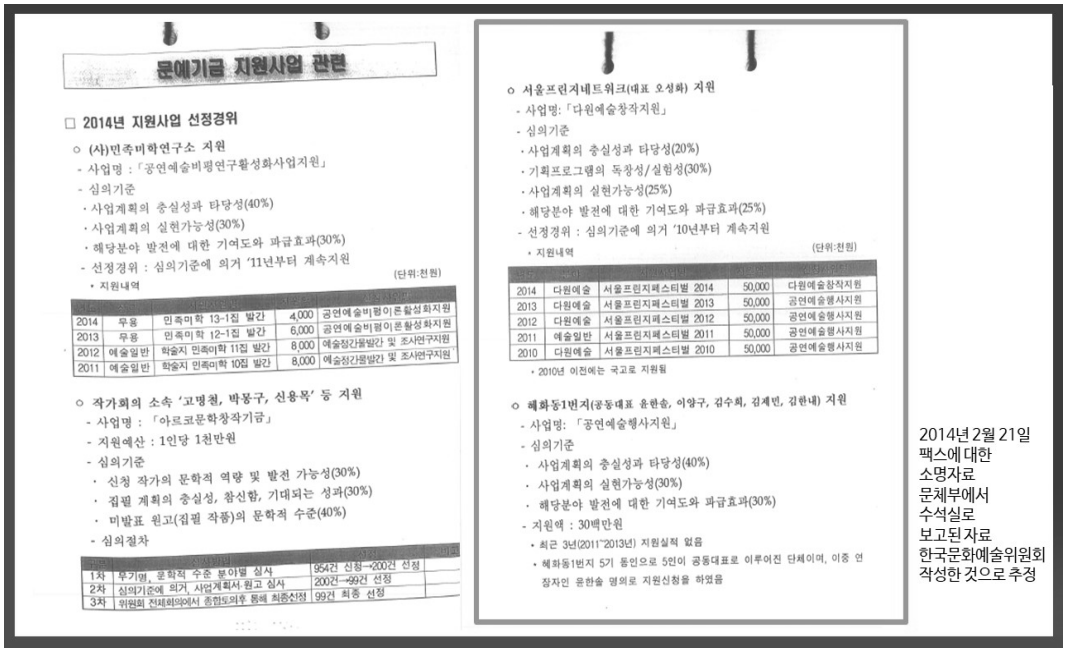
□ 향후 조치 계획

○ 문화예술위의 책임심의위원 위촉방식 개선, 사업관리
- 위원구성에 있어 문체부와 사전 조율토록 조치(※ 2014년 책임심의위원 구성을 일단 보류토록 기 조치, 별도 협의로 진행)
- 심의위원 선정기준 강화: 이념편향, 반정부행위 관여자 배제 등
- 책임심의위원에 분야별로 문화예술위 직원 1명씩 포함시켜, 관리
- 사회적 물의를 빚은 단체나 개인에 대해서는 지원에서 제외토록 관리

※ 위원회 전체회의에 지원사업 선정권을 넘기는 문제: 명망기 중심의 문화예술위 위원 구성상 외부 또는 정치적 요구에 더 취약할 우려

- 2 -

2014년 2월 21일
팩스에 대한
소명자료
유진룡 장관이
김기춘 비서실장에게
제출한 자료



문예기금 지원사업 관련

□ 2014년 지원사업 선정경위

○ (사)민족미학연구소 지원
- 사업명 : 「공연예술비평연구활성화사업지원」
- 심의기준
  · 사업계획의 충실성과 타당성(40%)
  ·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30%)
  · 해당분야 발전에 대한 기여도와 파급효과(30%)
- 선정경위 : 심의기준에 의거 '11년부터 계속지원

(단위:천원)

· 지원내역

2014	무용	민족미학 13-1집 발간	4,000	공연예술비평이론활성화지원
2013	무용	민족미학 12-1집 발간	6,000	공연예술비평이론활성화지원
2012	예술일반	학술지 민족미학 11집 발간	8,000	예술정간물발간 및 조사연구지원
2011	예술일반	학술지 민족미학 10집 발간	8,000	예술정간물발간 및 조사연구지원

○ 작가회의 소속 '고명철, 박몽구, 신용목' 등 지원
- 사업명 : 「아르코문학창작기금」
- 지원예산 : 1인당 1천만원
- 심의기준
  · 신청 작가의 문학적 역량 및 발전 가능성(30%)
  · 집필 계획의 충실성, 참신함, 기대되는 성과(30%)
  · 미발표 원고(집필 작품)의 문학적 수준(40%)
- 심의절차

1차	투기명, 문학적 수준 분야별 심사	954건 신청→200건 선정
2차	심의기준에 의거, 사업계획서 원고 심사	200건→99건 선정
3차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종합토의후 투표 최종선정	99건 최종 선정

○ 서울프린지네트워크(대표 오성화) 지원
- 사업명: 「다원예술창작지원」
- 심의기준
  · 사업계획의 충실성과 타당성(20%)
  · 기획프로그램의 독창성/실험성(30%)
  ·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25%)
  · 해당분야 발전에 대한 기여도와 파급효과(25%)
- 선정경위 : 심의기준에 의거 '10년부터 계속지원

(단위: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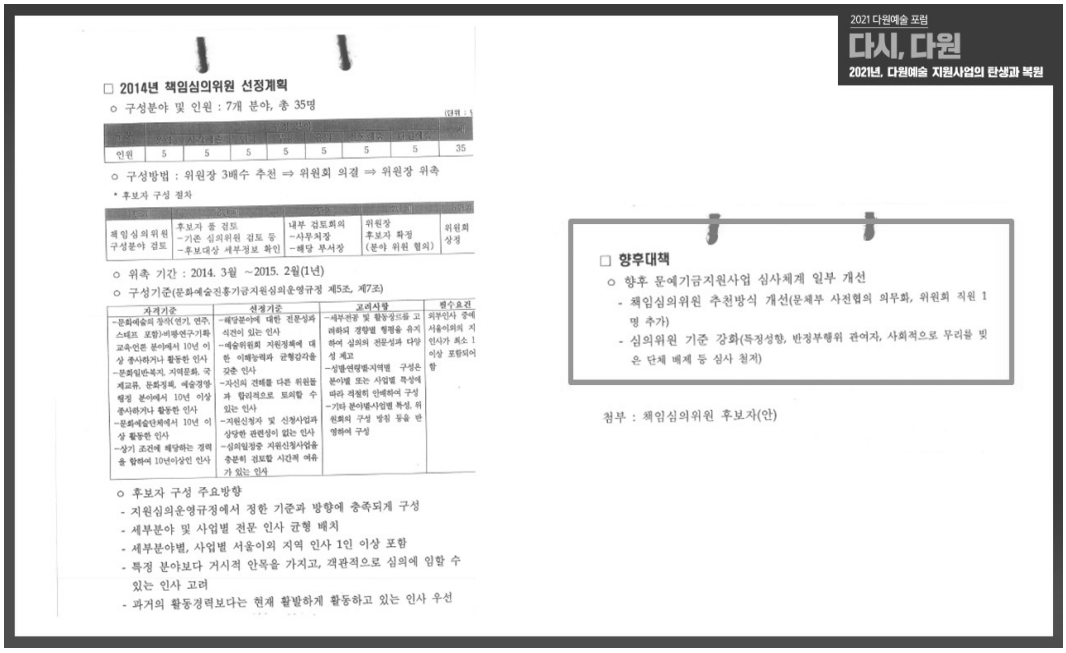
· 지원내역

2014	다원예술	서울프린지페스티벌 2014	50,000	다원예술창작지원
2013	다원예술	서울프린지페스티벌 2013	50,000	공연예술행사지원
2012	다원예술	서울프린지페스티벌 2012	50,000	공연예술행사지원
2011	예술일반	서울프린지페스티벌 2011	50,000	공연예술행사지원
2010	다원예술	서울프린지페스티벌 2010	50,000	공연예술행사지원

· 2010년 이전에는 국고로 지원됨

○ 혜화동1번지(공동대표 윤한솔, 이양구, 김수희, 김계빈, 김한내) 지원
- 사업명: 「공연예술행사지원」
- 심의기준
  · 사업계획의 충실성과 타당성(40%)
  ·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30%)
  · 해당분야 발전에 대한 기여도와 파급효과(30%)
- 지원액 : 30백만원
  · 최근 3년(2011~2013년) 지원실적 없음
  · 혜화동1번지 5기 동인으로 5인이 공동대표로 이루어진 단체이며, 이중 연장자인 윤한솔 명의로 지원신청을 하였음

2014년 2월 21일
팩스에 대한
소명자료
문체부에서
수석실로
보고된 자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작성한 것으로 추정



2021 다원예술 포럼
다시, 다원
2021년, 다원예술 지원사업의 탄생과 복원

□ 2014년 책임심의위원 선정계획

○ 구성분야 및 인원 : 7개 분야, 총 35명

(단위 : 명)

구분								
인원	5	5	5	5	5	5	5	35

○ 구성방법 : 위원장 3배수 추천 ⇒ 위원회 의결 ⇒ 위원장 위촉

· 후보자 구성 절차

책임심의위원 구성분야 검토	후보자 풀 검토 –기존 심의위원 검토 등 –후보대상 세부정보 확인	내부 검토회의 –사무처장 –해당 부서장	위원장 후보자 확정 (분야 위원 협의)	위원회 상정

○ 위촉 기간 : 2014. 3월 ~2015. 2월(1년)

○ 구성기준(문화예술진흥기금지원심의운영규정 제5조, 제7조)

자격기준	선정기준	고려사항	필수요건
–문화예술의 창작(연기, 연주, 스태프 포함)·비평·연구·학교육·언론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하거나 활동한 인사 –문화일반·복지, 지역문화, 국제교류, 문화정책, 예술경영·행정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하거나 활동한 인사 –문화예술단체에서 10년 이상 활동한 인사 –상기 조건에 해당하는 경력을 합하여 10년이상인 인사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식견이 있는 인사 –예술위원회 지원정책에 대한 이해능력과 균형감각을 갖춘 인사 –자신의 견해를 다른 위원들과 합리적으로 토의할 수 있는 인사 –지원신청자 및 신청사업과 상당한 관련성이 없는 인사 –심의일정중 지원신청사업을 충분히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있는 인사	–세부전공 및 활동장르를 고려하되 경향별 형평을 유지하여 심의의 전문성과 다양성 제고 –신별·연령별·지역별 구성은 분야별 또는 사업별 특성에 따라 차별적 안배하여 구성 –기타 분야별·사업별 특성, 위원회의 구성 방침 등을 반영하여 구성	외부인사 중에 서울이외의 지 인사가 최소 1 이상 포함되어 함

○ 후보자 구성 주요방향
- 지원심의운영규정에서 정한 기준과 방향에 충족되게 구성
- 세부분야 및 사업별 전문 인사 균형 배치
- 세부분야별, 사업별 서울이외의 지역 인사 1인 이상 포함
- 특정 분야보다 거시적 안목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심의에 임할 수 있는 인사 고려
- 과거의 활동경력보다는 현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인사 우선

□ 향후대책

○ 향후 문예기금지원사업 심사체계 일부 개선
- 책임심의위원 추천방식 개선(문체부 사전협의 의무화, 위원회 직원 1명 추가)
- 심의위원 기준 강화(특정성향, 반정부행위 관여자, 사회적으로 부리를 받은 단체 배제 등 심사 철저)

첨부 : 책임심의위원 후보자(안)

문체부,
문예진흥기금
비판단체
지원 차단책 추진

2014.3-4 진행된
민간단체보조금 TF
활동 결과를
같은 해 5월에
정리한 문서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

1. 중앙정부 보조금 차단

□ 민간단체보조금 TF 운영

○ (추진배경) 불법시위, 정권반대운동 등에 참여하는 단체들이 정부보조금을 받고 있으나, 실태파악 및 근본적 조치 미흡
-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 사업주체가 다양하고, 선정권한도 개별 부서에 위임되어 있어 총괄적 실태파악 어려움 발생

○ (TF구성) 정무수석 주관 하 주요부서* 참여, △민간경상보조금, △주요부처 공모사업현황 등을 확보해 전수조사 실시(4.4-5.23)
* 국민소통, 행정자치, 사회안전, 경제금융, 교육, 문화체육, 보건복지, 고용노동

※ 중앙부처가 직접 선정·교부하는 보조금 전체를 파악(기금 등 포함), 공공기관 및 지자체 지급사례는 미포함

□ 조치결과

○ (문제예산차단) 총 130건, 139억원의 문제예산 확인·조치 (첨부#1)
- [조치 미흡한 분야] 국가인권위는 부처에서 조치불가 입장 표명 언론사지원 단계축소(홍보기획), 민주노총지원 단계축소(고용노동)

〈문제예산 확인·조치 결과(2013~2014.4)〉

구 분	계	노동	공정위	교육	통일	농림	문화	복지	환경	안전위
문제예산(건)	130	20	3	1	3	2	93	4	1	3
금액(백만원)	13,924	3,640	120	150	55	102	8,093	1,743	28	23

* 2013~2014 회계연도에 연속하여 선정된 건은 각각 1건으로 집계

○ (DB운영으로 지속감시) 3천개의 문제단체(좌파단체, 불법시위참여 등)와 8천명의 좌편향인사(문제인물보노당지지 등) DB 구축, 지속 보완

○ (시스템구축) 공익법인에 대한 국세청 결산공시양식 개정('14.3), 수입·지출신고 의무화⇨ 국세청자료로 보조금분석 가능('16년이후)
* 종교시설 제외한 1만2천개 공익법인 중 1만개 단체 해당 (3억원 미만 자율공시)

□ 정부 공모사업 심사위원 배제

○ 자체 공모사업을 실시하는 주요부처*를 대상으로 심사위원을 파악, 총 26명의 좌편향인사 확인·조치 (첨부#2)
* (점검대상) 국무총리실, 안행부, 교육부, 문체부, 노동부, 복지부

〈심사위원 조치 현황(2013~2014.4)〉

구 분	계	고용노동	문화체육	보건복지
심사위원(명)	26	6	12	8

□ 정부위원회 위원 배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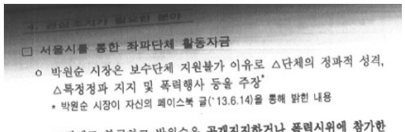
○ 각 부처별 463개 정부위원회* 위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총 70명의 좌편향인사가 66개 위원회에서 활동(중복제외)중임을 확인
* 대통령(16개), 국무총리(64개) 소속위원회를 제외한 중앙부처 위원회 전체 대상

⇨ 관계법령에 의해 운영되는 정부위원회 특성 상, 임기만료일이 도래하는 시점에 단계별로 해촉할 예정 (첨부#3)
- 비서관실별로 해당부처 핵심인사(차관, 기획조정실장 등)를 통해 통보

〈정부위원회 위원 확인 결과(2014.5)〉

구 분	계	기재	미래	교육	통일	법무	안행	문화	농림	산통
위원(명)	79 (중복활동자 제외한 총70명)	3	1	3	1	1	7	5	8	3
		복지	환경	노동	여성	국토	해양	방송통	보훈처	식약처
		7	9	12	2	11	1	1	2	2

○ 좌편향인사가 다수 포진한 정부위원회는 회의개최를 지양하고, 기능이 중복되거나 개최횟수가 저조한 위원회는 폐지 검토



□ 서울시를 통한 좌파단체 활동자금

○ 박원순 시장은 보수단체 지원불가 이유로 △단체의 정파적 성격, △특정정파 지지 및 폭력행사 등을 주장*
* 박원순 시장이 자신의 페이스북 글('13.6.14)을 통해 밝힌 내용

○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원순을 공개지지하거나 폭력시위에 참가한 좌파단체들에 대해서는 수십억원을 지원하는 상황(2011년-현재)
* 민주노총한국노총 (박원순지지·폭력시위주도) : 67억 3,490원
* 은평구 소재 진관사 (광우병 반정부시위·시국법회주도) : 30억 3,400원
* 강남서초환경운동연합 (국가보안법 폐지주장·낙선운동주도) : 1억 5,544원

⇨ 국회 국정감사, 서울시의회 행정감사를 통해 편향지원 실태 및 시장-단체대표간의 친분관계를 지속 부각

□ 조치가 필요한 부처

○ (문체부) 문화계 좌파인사들과 친분에 의한 유대감이 형성되어 문제단체 지원을 관행으로 인식, 간부공무원들의 개선의지 부족
⇨ 의지와 개혁역량을 갖춘 장차관 임명 후 주요부서 관리 강화. 산하기관은 구조조정을 통한 통폐합 검토 (33개 기관, 18개 위원회)
* Ex) 좌파 성향 〈영화진흥위원회〉 업무를 〈한국컨텐츠진흥원〉으로 대거 이관

○ (노동부) 민노총에 대한 관리 필요성 주장하나, 실효성 없는 상태
⇨ 노동단체의 불법적 행태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장차관 필요

○ (교육부) 내부의 적폐를 감추면서, 교육감·지자체 책임으로 전가
⇨ 교육감 업무권한을 명확히 하고, 대학으로의 순환보직제도 폐지

○ (인권위·권익위) 좌편향 직원 대거 근무하면서 BH지시도 불이행
⇨ 실무진들을 타부처로 순차적으로 이동시켜 분산조치 필요



2021 다원예술 포럼
다시, 다원
2021년, 다원예술 지원사업의 탄생과 복원

부처별 관심예산
조치현황

'아이공'이라는 단체명에
'주체'라는 뜻포함.
평등사회주장,
대안영상을 통한
사회운동전개

(사)대안영상문화발전소
아이공 ➔ 지원배제

2021 다원예술 포럼
다시, 다원
2021년, 다원예술 지원사업의 탄생과 복원

2014년 11월, 12월 그리고 2015년 1월

2021 다원예술 포럼
다시, 다원
2021년, 다원예술 지원사업의 탄생과 복원

(2) 수석 비서관 회의 자료('14.11.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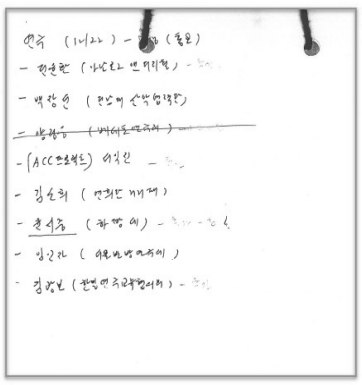
2014. 11. 21. 개최된 대통령비서실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는 2015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정기공모사업과 관련하여, 신청사업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하여 문제작품(작가)을 배제하겠다고 하고 있다.[55)]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정기공모사업 관리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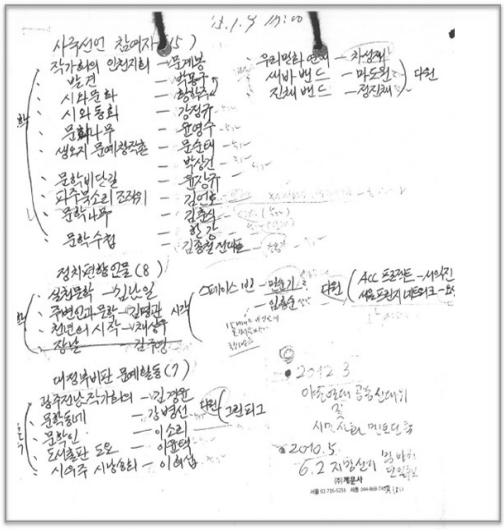
- '15년 예술위 정기공모 5개부문(문학, 미술, 공연, 복합, 국제교류) 18개 사업에 1,990건 452억 지원신청 접수('15.1월 신청결과 발표 예정)
  → 신청 사업에 대한 단계별 철저한 검증을 통해 문제작품(작가) 배제
  * 신청서 특이사항 검토(11월, 문체부)→문제 작품 배제(12월, 예술위 책임심의위원회)→심사결과 확인(12월, 문체부·예술위)→최종 검토 후 의결('15.1월, 예술위 전체회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정기공모사업 관리 강화
○ '15년 예술위 정기공모 5개부문(문학, 미술, 공연, 복합, 국제교류) 18개 사업에 1,990건 452억 지원신청 접수('15.1월 신청결과 발표예정)
⇨ 신청 사업에 대한 단계별 철저한 검증을 통해 문제작품(작가) 배제
* 신청서 특이사항 검토(11월, 문체부) → 문제 작품 배제(12월, 예술위 책임심의위원회) → 심사결과 확인(12월, 문체부·예술위) → 최종 검토 후 의결(15.1월, 예술위 전체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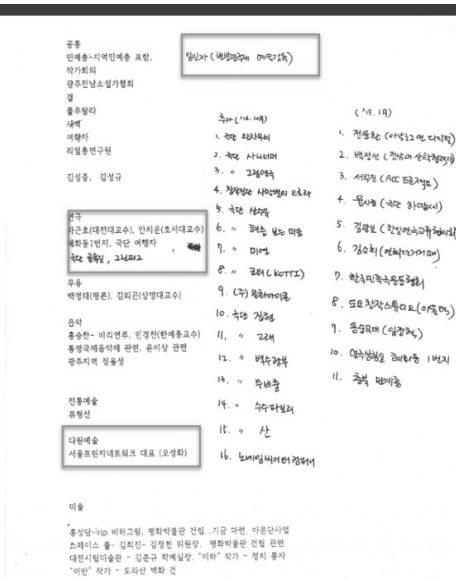
〈출처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 2-6, p485〉



수기로 작성한 블랙리스트 명단('15.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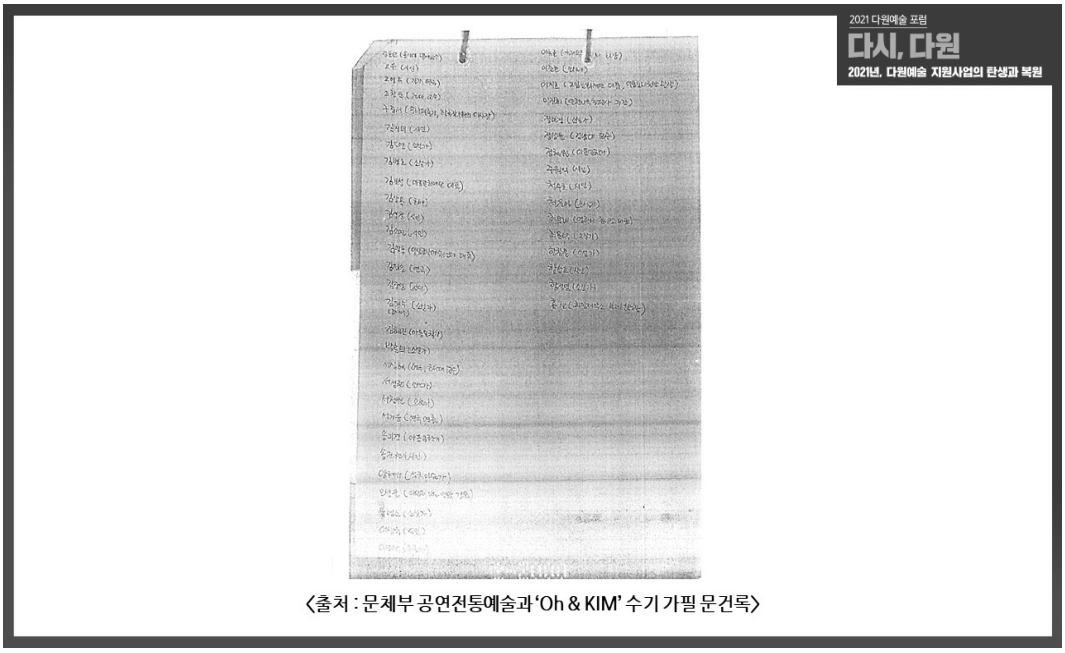


〈출처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 2-1-기관별, 487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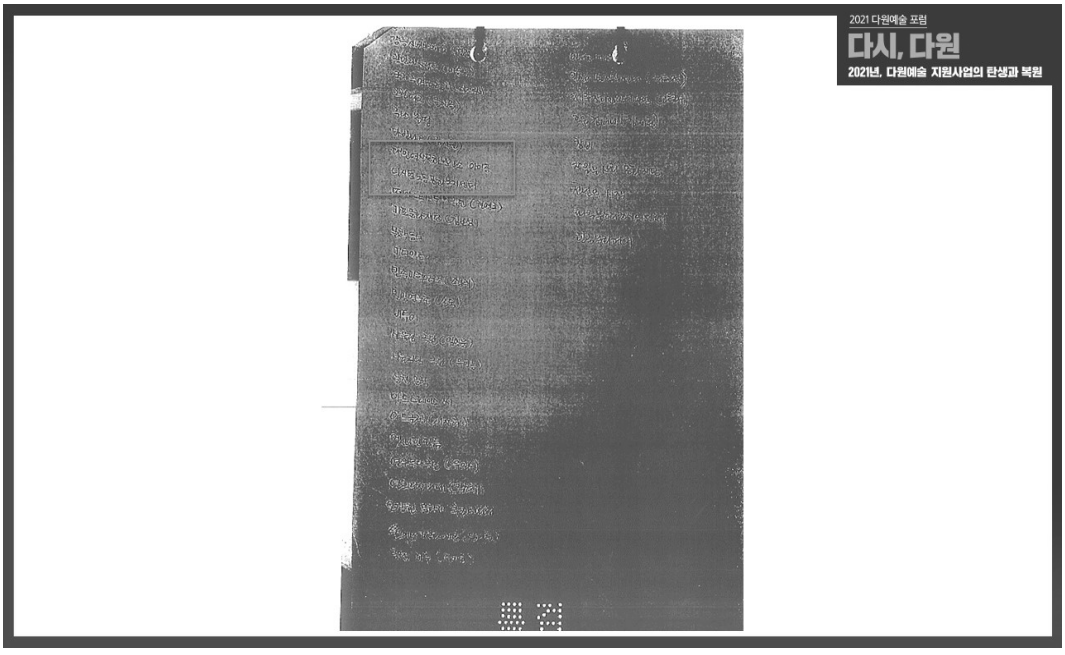


2021 다원예술 포럼
다시, 다원
2021년, 다원예술 지원사업의 탄생과 복원

〈출처 : 2017고합102 직권남용권리 행사 방해 등 재판 증거기록〉



〈출처 : 문체부 공연전통예술과 'Oh & KIM' 수기 가필 문건록〉



2021 다원예술 포럼
다시, 다원
2021년, 다원예술 지원사업의 탄생과 복원

2015년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신청현황

□ 총 신청건수 1,988건 중 특이사항 106건

1. 문학분야

신청	특이사항	방안
총 1,103건 - 아르코창작기금 959 - 우수문예지지원 99 - 문학행사지원 45	총 83건 - 아르코창작기금 76 - 우수문예지지원 5 - 문학행사지원 2	○창작기금 -1차심사(무기명심사) 통과자(약 200명이내) 대상으로 주활동자 위주 제외 ○우수문예지, 행사지원: 심사에서 제외

2. 시각예술분야

신청	특이사항	방안
총 157건 - 창작및전시공간지원 77 - 행사지원 42 - 비평연구 38	총 2건 - 창작및전시공간지원1 - 비평연구 1	선정된 모든 사업에 대해 세부전시내용 확인 (신청단계에서 최종전시계획이 나오지 않은 사업이 다수) →지원금 지급시, 반기/분기별 전시계획 확인 후 분할 지급 예정

· 세부내역

공모사업명	신청자(단체)명	신청사업명	방안
시각예술창작및전시공간지원	(사이트스페이스 을 (김희진)	2015-2016 아트스페이스 을 기획운영사업)	최근 대표 사임으로 지원가능
시각예술비평연구활성화지원	김종길	미술동인무형 창립30주년 기념 연구사업	심사시 제외

3. 공연예술분야

신청	특이사항	방안
공연예술비평연구활성화 3건	1건	심사시 제외

· 세부내역

공모사업명	신청자(단체)명	신청사업명	방안
공연예술비평연구활성화	서울연극평론가협회 (임인자)	세인국학교육연구 및 비평 프로젝트 '시대통감'	심사시 제외

2014년 12월 19일
장관 보고 문서
(김상*)

〈출처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 2-1-기관별, 486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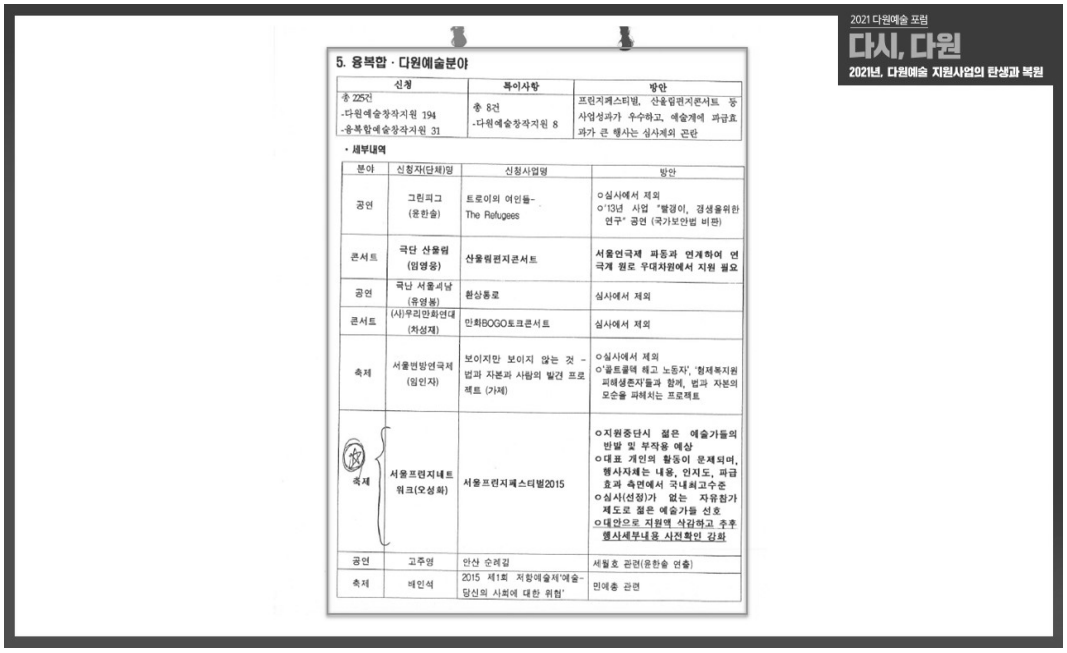
2021 다원예술 포럼
다시, 다원
2021년, 다원예술 지원사업의 탄생과 복원

4 국제교류분야

신청	특이사항	방안
총 456건 -민간국제예술교류지원 286 -국제교류증가기획프로젝트사업 25 -ARKO-PAMS 협력사업지원 7 -해외레지던스프로그램참가지원 64 -(기획형)해외레지던스프로그램참가지원 66 -노마디네이처스프로그램참가지원 12	총 12건 -민간국제예술교류지원 8 -해외레지던스프로그램참가지원 2 -(기획형)해외레지던스프로그램참가지원 2	국제적으로 계획되어 있는 행사는 심사제외 곤란(베세토연극제 등)

· 세부내역

공모사업명	분야	신청자(단체)명	신청사업명	방안
민간국제예술교류지원	시각예술	환경운동연합 (이유상)	일본 후쿠오카아시아미술관 <아시아 포토그라피 100인전)	심사시 제외
민간국제예술교류지원	연극	극단골목길 (이호열/박근형)	일본공연 <만주전선>	○ <만주전선>,<집을 떠나며>, <제2회 한일신진우수연출가 작품 초청> 모두 일본 타이니 앨리스 극장 초청작품(3월 공연), 모두 탈락시 반발 - 한국연극협회 선정, 올해 연극 비스트 7 선정작
		연극집단반 (남동진)	일본공연 <집을 떠나며>	- 박장렬 연출
		서울연극협회 (박장렬)	일본공연 <제2회 한일신진우수연출가작품 초청>	-서울연극협회 이름으로 신청했으나, 실제 작품은 극단 청년(백석원)의 작품
		베세토연극제 (양정웅)	제22회 베세토연극제	○96년 한국에 원로 들이 창설, 한·중·일 3국 교대로 개최 ○20여 동안 성공적으로 운영 중인 민간연극제 ○15년 서울개최 예정으로 지원 중단 시 국제적 불신 초래, 연극계 원로들의 반발 예상
		연희단거리패 (김소희)	물고기의 귀향 일본 가가와현 공연	심사시 제외
		제12인연극스튜디오(성기웅)	모험원/신모험원	심사시 제외
	음악	(사)광주인예총 (윤단석)	2015광주아시아국제음악제	심사시 제외
해외레지던스프로그램참가지원	다원	윤한솔(연출가)	일본 교토아트센터 아티스트 인 레지던스 참가	○국단 그린피그 대표, 해화동 1번지 5기 동인 ○국가보안법 비판
(기획형)해외레지던스프로그램참가지원	문학	최정근 (극작가)	독일 베를린 자유대학교 협력레지던스	심사시 제외
		김정숙(김이정) (소설가)	쿠바 호세마르티문화원 협력레지던스	심사시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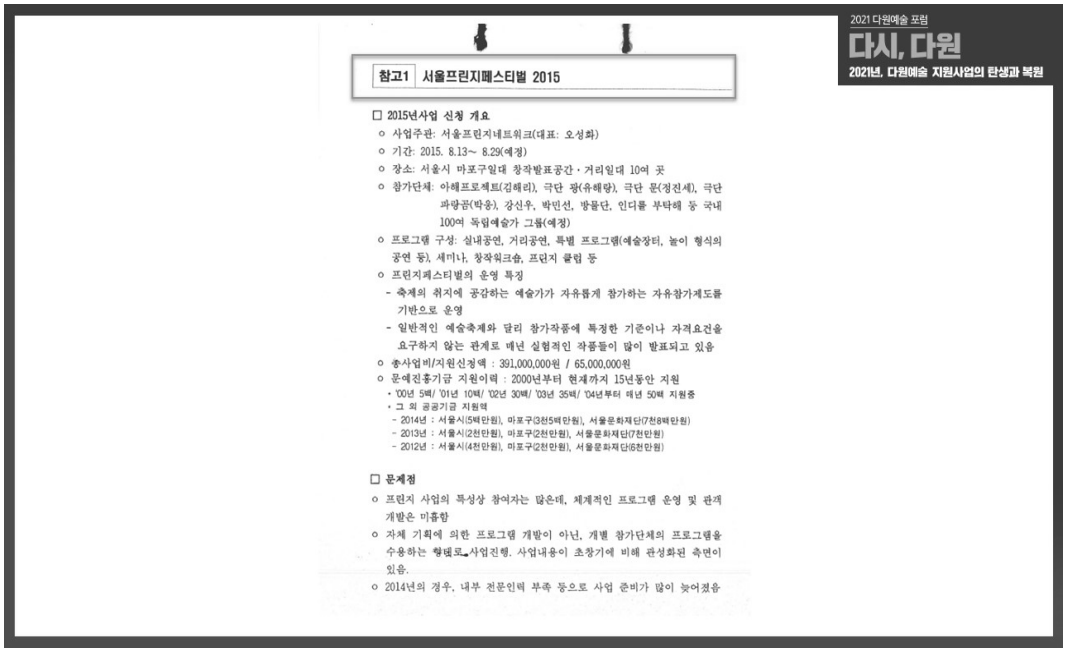


5. 융복합 · 다원예술분야

신청	특이사항	방안
총 225건 -다원예술창작지원 194 -융복합예술창작지원 31	총 8건 -다원예술창작지원 8	프린지페스티벌, 산울림뮌지콘서트 등 사업성과가 우수하고, 예술계에 파급효과가 큰 행사는 심사제외 관란

· 세부내역

분야	신청자(단체)명	신청사업명	방안
공연	그린피그 (윤한솔)	트로이의 여인들- The Refugees	○심사에서 제외 ○'13년 사업 "불경이, 경성을위한 연구" 공연 (국가보안법 비판)
콘서트	극단 산울림 (임영웅)	산울림뮌지콘서트	서울연극제 파동과 연계하여 연극계 원로 우대차원에서 지원 필요
공연	극단 서울씨남 (윤영봉)	환상동로	심사에서 제외
콘서트	(사)무의만화연대 (차성재)	만화BOGO토크콘서트	심사에서 제외
축제	서울변방연극제 (임인자)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 – 법과 자본과 사람의 발견 프로젝트 (가제)	○심사에서 제외 ○'골트클럽 해고 노동자', '협제복지원 피해생존자들과 함께, 법과 자본의 모순을 파헤치는 프로젝트
축제	서울프린지네트워크(오성화)	서울프린지페스티벌2015	○지원중단시 젊은 예술가들의 반발 및 부작용 예상 ○대표 개인의 활동이 문제되어, 행사자체는 내용, 인지도, 파급효과 측면에서 국내최고수준 ○심사(선정)가 없는 자유참가 제도로 젊은 예술가들 선호 ○대안으로 지원액 삭감하고 추후 행사세부내용 사전확인 강화
공연	고주영	안산 순례길	세월호 관련(윤한솔 연출)
축제	배인석	2015 제1회 저항예술제'예술-당신의 사회에 대한 위협'	민예총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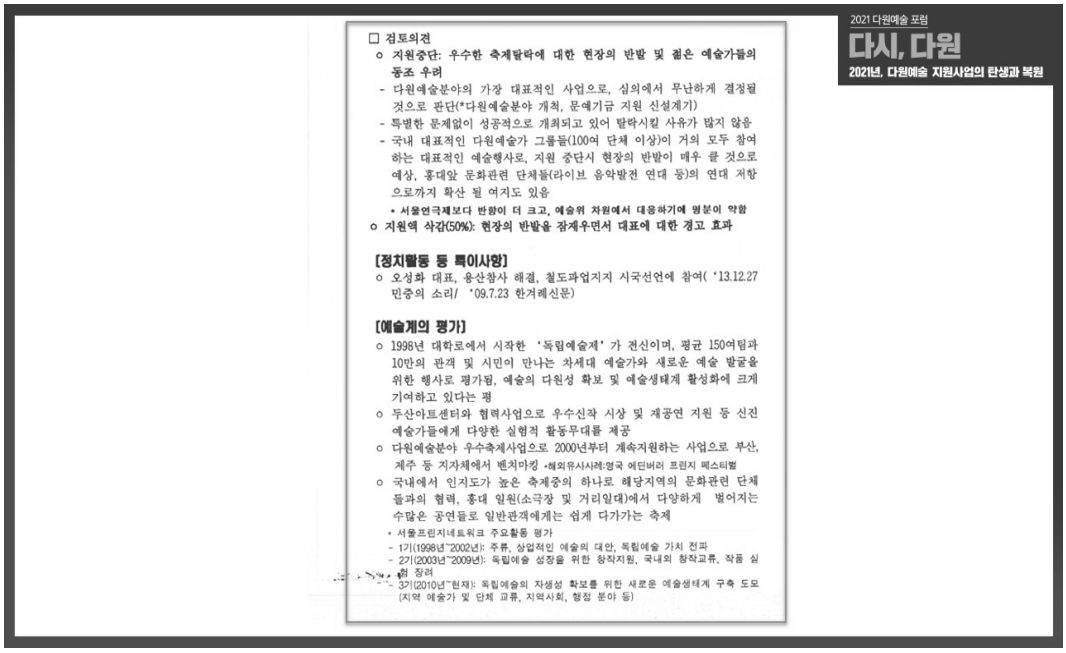
참고1 서울프린지페스티벌 2015

□ 2015년사업 신청 개요

- 사업주관: 서울프린지네트워크(대표: 오성화)
- 기간: 2015. 8.13~ 8.29(예정)
- 장소: 서울시 마포구일대 창작발표공간 · 거리일대 10여 곳
- 참가단체: 아해프로젝트(김해리), 극단 광(유해랑), 극단 문(정진세), 극단 파랑곰(박용), 강신우, 박민선, 방물단, 인디를 부탁해 등 국내 100여 독립예술가 그룹(예정)
- 프로그램 구성: 실내공연, 거리공연, 특별 프로그램(예술장터, 놀이 형식의 공연 등), 세미나, 창작워크숍, 프린지 클럽 등
- 프린지페스티벌의 운영 특징
  - 축제의 취지에 공감하는 예술가가 자유롭게 참가하는 자유참가제도를 기반으로 운영
  - 일반적인 예술축제와 달리 참가작품에 특정한 기준이나 자격요건을 요구하지 않는 관계로 매년 실험적인 작품들이 많이 발표되고 있음
- 총사업비/지원신청액 : 391,000,000원 / 65,000,000원
- 문예진흥기금 지원이력 : 2000년부터 현재까지 15년동안 지원
  - '00년 5백/ '01년 10백/ '02년 30백/ '03년 35백/ '04년부터 매년 50백 지원중
  - 그 외 공공기금 지원액
    - 2014년 : 서울시(5백만원), 마포구(3천5백만원), 서울문화재단(7천8백만원)
    - 2013년 : 서울시(2천만원), 마포구(2천만원), 서울문화재단(7천만원)
    - 2012년 : 서울시(4천만원), 마포구(2천만원), 서울문화재단(6천만원)

□ 문제점

- 프린지 사업의 특성상 참여자는 많은데, 체계적인 프로그램 운영 및 관객 개발은 미흡함
- 자체 기획에 의한 프로그램 개발이 아닌, 개별 참가단체의 프로그램을 수용하는 형태로 사업진행. 사업내용이 초창기에 비해 관성화된 측면이 있음.
- 2014년의 경우, 내부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사업 준비가 많이 늦어졌음



□ 검토의견

○ **지원중단: 우수한 축제탈락에 대한 현장의 반발 및 젊은 예술가들의 동조 우려**
- 다원예술분야의 가장 대표적인 사업으로, 심의에서 무난하게 결정될 것으로 판단(*다원예술분야 개척, 문예기금 지원 신설계기)
- 특별한 문제없이 성공적으로 개최되고 있어 탈락시킬 사유가 많지 않음
- 국내 대표적인 다원예술가 그룹들(100여 단체 이상)이 거의 모두 참여하는 대표적인 예술행사로, 지원 중단시 현장의 반발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 홍대앞 문화관련 단체들(라이브 음악발전 연대 등)의 연대 저항으로까지 확산 될 여지도 있음
  * **서울연극제보다 반향이 더 크고, 예술위 차원에서 대응하기에 명분이 약함**

○ **지원액 삭감(50%): 현장의 반발을 잠재우면서 대표에 대한 경고 효과**

[정치활동 등 특이사항]

○ 오성화 대표, 용산참사 해결, 철도파업지지 시국선언에 참여('13.12.27 민중의 소리/ '09.7.23 한겨레신문)

[예술계의 평가]

○ 1998년 대학로에서 시작한 '독립예술제'가 전신이며, 평균 150여팀과 10만의 관객 및 시민이 만나는 차세대 예술가와 새로운 예술 발굴을 위한 행사로 평가됨, 예술의 다원성 확보 및 예술생태계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평

○ 두산아트센터와 협력사업으로 우수신작 시상 및 제공연 지원 등 신진 예술가들에게 다양한 실험적 활동무대를 제공

○ 다원예술분야 우수축제사업으로 2000년부터 계속지원하는 사업으로 부산, 제주 등 지자체에서 벤치마킹 •해외유사사례:영국 에딘버러 프린지 페스티벌

○ 국내에서 인지도가 높은 축제중의 하나로 해당지역의 문화관련 단체들과의 협력, 홍대 일원(소극장 및 거리일대)에서 다양하게 벌어지는 수많은 공연들로 일반관객에게는 쉽게 다가가는 축제

• 서울프린지네트워크 주요활동 평가
- 1기(1998년~2002년): 주류, 상업적인 예술의 대안, 독립예술 가치 전파
- 2기(2003년~2009년): 독립예술 성장을 위한 창작지원, 국내외 창작교류, 작품 실험 장려
- 3기(2010년~현재): 독립예술의 자생성 확보를 위한 새로운 예술생태계 구축 도모 (지역 예술가 및 단체 교류, 지역사회, 협업 분야 등)



2015년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추진상황

□ 심사 현황 '15.1.15(월)

분야	진행상황	검토	발표시기
무용, 음악, 전통예술	심사완료	특이사항 없음	'15.1월말
시각예술	심사완료	심사완료후 1건 발생(민중기)	'15.1월말
소외계층문화순회	심사완료	심사완료후 1건 발생(윤시중)	'15.1월말
다원예술	심사진행중	특이사항 총 11건 전부 재의예정 -프린지페스티벌 등	'15.1월말
연극분야	심사예정(1월3주)	특이사항 총 12건 전부 재의예정	'15.1월말
문학분야	공간,국제지원-완료	**별도방안 모색 중(총 9건)**	
	창작기금-심사중	-창작기금, 투기성 심사시 일부제외 예상	별도방안 마련
	문예지,행사지원-미정	-심사완료분야 4건추가 발생	

□ 특이사항 현황

○ 1차: 연극 8건

성명	단체	검토사항
양정웅 (연극)	베세토연극제	○B명단에 없으나 K명단에 존재 ○B태형사 참석 등 양호판단, 재의조치(B와 협의완료)
윤시중 (연극)	하땅세	○B명단에 없으나 K명단에 존재 ○심사완료(소외계층)년 분야 1건 발생, 심사전(연극) 1건 해당 ○2012문예인후보지지 활동 등으로 심사제외조치 예정

○ 2차 : 문학, 다원, 시각예술분야 총 29명

성명	단체	검토사항
김주영 (문학)	장남 (복지재단이사장)	○B명단에 없으나 K명단에 존재 ○문학중간지원 선정완료된 상황 ○B태형사 참석 등 양호판단, 재의조치(B와 협의완료) - 2003노무현대통령당선자 취임사 준비위원회 위원 등
민준기 (시각예술)	스페이스빔	○B명단에 없으나 K명단에 존재 ○시각예술 공간지원 선정완료된 상황 ○2012아련연대 공동선대위, 시민사회 연보단 등 ○B 판단유보, 적의판단 필요
김언호 (문학)	파주북소리조직위	○B명단에 없으나 K명단에 존재 ○문학국제행사지원 선정완료된 상태 ○노무현지지, 시국선언 등 ○B, 부정적 •파주북소리축제:출판민예산업과 후원명칭사용 등 행정지원용
김훈식 한강 (문학)	개인 신청	○문학공간로뜨지원사업에 선정완료된 상태 ○문학분야 검토적으로 별도 조치방안 강구 필요 -사업중단, 상반기 연기방안 등

〈출처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 2-1-기관별, 486p〉

2021 다원예술 포럼
다시, 다원
2021년, 다원예술 지원사업의 탄생과 복원

'15. 1. 27(화) 17:40 한상진교수

2015년 문예진흥기금 지원심의 추진상황보고

'15.1.27(화)

□ 지원심의 현황

분야		지원심의 현황(문제사업 건수)
심의진행중	문학	○문제사업 - 문학창작기금지원사업 (76건) 문예지지원사업 (11건) - 문학행사및연구지원 (6건) 민간국제교류지원(5건)
	연극	○비평연구활성화지원 (1건) 민간국제교류지원(연극) (10건)
심의완료	시각예술	○문제사업 : 시각예술전시및발표공간운영지원 (1건)
	음악	○문제사업 : 공연예술행사지원음악분야 (1건)
	무용	○문제사업 없음
	전통	○문제사업 없음
	다원예술	○문제사업 없음

□ 향후계획

○ 1차 확정의결 후 발표

: '15.1.30(금) 위원회 회의에서 확정 및 부분발표예정('15.2.2예정)

- 1안 : 무용, 전통, 다원, 시각예술, 음악분야(심의완료된 총 5개 분야) 확정
- 2안 : 무용, 전통, 다원분야, 시각예술(창작및전시공간지원사업 제외), 음악분야(공연예술행사지원사업 제외)

□ 참고사항

○(시각예술)시각예술전시및발표공간운영지원 검토사업 1건 (스페이스빔)
- 심의 후 재검토 요청이 있으나, 위원(2인)의 부정의견 피력
- 평가결과 : '14년 B등급 (36개중 8위)

○(음악)공연공연예술행사지원 검토사업 1건 (윤이상국제음악콩쿠르)
- 심의 후 재검토 요청이 있으나, 위원(1인)의 부정의견 피력
- 평가결과: '14년 B등급(14년 A 3단계, B 8단계(상위 25% 내)/전체 44 단계)
- 윤이상 관련 '15년 지원신청 2건 중 1건 탈락하고, 동 사업도 이전연도 대비 50% 감축 결정 (1억원 수준→5천만원)
- 통영지역 이군협 의원(새누리당) 계속 관심 사업으로 반드시 선정 요구
<이군현의원 관심사항>
V① 통영국제음악제(통영국제음악재단) : '15년 문예기금지원 미신청
V② 윤이상국제음악콩쿠르(통영국제음악재단) : 50%감축 선정
V③ 국제윤이상작곡상(윤이상평화재단) : 문예기금지원, 탈락
○ 문학, 연극분야 : 2월중 위촉할만 자구 예정

2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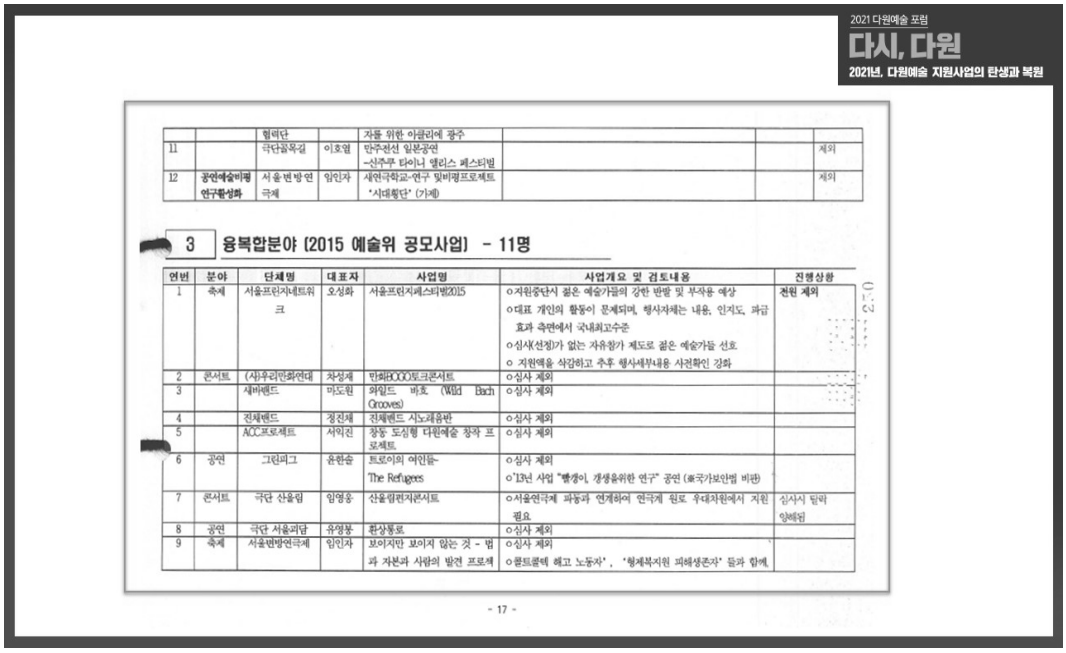
〈출처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 2-1-기관별, 489p〉

14년 (선 정 / 신 청): 33/67 - 5명	최창근(극작가), 김정숙(소설가, 김이정)	리조직위원회 김언호), 제8회한국인도문학예술인국제학술문화제 (인도를방각하는예술인모임(김준식), 리치작가센터레지던스(한강)	-김언호, 김준식

2 연극분야 (2015예술위 공모사업) - 12명

연번	지원사업명	단체명	대표자	사업명	사업개요 및 검토내용	지원실적 (천원)	진행상황
1	민간국제예술교류지원 (연극)	한일연극교류협의회	김광보	일본공연 〈한국 현대희곡 드라마 리딩 vol.7 및 부대행사〉	•한국현대희곡을 번역하여 일본의 연극인·연극관객들에게 낭독공연, 한국극작가와대화,한일연극심포지엄및관련 회의 •'01년부터 한일지에키관인 일한연극교류센터와 협약 체결하여 매년 추진 *한일연극교류의 주요행사로 지속적으로 문예기금 지원받음 *대표 김광보(극단청우) 명동예술극장 공연(세익스피어탄생 450주년 기념 '줄리어스시저' 연출), 2014년 동아연극상연출상 수상	12년 10,000 13년 10,000 14년 15,000	양해됨
2		하땅세	윤시중	부에노스아이레스 Festivales Internacional de Buenos Aires (FIBA) 2015 초청공연(FAUST I+II)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국제페스티벌(아르헨티나의 대표적인 국제공연예술축제, 시 문화부산하 주관) 파우스트초청공연 •교류조건 개런티2만불,투어인원15인호텔숙식,일비지급,현지 교통비,비자수수료 부담 *작품성 뛰어나고 초청조건도 양호 *원로극작가 윤조병의 아들로 수상경력 다수(한국연극협회 발행 월간'한국연극'이선정한 14년'올해의연극베스트7'에 〈붓바람〉 선정/ 14년 구희서연극상(기대되는연극인상) 수상	12년 12,000 14년 15,000	양해됨
3		한국연극연출가협회	김성노	2015 아시아연출가전	• 아시아에서 활동하는 연출가(한국, 대만, 일본)를 초청하여 국내 배우들과 함께 제작하는 프로젝트 • 아시아 연출가 교류를 위해 지속 추진해 온 사업으로 일개		양해됨

〈출처 : 2017고합102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재판 증거기록,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 2-1-기관별, 515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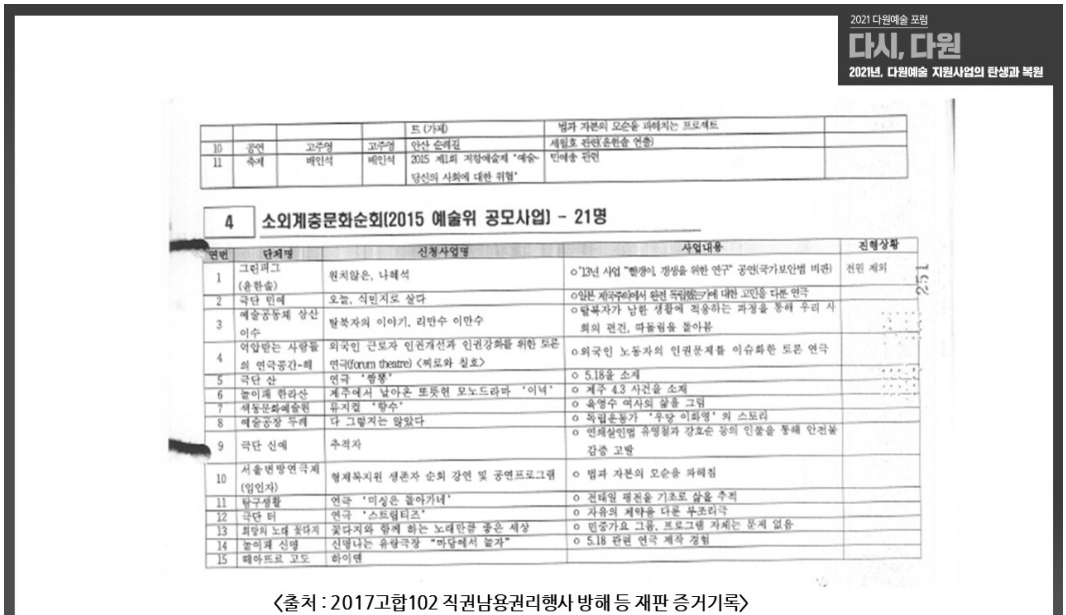

2021 다원예술 포럼
다시, 다원
2021년, 다원예술 지원사업의 탄생과 복원

		협력단		자들 위한 아클리에 광주			
11		극단꼭목김	이호열	민주전선 일본공연 -선주루 타이니 앨리스 페스티벌			제외
12	공연예술비평 연구활성화	서울변방연극제	임인자	새연극학교-연구 및비평프로젝트 '시대횡단' (가제)			제외

3 융복합분야 (2015 예술위 공모사업) - 11명

연번	분야	단체명	대표자	사업명	사업개요 및 검토내용	진행상황
1	축제	서울프린지네트워크	오성화	서울프린지페스티벌2015	○지원중단시 젊은 예술가들의 강한 반발 및 부작용 예상 ○대표 개인의 활동이 문제되며, 행사자체는 내용, 인지도, 파급효과 측면에서 국내최고수준 ○심사(선정)가 없는 자유참가 제도로 젊은 예술가들 선호 ○ 지원액을 삭감하고 추후 행사세부내용 사전확인 강화	전원 제외
2	콘서트	(사)우리만화연대	차성재	만화BOOO토크콘서트	○심사 제외	
3		새비랜드	마도원	와일드 비호 (Wild Bach Grooves)	○심사 제외	
4		전제밴드	정진재	전제밴드 시노래음반	○심사 제외	
5		ACC프로젝트	서익진	장동 도심형 다원예술 창작 프로젝트	○심사 제외	
6	공연	그린피그	윤한솔	트로이의 여인들- The Refugees	○심사 제외 ○'13년 사업 "빨갱이, 생성을위한 연구" 공연 (※국가보안법 비판)	
7	콘서트	극단 산울림	임영웅	산울림콘서트	○서울연극제 파동과 연계하여 연극계 원로 후대지원에서 지원 필요	심사시 탈락 항의함
8	공연	극단 서울괴담	유영봉	환상통로	○심사 제외	
9	축제	서울변방연극제	임인자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 - 법과 자본과 사람의 발견 프로젝	○심사 제외 ○룸트롤텍 해고 노동자',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 들과 함께	

- 17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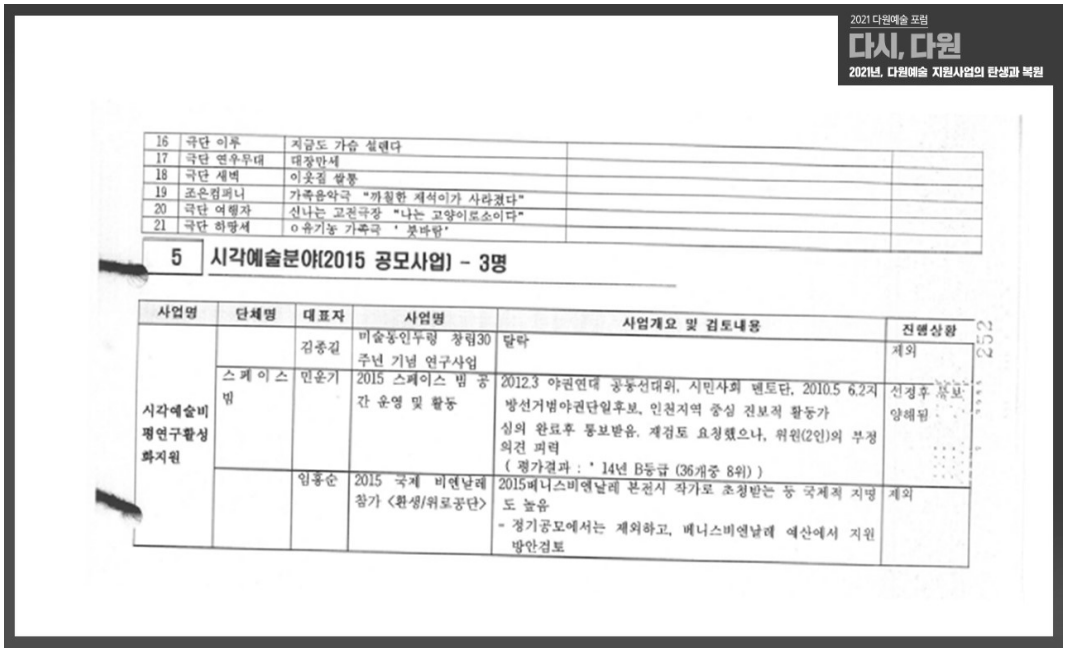

2021 다원예술 포럼
다시, 다원
2021년, 다원예술 지원사업의 탄생과 복원

				트 (가제)	법과 자본의 모순을 파헤치는 프로젝트	
10	공연	고주영	고주영	안산 순례길	세월호 관련공연을 연출)	
11	축제	배인석	배인석	2015 제1회 지랑예술제 '예술-당신의 사회에 대한 위협'	인예술 관련	

4 소외계층문화순회(2015 예술위 공모사업) - 21명

연번	단체명	신청사업명	사업내용	진행상황
1	그린피그 (윤한솔)	원치않은, 나체석	○'13년 사업 "빨갱이, 생성을 위한 연구" 공연(국가보안법 비판)	전원 제외
2	극단 민예	오늘, 식민지로 살다	○일본 제국주의에서 한센 독립운동가에 대한 고민을 다룬 연극	
3	예술공동체 상산이수	탈북자의 이야기, 리만수 이만수	○탈북자가 남한 정착에 적응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 사회의 편견, 따돌림을 돌아봄	
4	억압받는 사람들의 연극공간-해	외국인 근로자 인권개선과 인권강화를 위한 토론연극(forum theatre) <씨로와 칠호>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문제를 이슈화한 토론 연극	
5	극단 산	연극 '봄봄'	○ 5.18을 소재	
6	놀이패 한라산	제주에서 남아온 또돗현 모노드라마 '이녁'	○ 제주 4.3 사건을 소재	
7	세종문화예술원	유지컬 '향수'	○ 육영수 여사의 삶을 그림	
8	예술공장 두레	다 그렇지는 않았다	○ 독립운동가 '우당 이회영' 의 스토리	
9	극단 신예	추적자	○ 연쇄살인범 유영철과 강호순 등의 인물을 통해 안전불감증 고발	
10	서울변방연극제 (임인자)	형제복지원 생존자 순회 강연 및 공연프로그램	○ 법과 자본의 모순을 파헤침	
11	탈구생활	연극 '미싱은 돌아가네'	○ 전태일 재전을 기초로 삶을 추적	
12	극단 터	연극 '스트립티즈'	○ 자유의 제약을 다룬 부조리극	
13	희망의 노래 찾다지	꽃다지와 함께 하는 노래만큼 좋은 세상	○ 민중가요 그룹, 프로그램 자체는 문제 없음	
14	놀이패 신명	신명나는 유랑극장 "마당에서 놀자"	○ 5.18 관련 연극 제작 경험	
15	웨아트로 고도	하이랜		

〈출처 : 2017고합102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재판 증거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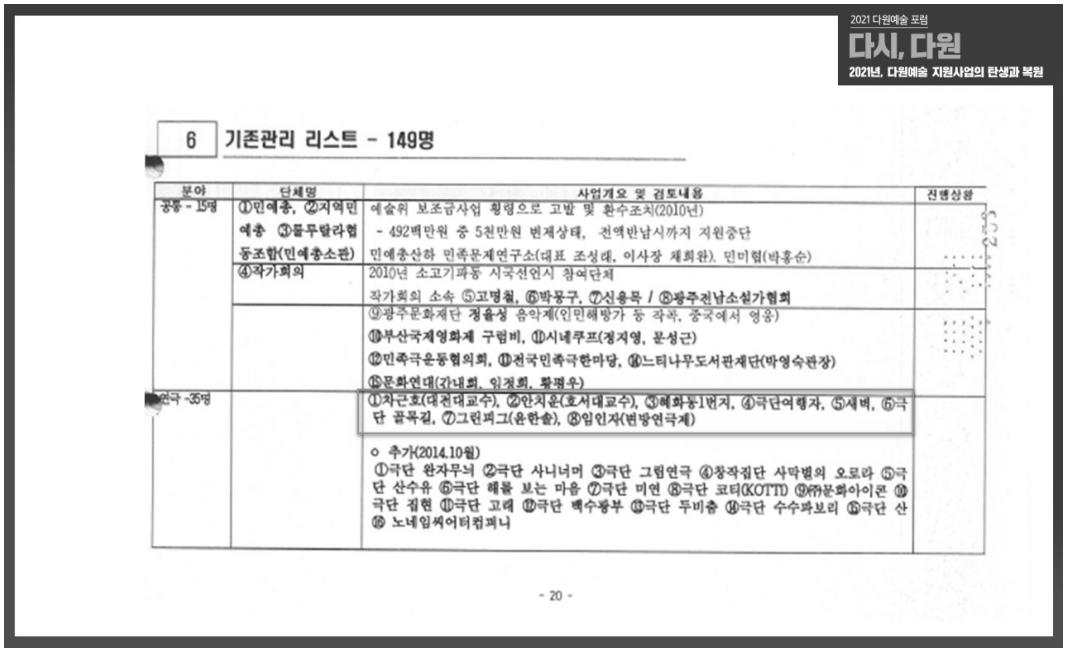
2021 다원예술 포럼
다시, 다원
2021년, 다원예술 지원사업의 탄생과 복원

16	극단 이루	지금도 가슴 설렌다
17	극단 연우무대	대장만세
18	극단 세벽	이웃집 쌀통
19	조은컴퍼니	가족음악극 "까칠한 제석이가 사라졌다"
20	극단 여행자	신나는 고전극장 "나는 고양이로소이다"
21	극단 하땅세	ㅇ유기농 가족극 ' 봇바람'

5 시각예술분야(2015 공모사업) - 3명

사업명	단체명	대표자	사업명	사업개요 및 검토내용	진행상황
시각예술비평연구활성화지원		김종길	미술동인무령 창립30주년 기념 연구사업	탈락	제외
	스페이스 빔	민운기	2015 스페이스 빔 공간 운영 및 활동	2012.3 야권연대 공동선대위, 시민사회 멘토단, 2010.5 6.2지방선거범야권단일후보, 인천지역 중심 진보적 활동가 심의 완료후 통보받음. 재검토 요청했으나, 위원(2인)의 부정의견 피력 (평가결과 : ' 14년 B등급 (36개중 8위))	선정후 취소 양해됨
		임홍순	2015 국제 비엔날레 참가 〈환생/위로공단〉	2015베니스비엔날레 본전시 작가로 초청받는 등 국제적 지명도 높음 - 정기공모에서는 제외하고, 베니스비엔날레 예산에서 지원 방안검토	제외

2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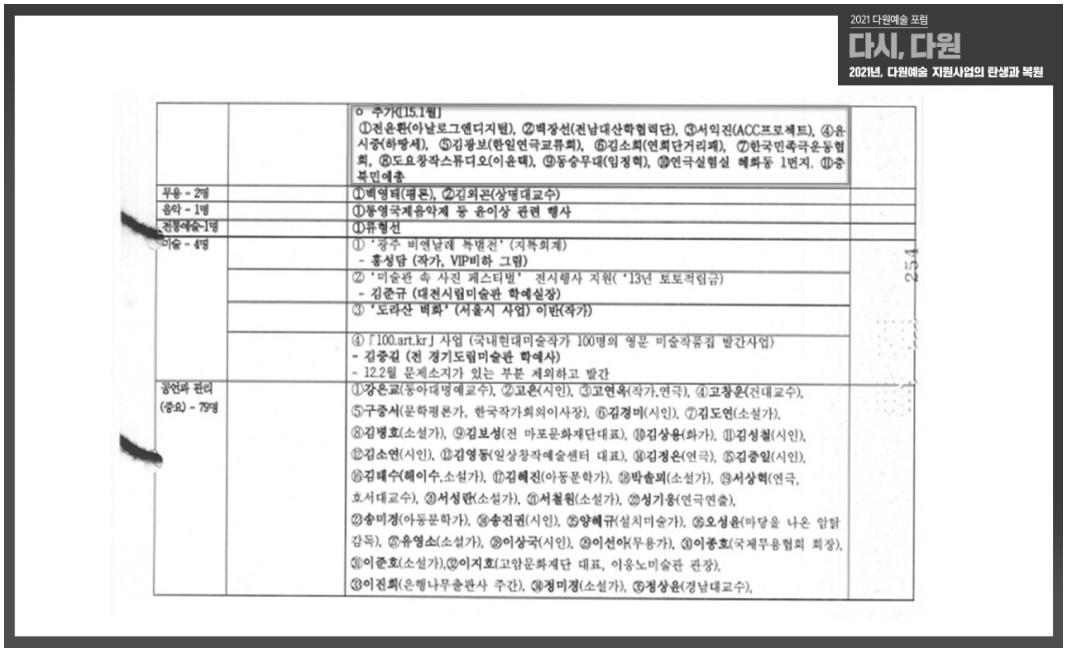
2021 다원예술 포럼
다시, 다원
2021년, 다원예술 지원사업의 탄생과 복원

6 기존관리 리스트 - 149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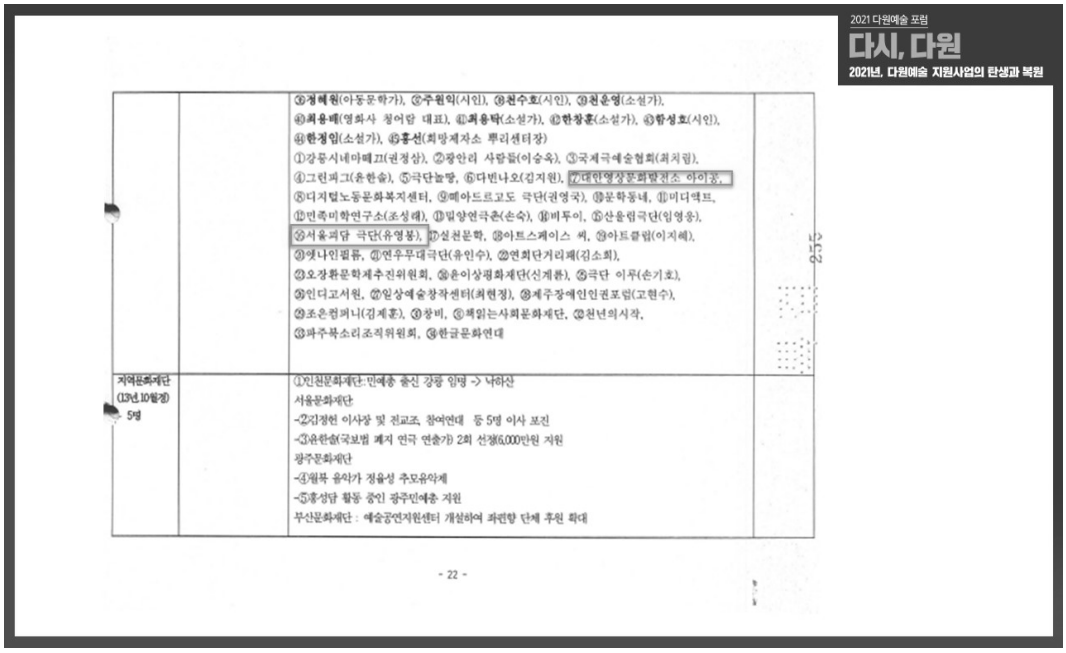
분야	단체명	사업개요 및 검토내용	진행상황
공통 - 15명	①민예총, ②지역민예총 ③물무달라협동조합(민예총소관)	예술위 보조금사업 횡령으로 고발 및 환수조치(2010년) - 492백만원 중 5천만원 변제상태, 전액반납시까지 지원중단 민예총산하 민족문제연구소(대표 조성대, 이사장 재회완), 민미협(박홍순)	
	④작가회의	2010년 소고기파동 시국선언시 참여단체 작가회의 소속 ⑤고명철, ⑥박몽구, ⑦신용목 / ⑧광주전남소설가협회	
		⑨광주문화재단 정율성 음악제(인민해방가 등 작곡, 중국에서 영웅) ⑩부산국제영화제 구럼비, ⑪시네큐브(정지영, 문성근) ⑫민족극운동협의회, ⑬전국민족극한마당, ⑭느티나무도서관재단(박영숙관장) ⑮문화연대(간내희, 임정희, 황폐우)	
연극 -35명		①차근호(대전대교수), ②안치운(호서대교수), ③혜화동1번지, ④극단여행자, ⑤새벽, ⑥극단 골목길, ⑦그린피그(윤한솔), ⑧임인자(범방연극제)	
		ㅇ 추가(2014.10월) ①극단 완자무늬 ②극단 사니너머 ③극단 그림연극 ④창작집단 사막별의 오로라 ⑤극단 산수유 ⑥극단 해를 보는 마을 ⑦극단 미연 ⑧극단 코티(KOTTI) ⑨⑩문화아이콘 ⑪극단 집현 ⑫극단 고래 ⑬극단 백수광부 ⑭극단 두비춤 ⑮극단 수수파보리 ⑯극단 산 ⑰ 노네임씨어터컴퍼니	

2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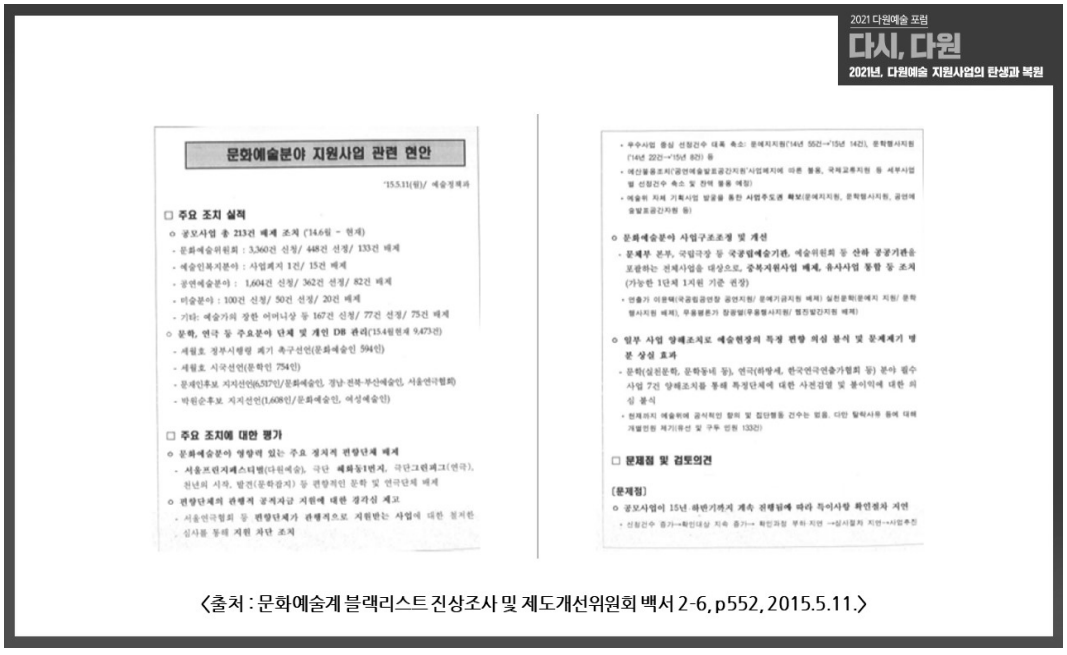
- 2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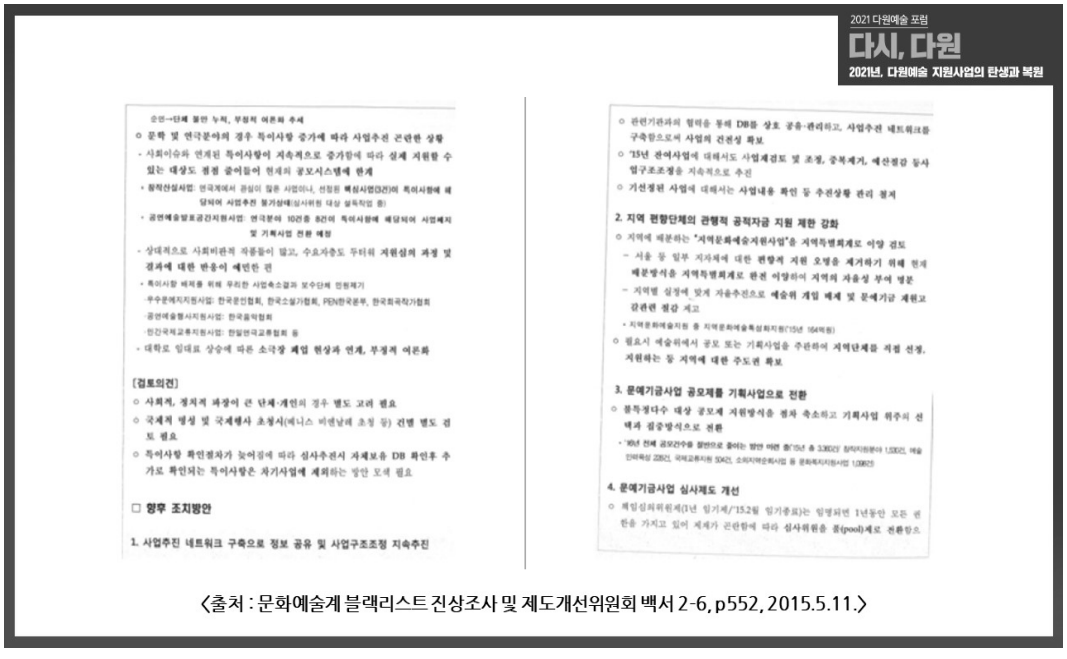
		○ 추가(15.1월) ①전윤환(아남로그엔디지털), ②백장선(전남대산학협력단), ③서익진(ACC프로젝트), ④윤시중(하땅세), ⑤김광보(한일연극교류회), ⑥김소희(연희단거리패), ⑦한국민족극운동협회, ⑧도요창작스튜디오(이윤택), ⑨동승무대(임정혁), ⑩연극실험실 혜화동 1번지, ⑪송복민예총
무용 - 2명		①백영태(평론), ②김희곤(상명대교수)
음악 - 1명		①동영국제음악제 등 윤이상 관련 행사
전통예술-1명		①류형선
미술 - 4명		① '창주 비엔날레 특별전' (지특회계) - 홍성담 (작가, VIP비하 그림)
		② '미술관 속 사진 페스티벌' 전시행사 지원('13년 토토적립금) - 김준규 (대전시립미술관 학예실장)
		③ '도라산 비화' (서울시 사업) 이판(작가)
		④「100.art.kr」 사업 (국내현대미술작가 100명의 영문 미술작품집 발간사업) - 김종길 (전 경기도립미술관 학예사) - 12.2월 문제소지가 있는 부분 제외하고 발간
공연과 관리 (중요) - 79명		①강준교(동아대명예교수), ②고은(시인), ③고연옥(작가,연극), ④고창윤(전대교수), ⑤구중서(문학평론가, 한국작가회의이사장), ⑥김경미(시인), ⑦김도연(소설가), ⑧김병호(소설가), ⑨김보성(전 마포문화재단대표), ⑩김상용(화가), ⑪김성철(시인), ⑫김소연(시인), ⑬김영동(일상창작예술센터 대표), ⑭김정은(연극), ⑮김종일(시인), ⑯김태수(해이수,소설가), ⑰김혜진(아동문학가), ⑱박솔희(소설가), ⑲서상혁(연극, 호서대교수), ⑳서성란(소설가), ㉑서철원(소설가), ㉒성기웅(연극연출), ㉓송미경(아동문학가), ㉔송진권(시인), ㉕양혜규(설치미술가), ㉖오성윤(마당을 나온 암탉 감독), ㉗유영소(소설가), ㉘이상국(시인), ㉙이선아(무용가), ㉚이종호(국제무용협회 회장), ㉛이준호(소설가),㉜이지호(고암문화재단 대표, 이응노미술관 관장), ㉝이진희(은행나무출판사 주간), ㉞정미경(소설가), ㉟정상윤(경남대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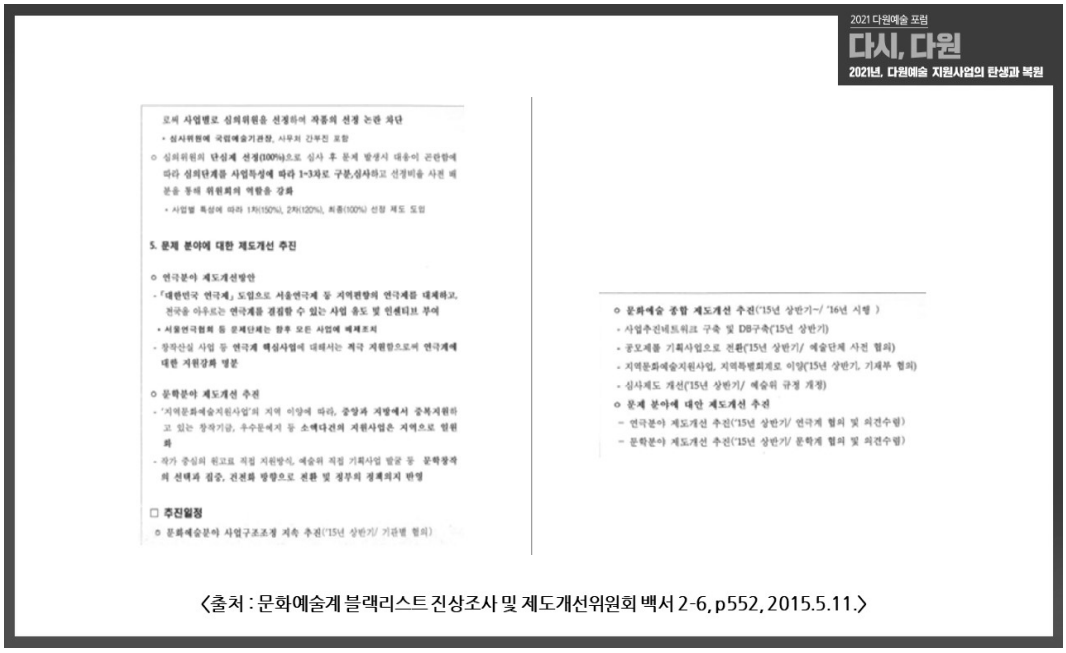
		㊱정혜원(아동문학가), ㊲주원익(시인), ㊳천수호(시인), ㊴천운영(소설가), ㊵최용배(영화사 청어람 대표), ㊶최용탁(소설가), ㊷한창훈(소설가), ㊸함성호(시인), ㊹한정임(소설가), ㊺홍선(희망제작소 루리센터장) ①강동시네마페끄(권정삼), ②광안리 사람들(이승욱), ③국제극예술협회(최치림), ④그린피그(윤한솔), ⑤극단놀땅, ⑥다빈나오(김지원), ⑦대한영상문화협회(조 아이콩), ⑧디지털노동문화복지센터, ⑨메아드르고도 극단(권영국), ⑩문학동네, ⑪미디액트, ⑫민족미학연구소(조성래), ⑬밀양연극촌(손숙), ⑭비투이, ⑮산울림극단(임영웅), ⑯서울괴담 극단(유영봉), ⑰설천문학, ⑱아트스케이스 씨, ⑲아트클럽(이지혜), ⑳앳나인필름, ㉑연우무대극단(유인수), ㉒연희단거리패(김소희), ㉓오장환문학제추진위원회, ㉔윤이상평화재단(신계륜), ㉕극단 이루(손기호), ㉖인디고서원, ㉗일상예술창작센터(최현정), ㉘제주장애인인권포럼(고현수), ㉙조은컴퍼니(김제홍), ㉚창비, ㉛책읽는사회문화재단, ㉜천년의시작, ㉝파주북소리조직위원회, ㉞한글문화연대
지역문화재단 (13년.10월경) 5명		①인천문화재단 민예총 출신 강풍 임명 -> 낙하산 서울문화재단 -②김정헌 이사장 및 전교조, 참여연대 등 5명 이사 포진 -③윤한솔(국보법 폐지 연극 연출가) 2회 선정(6,000만원 지원 광주문화재단 -④월북 음악가 정율성 추모음악제 -⑤홍성담 활동 중인 광주민예총 지원 부산문화재단 : 예술공연지원센터 개설하여 좌편향 단체 후원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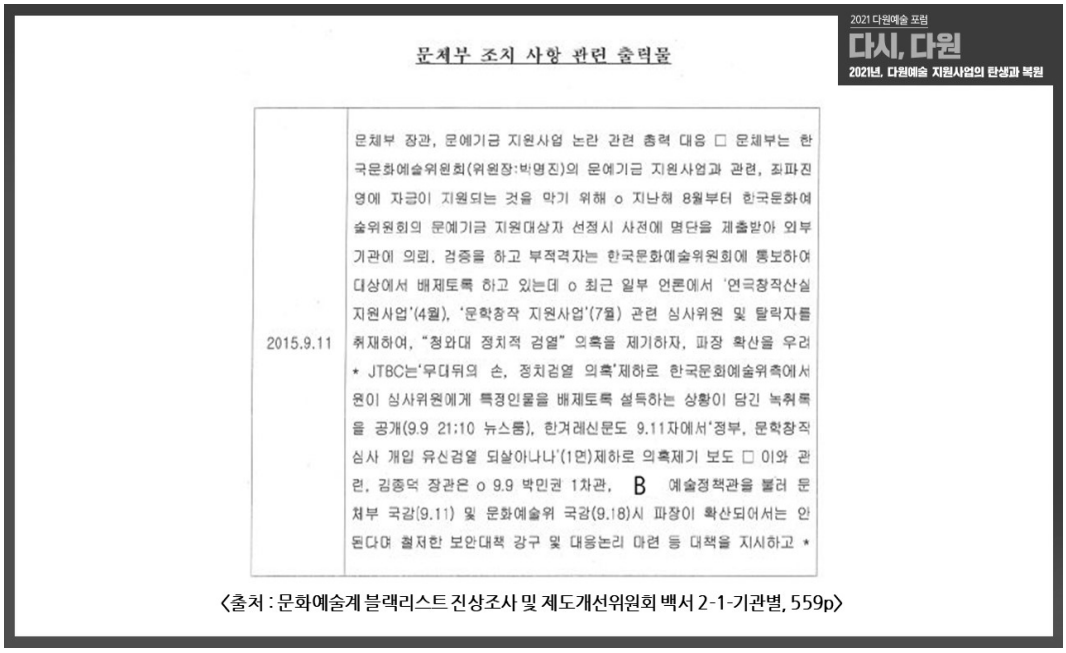
〈출처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 2-6, p552, 2015.5.11.〉



〈출처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 2-6, p552, 2015.5.11.〉



〈출처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 2-6, p552, 2015.5.11.〉



〈출처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 2-1-기관별, 559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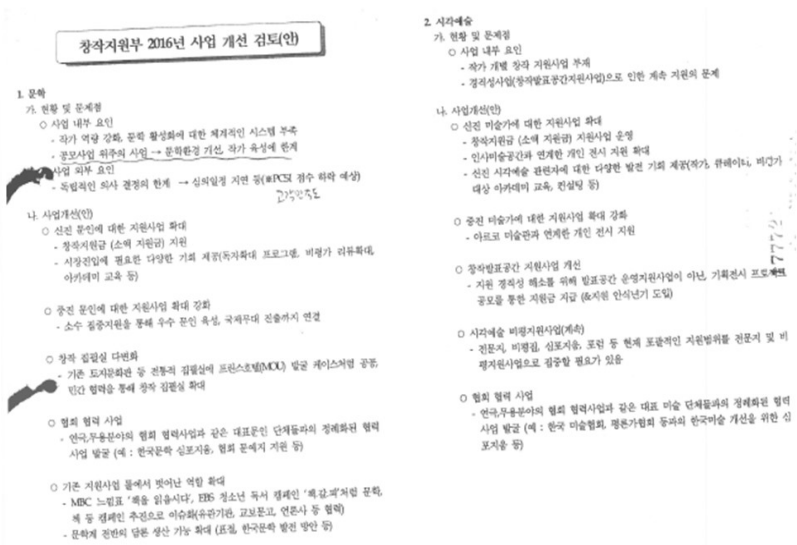
2021 다원예술 포럼
다시, 다원
2021년, 다원예술 지원사업의 탄생과 복원

'장관님 면담 참고자료'는 먼저 2015년 10월 2일 예술위가 파악하고 있었던 예술계 현장 동향을 보여준다.[153]

□ 현장 동향
- 문학, 연극계 등 예술현장의 비판 분위기 확대 우려
  - 좌편향 예술가들 중심에서 중도, 보수층 예술가들도 서명 참여 증가 (현재 800 여명이 참여했다는 주장)
  - 예술인연대포럼 '검열과 파행' 개최 예정: 10. 5(월) 18:00, 대학로 SH아트홀
  - 확감일에 국회 앞에서 관련 단체 시위 계획 중
  - 작가회의가 관련 심포지움 개최 예정: 11.3, 광주
- 예술위의 향후 지원심의 과정과 결과에 대한 현장의 집중 주목
  - 무리한 심의 진행시 제2의 심의사태 발생 위험
  - 심의위원 탈퇴 혹은 수락 거부 움직임 가능성(예. 최OO 문예지 심의위원 발언, 박OO 이사장 의견)
- 예술위 위원들의 동요
  - 부역자라는 현장의 비판(정OO 위원), 위원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회의(김OO, 오OO 위원)

〈출처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 2-6, p562, 2015.5.11.〉

2021 다원예술 포럼
다시, 다원
2021년, 다원예술 지원사업의 탄생과 복원



창작지원부 2016년 사업 개선 검토(안)

1. 문학
가. 현황 및 문제점
○ 사업 내부 요인
- 작가 역량 강화, 문학 활성화에 대한 체계적인 시스템 부족
- 공모사업 위주의 사업 → 문학환경 기선, 작가 육성에 한계

○ 사업 외부 요인
- 독립적인 의사 결정의 한계 → 심의일정 지연 등(#PCSI 점수 하락 예상)

나. 사업개선(안)
○ 신진 문인에 대한 지원사업 확대
- 창작지원금 (소액 지원금) 지원
- 시장진입에 필요한 다양한 기회 제공(독자확대 프로그램, 비평가 리뷰확대, 아카데미 교육 등)

○ 중진 문인에 대한 지원사업 확대 강화
- 소수 집중지원을 통해 우수 문인 육성, 국제무대 진출까지 연결

○ 창작 집필실 다변화
- 기존 도지문화관 등 전통적 집필실에 프린스호텔(MOU) 발굴 케이스처럼 공공, 민간 협력을 통해 창작 집필실 확대

○ 협회 협력 사업
- 연극,무용분야의 협회 협력사업과 같은 대표문인 단체들과의 정례화된 협력 사업 발굴 (예 : 한국문학 심포지움, 협회 문예지 지원 등)

○ 기존 지원사업 틀에서 벗어난 역할 확대
- MBC 느림표 '책을 읽읍시다', EBS 청소년 독서 캠페인 '책갈피'처럼 문학, 책 등 캠페인 추진으로 이슈화(유관기관, 교보문고, 언론사 등 협력)
- 문학계 전반의 담론 생산 가능 확대 (토론, 한국문학 발전 방안 등)

2. 시각예술
가. 현황 및 문제점
○ 사업 내부 요인
- 작가 개별 창작 지원사업 부재
- 경직성사업(창작발표공간지원사업)으로 인한 계속 지원의 문제

나. 사업개선(안)
○ 신진 미술가에 대한 지원사업 확대
- 창작지원금 (소액 지원금) 지원사업 운영
- 인사미술공간과 연계한 개인 전시 지원 확대
- 신진 시각예술 관련자에 대한 다양한 발전 기회 제공(작가, 큐레이터, 비평가 대상 아카데미 교육, 컨설팅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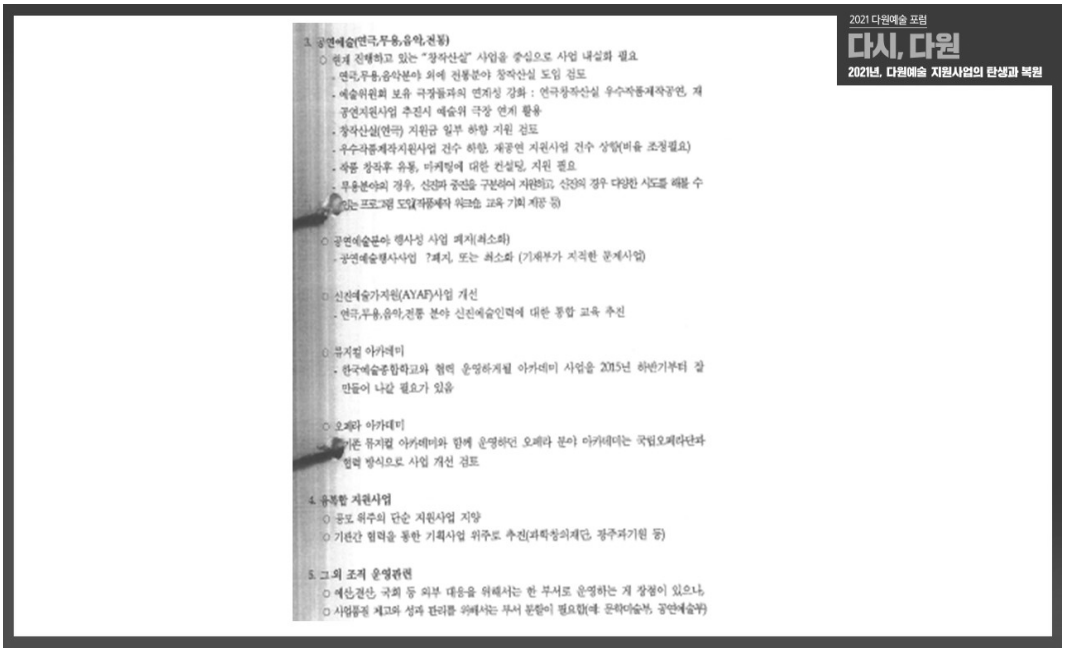
○ 중진 미술가에 대한 지원사업 확대 강화
- 아르코 미술관과 연계한 개인 전시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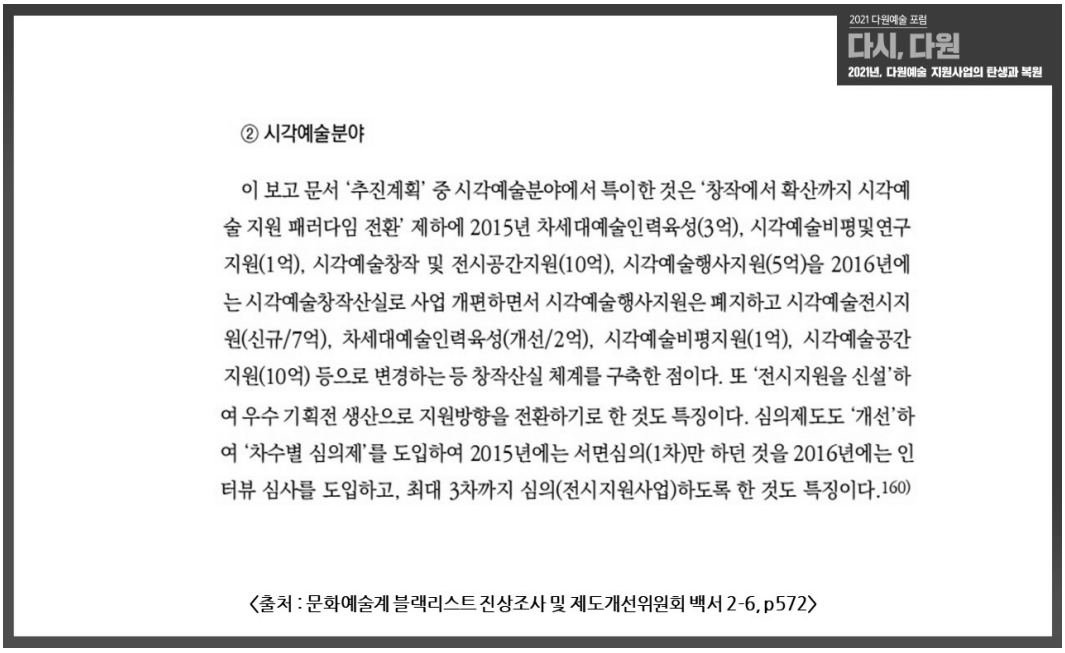
○ 창작발표공간 지원사업 개선
- 지원 경직성 해소를 위해 발표공간 운영지원사업이 아닌, 기획전시 프로젝트 공모를 통한 지원금 지급 (&지원 안식년기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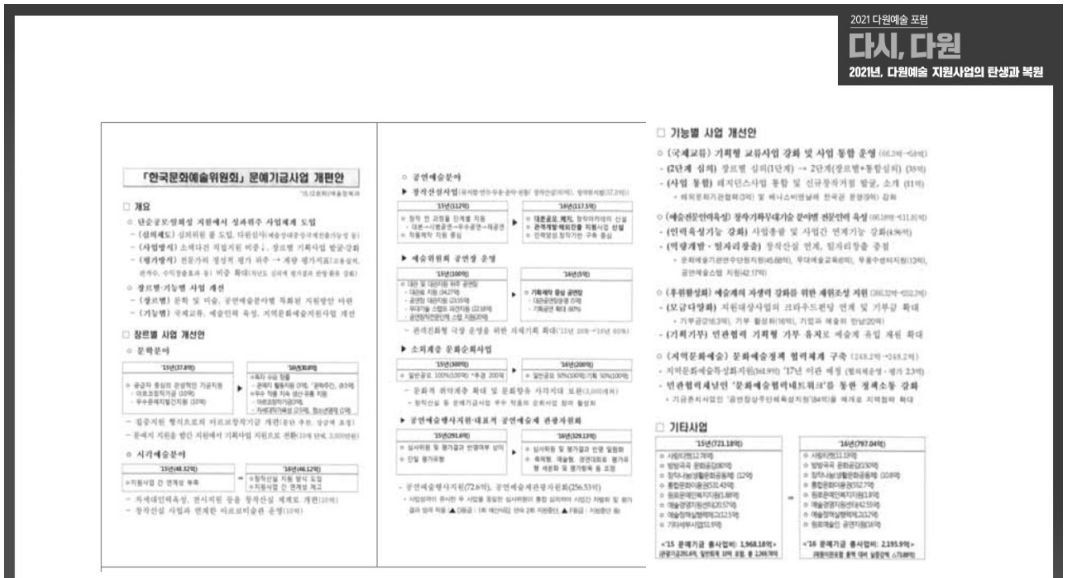
○ 시각예술 비평지원사업(계속)
- 전문지, 비평집, 심포지움, 포럼 등 현재 포괄적인 지원범위를 전문지 및 비평지원사업으로 집중할 필요가 있음

○ 협회 협력 사업
- 연극,무용분야의 협회 협력사업과 같은 대표 미술 단체들과의 정례화된 협력 사업 발굴 (예 : 한국 미술협회, 평론가협회 등과의 한국미술 개선을 위한 심포지움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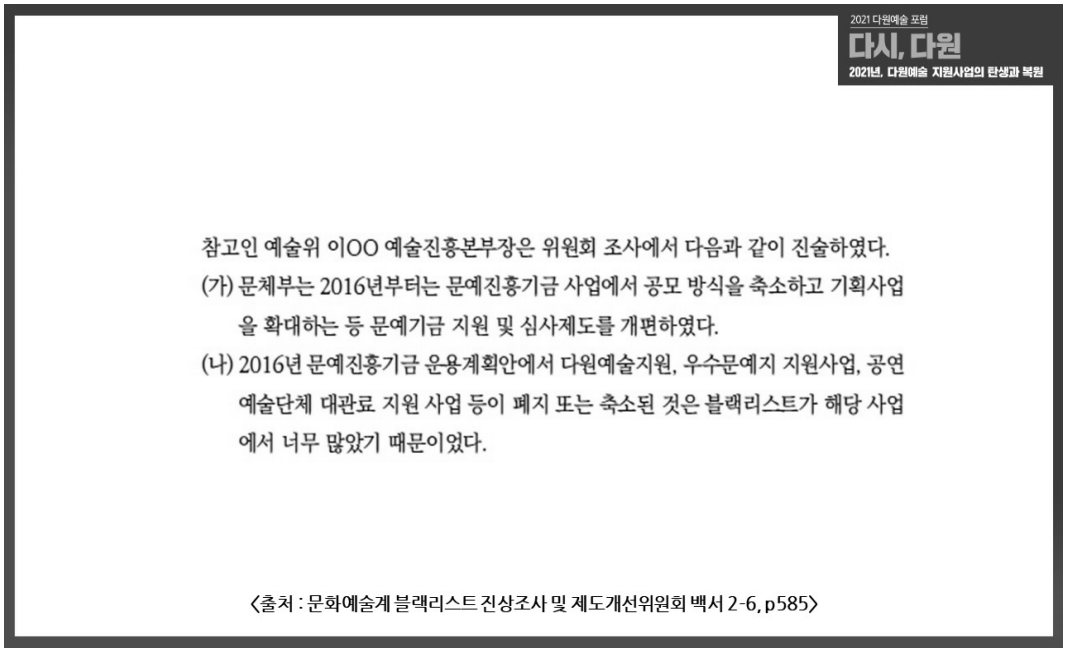
〈출처 : 2017고합102 직권남용권리 행사 방해 등 재판 증거기록(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작성추정)〉


2021 다원예술 포럼
다시, 다원
2021년, 다원예술 지원사업의 탄생과 복원
3. 공연예술(연극,무용,음악,전통)
○ 현재 진행하고 있는 "창작산실" 사업을 중심으로 사업 내실화 필요
- 연극,무용,음악분야 외에 전통분야 창작산실 도입 검토
- 예술위원회 보유 극장들과의 연계성 강화 : 연극창작산실 우수작품제작공연, 재공연지원사업 추진시 예술위 극장 연계 활용
- 창작산실(연극) 지원금 일부 하향 지원 검토
- 우수작품제작지원사업 건수 하향, 재공연 지원사업 건수 상향(비율 조정필요)
- 작품 창작후 유통, 마케팅에 대한 컨설팅, 지원 필요
- 무용분야의 경우, 신진과 중견을 구분하여 지원하고, 신진의 경우 다양한 시도를 해볼 수 있는 프로그램 도입(작품제작 워크숍 교육 기회 제공 등)
○ 공연예술분야 행사성 사업 폐지(최소화)
- 공연예술행사사업 ?폐지, 또는 최소화 (기재부가 지적한 문제사업)
○ 신진예술가지원(AYAF)사업 개선
- 연극,무용,음악,전통 분야 신진예술인력에 대한 통합 교육 추진
○ 뮤지컬 아카데미
- 한국예술종합학교와 협력 운영하지원 아카데미 사업을 2015년 하반기부터 잘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음
○ 오페라 아카데미
- 뮤지컬 아카데미와 함께 운영하던 오페라 분야 아카데미는 국립오페라단과 협력 방식으로 사업 개선 검토
4. 융복합 지원사업
○ 공모 위주의 단순 지원사업 지양
○ 기관간 협력을 통한 기획사업 위주로 추진(과학창의재단, 정주지기원 등)
5. 그외 조직 운영관련
○ 예산편성, 국회 등 외부 대응을 위해서는 한 부서로 운영하는 게 장점이 있으나,
○ 사업특성 제고와 성과 관리를 위해서는 부서 분할이 필요함(예: 문학예술부, 공연예술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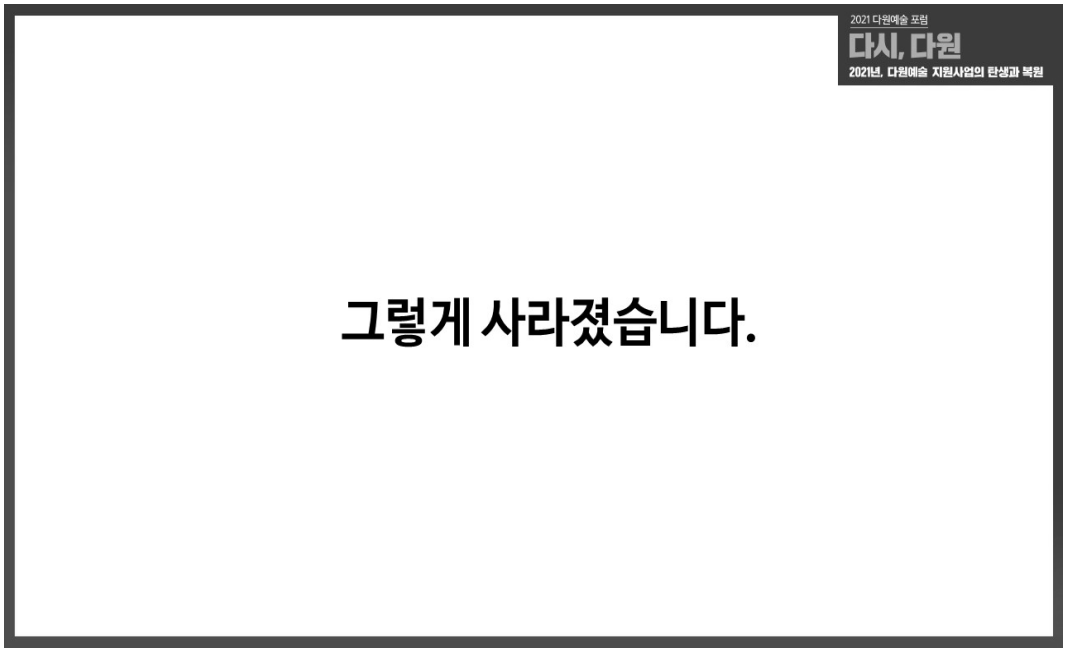

2021 다원예술 포럼
다시, 다원
2021년, 다원예술 지원사업의 탄생과 복원
② 시각예술분야
이 보고 문서 '추진계획' 중 시각예술분야에서 특이한 것은 '창작에서 확산까지 시각예술 지원 패러다임 전환' 제하에 2015년 차세대예술인력육성(3억), 시각예술비평및연구지원(1억), 시각예술창작 및 전시공간지원(10억), 시각예술행사지원(5억)을 2016년에는 시각예술창작산실로 사업 개편하면서 시각예술행사지원은 폐지하고 시각예술전시지원(신규/7억), 차세대예술인력육성(개선/2억), 시각예술비평지원(1억), 시각예술공간지원(10억) 등으로 변경하는 등 창작산실 체계를 구축한 점이다. 또 '전시지원을 신설'하여 우수 기획전 생산으로 지원방향을 전환하기로 한 것도 특징이다. 심의제도도 '개선'하여 '차수별 심의제'를 도입하여 2015년에는 서면심의(1차)만 하던 것을 2016년에는 인터뷰 심사를 도입하고, 최대 3차까지 심의(전시지원사업)하도록 한 것도 특징이다.160)
〈출처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 2-6, p5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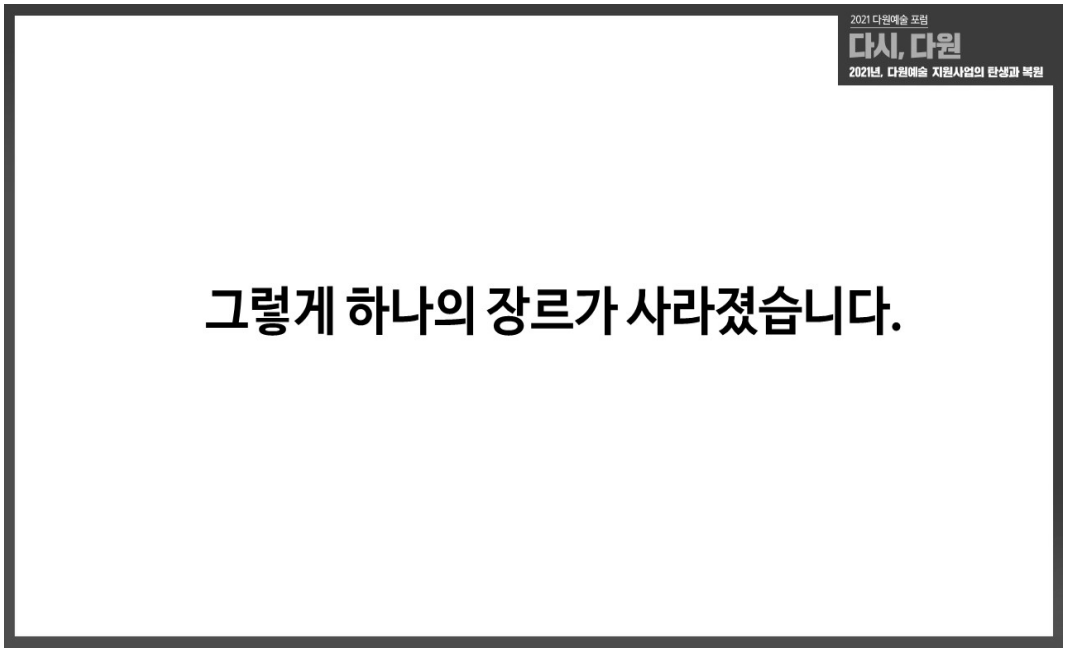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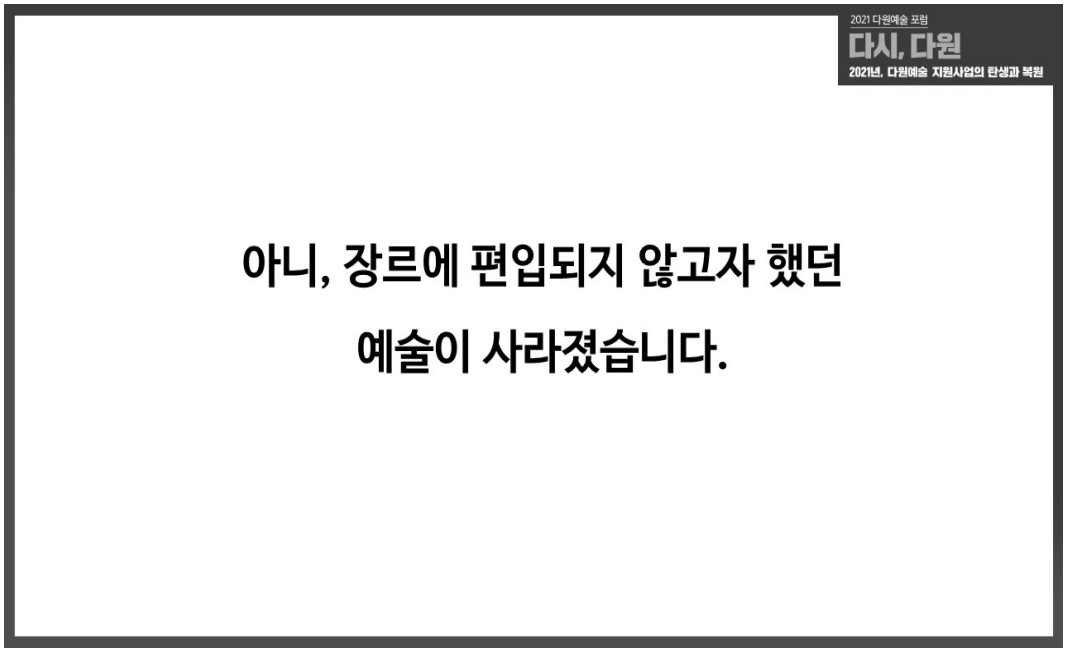
〈출처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 2-6, p5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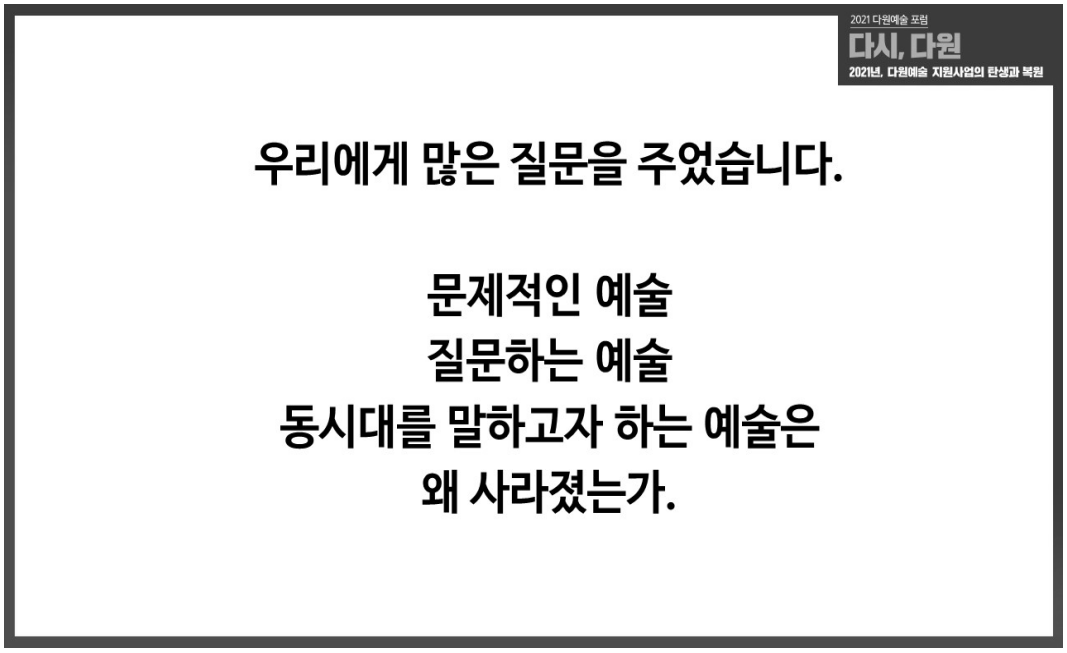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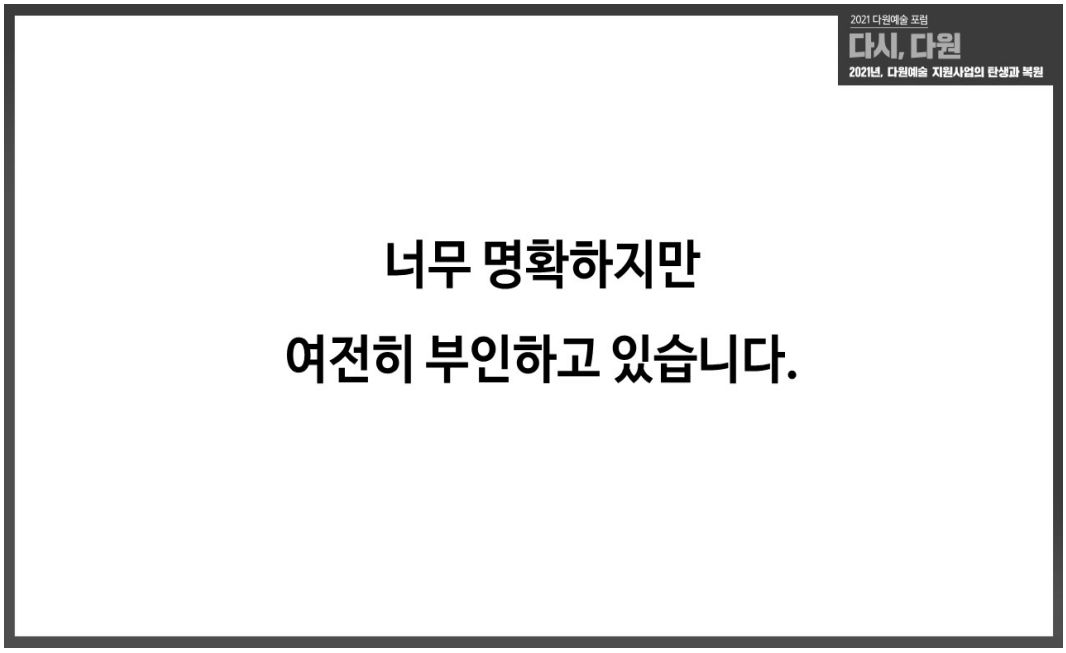
〈출처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 2-6, p5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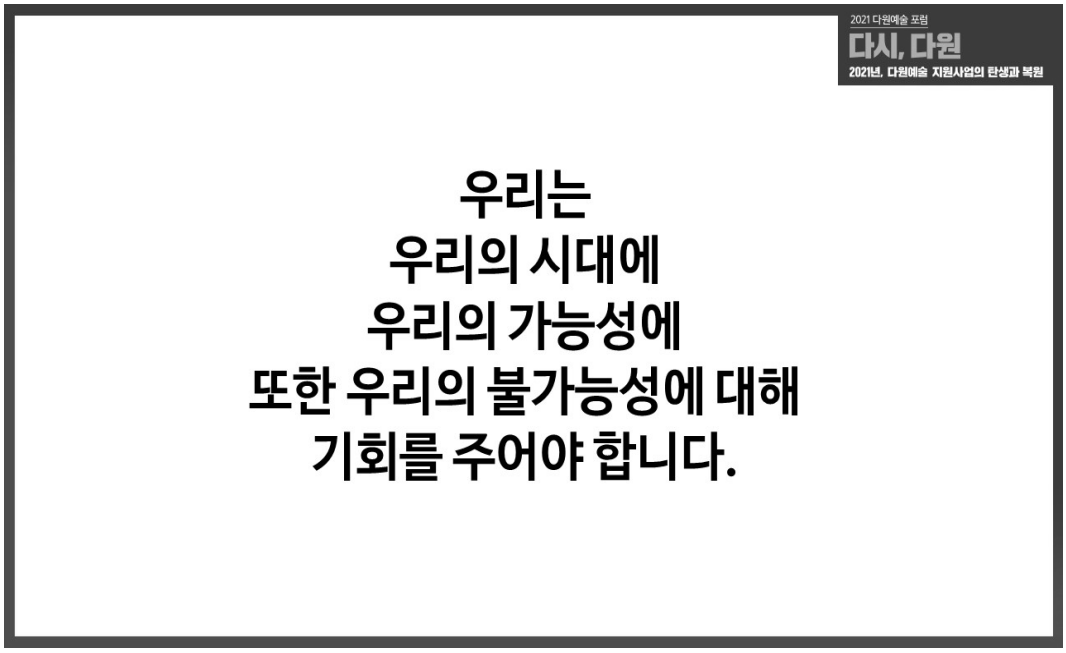

2021 다원예술 포럼
다시, 다원
2021년, 다원예술 지원사업의 탄생과 복원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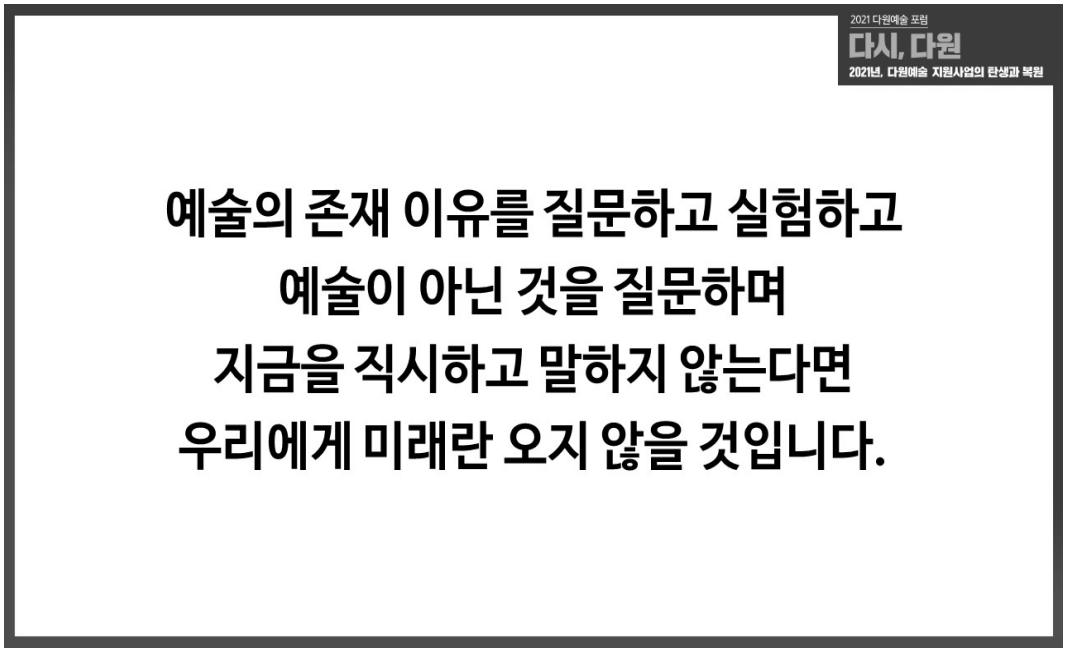

2021 다원예술 포럼
다시, 다원
2021년, 다원예술 지원사업의 탄생과 복원
그렇게 하나의 장르가 사라졌습니다.


2021 다원예술 포럼
다시, 다원
2021년, 다원예술 지원사업의 탄생과 복원
아니, 장르에 편입되지 않고자 했던
예술이 사라졌습니다.


2021 다원예술 포럼
다시, 다원
2021년, 다원예술 지원사업의 탄생과 복원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주었습니다.
문제적인 예술
질문하는 예술
동시대를 말하고자 하는 예술은
왜 사라졌는가.


2021 다원예술 포럼
다시, 다원
2021년, 다원예술 지원사업의 탄생과 복원
너무 명확하지만
여전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2021 다원예술 포럼
다시, 다원
2021년, 다원예술 지원사업의 탄생과 복원
우리는
우리의 시대에
우리의 가능성에
또한 우리의 불가능성에 대해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2021 다원예술 포럼
다시, 다원
2021년, 다원예술 지원사업의 탄생과 복원
예술의 존재 이유를 질문하고 실험하고
예술이 아닌 것을 질문하며
지금을 직시하고 말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미래란 오지 않을 것입니다.

2021 다원예술 포럼

다시, 다원

2021년
다원예술 지원사업의
탄생과 복원

종합토론

박경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김준기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실장
정진세 극단 문 대표
임인자 서울변방연극제 전 예술감독
남하나 서울프린지네트워크 사무국 총괄
정윤희 문화민주주의 실천연대 공동운영위원장

지정토론 1

다원예술 지원 사업 복원은 새로운 좌표 그리기부터

정윤희 작가,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 블랙위원장

다원예술지원 사업이 복원된다는 소식이 매우 반갑습니다. 그러나 지원사업의 복원을 이야기하기 전에 꼭 짚고 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다원예술 지원 사업 〈실험적 예술 및 다양성 증진 지원 사업〉은 2015년 폐지되었었습니다. 그 이유는 국정농단시기 블랙리스트에 오른 예술가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에서 예술진흥본부장은 2015년 당시, 사업 폐지의 이유를 아래와 같이 진술하고 있습니다.

(3) 참고인 이OO의 진술[170]

참고인 예술위 이OO 예술진흥본부장은 위원회 조사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가) 문체부는 2016년부터는 문예진흥기금 사업에서 공모 방식을 축소하고 기획사업을 확대하는 등 문예기금 지원 및 심사제도를 개편하였다.

(나) 2016년 문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서 다원예술지원, 우수문예지 지원사업, 공연예술단체 대관료 지원 사업 등이 폐지 또는 축소된 것은 블랙리스트가 해당 사업에서 너무 많았기 때문이었다.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 위원회 백서

블랙리스트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다원예술지원 사업을 다시 재개하는 이유는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 위원회〉가 블랙리스트 실행기관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권고한 제도개선 이행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제도개선 과제의 기조는 블랙리스트가 재발되지 않도록 수직적 관료 시스템의 폐해와 퇴행적인 협치 구조의 문제를 개선하고 공정성, 개방성, 투명성에 입각하여 예술현장과 소통하고 협력하여 민주적이고 평등한 결정구조를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다원예술지원 사업을 재개하는 것은 제도개선을 과제를 이행하는 일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공공기관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없애고 심사 제도에 개입하는 것이 용인되는 토양은 언제든지

블랙리스트와 같은 정책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조건입니다. 따라서 다원예술지원 사업이 복원된다는 것은 아무 일 없듯이 몇 해 지나서 이전의 사업들을 다시 재개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기존의 과오에 대한 성찰과 반성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다원예술 주체들은 다원예술지원으로 실험적 창작의 주체와 활동, 공간이 활발할 수 있었고 저변을 넓혀왔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하며 다원예술지원의 필요성을 피력합니다. 2005년 다원예술 소위원회 활동으로 시작하여 기존의 장르중심 지원제도를 넘어 다원적 가치에 입각한 의제 확장과 실험적 예술 활동에 대한 지원을 제도화하고 다원예술 담론을 확장할 수 있도록 조력한 것에 대한 예술현장의 긍정적인 평가는 분명 한국예술위원회가 이룬 성과일 것입니다.
그러나 블랙리스트 실행에 협조하며 사업을 일방적으로 폐지시킨 것은 결국 조직과 조직구성원 스스로 자신의 책무와 예술 현장과의 신뢰를 저버린 셈입니다. 따라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이전과 같은 과오를 범하지 않기 위하여 체질적 개선을 해야 할 것입니다.

담대한 실험과 도전의 장으로서 다원예술 지원

예술계 일각에서는 '다원예술' 개념의 외연과 내용이 모호하다고 말합니다. 다원예술의 정의가 무엇인지 질문하는 것입니다. 다원예술을 장르 중심의 모더니즘 예술에 대한 변증법적 차원에서 새로운' 예술형태로 내세우는 맥락을 넘어서서, 다원예술의 개념을 정교화하기보다 포괄적으로 세우고 그 '모호함'을 담대하게 도전할 수 있도록 공적 지원을 요구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술가에게는 다원예술에 대한 완결형의 답을 구하기보다 보다 독립성과 자유가 보장된 창작을 위한 공적 지원을 확보해 나가기 위한 방안으로 생각해봅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연구에서는 '다원예술이란 장르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다양한 예술적 가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창작활동으로서, 탈장르예술, 복합장르예술, 새로운 장르의 예술, 비주류예술, 문화다원주의적 예술, 독립예술 등을 중심적 대상으로 하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거시적인 맥락에서 비주류예술, 다원주의 예술, 독립예술 등은 장르 간 종 횡단을 넘나들며 모호하고 추상적으로 실험이 이루어집니다. 매체의 특수성에 기반을 두고 각각의 예술장르가 협업하여 형식적 실험, 다원성을 견지하는 예술, 국내의 다원예술의 현재적 시점에서는 다양한 장르가 하나의 의제로 만나 현실 참여적 태도로서 축제의 형식으로 나타는 것이 보편적인 양식으로 읽혀집니다. 다원예술 지원은 기존제도에서 포괄할 수 없는 새롭고 규정 짓기 어려운 실험적인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본질적으로 창작예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능동적이고 역동적인 예술적 실천을 규정 가능한 정태적 대상으로 환원하는 것은 유효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원예술을 장르 중심으로 구성된 기존의 예술 지원의 틀에서 범주화하고 동질선상에서 논의되고 제도화 하는 것은 넘어서야 할 당면한 과제일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후위기, 기술진보, 플랫폼 노동의 의제들은 우리의 삶과 존재의 기반 자체를 흔들고 있습니다. 예술가들의 삶과 창작 활동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당연합니다. 예술과 예술가의 존립 자체가 위기상황이기 때문에 지원 정책과 제도는 예술의 현재성을 진단하고 문제를 보완하며 가능성을 확장 시키는 방식으로서 작동되어야 합니다. 다원예술지원제도를 상상해 봅니다.

지원 사업 구조에 대한 몇 가지 아이디어

다원예술은 "경계 없는 예술"이라고도 합니다. 경계를 넘는 다원성은 권력 집단에 의해 결정되고 시작되는 수직적 구조가 아닌 민주주의적이고 수평적인 관계여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제도적으로 구현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았습니다.

먼저 해당 지원 사업 관련 제반 사항들을 예술현장과 공유하고 결정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다원예술에 직접 참여하는 창작과 비평의 주체들의 의견이 반영되어 개선되거나 혁신되어야 합니다. 블랙리스트 이전까지의 지원제도는 일부 성과는 이루었지만 블랙리스트가 작동되면서 허무하게 사라질 수 있었습니다. 좀 더 예술현장이 권한을 갖고 공적 지원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작동되는 방식을 공론화하고 생각을 모아보고 싶습니다. 여기에는 쟁점이 될 수도 있지만 지원 사업 형식과 구조에 대한 몇 가지 아이디어를 적었습니다.

지원 사업을 가령 두 개의 트랙으로 시행해보는 것을 제안합니다. 하나는 기존의 다양한 장르적 실현, 주체가 모여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플랫폼 역할을 해온 곳과 협력적 관계로 상호규약을 맺어 공적 자원을 평등하게 배분하여 자치적 실험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트랙은 기존의 장르들 사이의 경계를 뒤흔드는 실험적인 예술 활동을 다원예술로 정의 한다면, 탈장르 복합장르, 공간과 형식에 국한되지 않는 그 너머의 비 주류적이고 비가시적이어서 기존제도로 수렴되지 않는 예술적 실천들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사업으로 설계하는 것입니다. 두 개의 트랙의 공통점은 로컬, 젠더, 기후위기, 인간과 비인간의 관계와 사회적 맥락을 예술적 실천으로 삼는 것입니다.

새로운 좌표그리기는 회복적 실천으로부터

다원예술의 활동, 공간, 주체, 담론으로 축적 되어 온 장르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다양한 예술적 가치의 실현의 장은 축소되었고 프린지네트워크, 변방예술제 등 존재들의 관계와 그 관계의 사회적 맥락 속에서 예술을 실천하며 예술의 현실참여의 장을 넓혀온 예술 네트워크들의 상흔

은 깊었습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다시 다원예술 지원 사업을 복원하며 블랙리스트 문제와 그 제도적 요인을 공론화하고 다원예술의 담론과 지평을 넓힐 수 있는 토론을 열 수 있어서 일면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지속적으로 공론장을 펼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발제자였던 변방예술제 임인자 감독은 다원예술 지원 사업 복원이 단순히 지원 사업을 재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되새김하며 다원예술 지원에 대한 저의 발언을 복기해보고 생각들을 공유하겠습니다.

지정토론 2

다원이라 읽고 생태계라 말합니다.

남하나 서울프린지네트워크

몇 년 동안 '다원'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었고 많이 봐왔다. 하지만 그것을 제대로 이야기되거나 말해 본 적은 없었다. 2006년 다원예술소위원회, 2015년 블랙리스트를 지나 2021년 '다시, 다원' 지원사업에 이르기까지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생태계에 대해 조금 더 진지하게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길 바란다.

익숙하지만 다시 읽어보는 '다원'

'다원예술'이라 단어는 흔히 지원서를 써봤다면 볼 수 있는 단어이다. 체크박스에 연극, 시각, 전통, 음악, 무용, 다원 그중에 하나로 봤던 것이 나에게는 처음으로 '다원'이라는 단어가 각인되었던 것 같다. 작품 발표 형태에 있어서 하나의 단일장르가 아닌 그 외에 '장르 간의 혼합'으로 인식했던 것이 그 첫 번째이다. 내가 배웠던 교육시스템에서 예술을 쉽게 장르로 구분을 했었고 연극, 시각, 전통, 음악, 무용 그 안에서 세부 장르로 쪼개서 이해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하지만 점차 시대와 사회의 흐름에 맞춰 예술생태계도 함께 변해갔다. 예술의 경계는 모호해지고 예술 활동 내의 범위는 다양해졌다. 이에 따라 결과를 비롯한 리서치의 과정들이 도드라지고 예술이 단순히 결과값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 '과정'을 보다 중심적으로 보면서 예술 전반의 흐름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는 시기가 되었다. 이는 현장과 더불어 정책의 흐름도 맞물려 함께 변해가는 것들이 보였다.

가장 눈에 띄게는 2017년 〈청년예술단〉이다. 그 당시 예술인복지재단의 파견예술인과는 다른 순수한 창작활동에 고정 활동비와 프로젝트 비용 지원이 되면서 다원예술 분야에 만화, 일러스트, 커뮤니티아트, 퍼포먼스를 하는 팀들이 선정되었다. 또한 음악장르에서 인디음악이 인정받기 시작한 해도 그때가 아닌가 생각한다. 작업을 인정받고 자신들이 앞으로 작업할 수 있는 동력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겨난 것이다. 작업이 존중받을 수 있는 생태계, 수많은 예술적 레이어가 가능한 환경, 예술의 가치가 사회에 확산할 수 있는 의미까지 그 파격적인 시작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창작자들이 조금 더 안정적인 작업환경을 만들 수 있는 데 기여한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 비록 그것이 지금도 유효하게 지원제도에 머물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다. 다원예술

에 포괄되는 종 다양성이 담보될 수 있는 환경이 왜 이렇게 쉽게 무너지는지 규정할 수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것이 왜 유지되어야 하는지 우리 같이 고민해보고 이야기해봐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다원이라 읽고 생태계라 말합니다.

다원예술 지원정책의 시작은 서울프린지페스티벌의 모습과 다소 비슷하다. 규정할 수 없는, 경계 밖의, 창작자가 호명하고 있는 예술 활동의 모든 것 나타내는 것으로 현장의 창작자들과 공유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말한다. 2006년 다원예술소위원회도 이처럼 정의 내렸다. "장르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다양한 예술적 가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예술창작활동"[1)]

2016년 축제 첫해, 내가 그동안 봐왔던 축제가 아닌 모습에 다소 낯설고 어려웠다. 특히 기존의 광활한 들판에 화려한 무대가 아닌.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만난 축제는 그동안의 웅장하고 위엄 있는 극장과 갤러리를 탈피하여 공간에 또 다른 성격을 만들었다. 화장실, 의무실, 관중석, 통로 등 곳곳을 활용하여 각양각색의 공연을 펼쳐졌다. 문화비축기지라는 공간을 옮겨서도 예술가들이 적극적으로 공간 발굴, 실험하면서 무대를 만들어갔다. 봄을 지나 가장 폭발적인 에너지를 쏟아내는 여름 축제로 닿아가기 위해 수많은 예술가, 인디스트(자원활동가), 사무국스텝, 관계자, 관객 모두가 축제의 시작과 끝을 경험하면서 작품에 대해 현재에 대해 고민을 자연스럽게 주고받았다. 공연과 더불어 당해 연도마다 주제를 선정하여 포럼, 집담회, 라운드테이블이라는 이름으로 때로는 원론적으로 접근하기도, 때로는 현재 상태를 확인하고 성찰하기도 그리고 아픈 시간을 살펴보면서 방법을 찾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담론을 확산시키기도 했다. 시간이 흘러 오가던 이야기는, 글이, 예술가의 작품이 차곡차곡 쌓였다. 어느 하나 유명한 작품은 없어도 다양한 이름의 극단, 프로젝트그룹, 1인 예술가가 자신만의 작품 세계를 펼치기에 바빴다. 축제의 장소는 다양해지고 생각들은 넓어지면서 더 많은 새로운 관객들을 만나고 익숙한 듯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기도 했다. 그렇게 생태계가 단단해져 가는 것을 느꼈다.

홍보팀으로 있으면서 익숙했다. 프로그램북에 정리되지 않은, 때로는 이해 불가능한 글들이 80개가 쌓여가는 것이. 모호했다. 장르가 나뉘기도 장르가 합쳐지기도 하며 새로운 이름으로 나열되었다. 사실 어느 순간부터 이것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쉽게 편하게 우리가 정리된 언어가 예술가에게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음을 말이다. 그 자체가 온전히 관객들에게 전달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이다. 그리고 그 중간매개자로 축제와 플랫폼이 가장 잘 전달될 수

1) 김준기 〈다원예술의 탄생과 진화〉 발제문 일부 발췌, 2020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했다.

2016년 지원서에는 체크박스 옆에 다원예술이 없었다. 아직 신입이었던 나는 주변의 동료들이 대표님이 나눴던 이야기를 잘 알지 못했다. 시간이 흘러 뉴스를 통해서 서울프린지네트워크의 이름 온갖 뉴스에 올라왔다. 우리는 좌절했고 그 상흔의 흔적은 남아있다. 무리하게 빚을 내가면서 축제를 밀어붙였고 우리는 그 빚을 매년 갚아가고 있다. 아직 회복되진 않았지만 조금씩 움직일 수 있는 자체적인 힘이 생기고 동료들이 도왔다. 2019년 겨울, 우리는 다시 일어섰다. 알았지만 제대로 알지 못했던 여러 시간 경위를 들으면서 블랙리스트에 대해 공부하시 시작했다. 그러면서 서서히 짙어졌다. 그리고 지금의 토론 자리가 더욱더 선명하게 만들었다. 다원예술 체크박스의 의미를 말이다. 단순히 장르를 하나 삭제한 것이 아니었다. 블랙리스트로 인해 생태계가 무너졌음을 의미했다.

축제의 하나하나 조각들을 경험하면서 내가 살아온 지금의 시간이 어떠한 생태계를 만들고자 노력했는지 왜 지금 내 옆의 동료가 뛰어놀 수 있는 무대가 필요한지 나는 축제를 통해서 몸으로 감각할 수 있었다.

제언 : 다원예술 지원 사업 복원에 있어서…

 # 해결되지 않은 블랙리스트

2006년과 지금 2021년 다원예술 지원제도가 꾸준했다면 생태계는 어떻게 달라졌을까? 2015년 사업이 폐지되지 않았다면 예술축제가 더 다양하고 새로운 동료들이 많이 생겨나지 않았을까? 라는 희망 고문을 해본다. 블랙리스트는 해결되지 않았다. 현재진행형으로 또 다른 의혹들이 생겨나는 경우도 종종 본다. 사업을 탄생하는 절차와 내용에 있어서 더욱더 유념하고 고려해야 하는 지점도 많겠지만 가장 크게는 투명한 심의제도가 만들어지길 바란다. 심사위원 구성부터 기존 심의 절차에 대한 방법적인 부분도 고려해봐야 할 것이다. 더불어 민간예술단체 및 예술가들이 꾸준하게 블랙리스트에 대해 말하고 있다. 상흔을 안고 기억하고 기록하면서 재발방지를 위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를 위해서 문화예술위원회의 꾸준한 협조가 필요하다. 이야기자리, 프로젝트 등 방법적으로는 무수히 많겠지만 어떠한 방식이든 간에 민간주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지속해서' 협조할 방법을 강구하길 바란다.

 # 담론의 장 확산과 아카이브

다원예술 복원에 있어서 담론의 장이 주기적으로 생겨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거시적 관점에서의 토론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 생산적이고 실천적인 토론과 행동이 필요할 때이다. 2006년 다원예술소위원회의 시작점을 살펴봤을 때 민간예술가와 단체와의 협력이 가장 눈에

띄었다. 파트너가 되어 함께 이야기 할 수 있는 서로에게 든든한 동료가 있다는 사실이 다원예술을 단단하게 만들 수 있었던 토대였을 것이다. 그것이 무너진 현재, 이를 복원하기 위해서 세대를 막론하고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하다. 빠르고 쉽게 가지는 않겠지만 그만큼 여러 번 살펴보고 다져보는 시간이 있었으면 한다.

또한 앞으로 미시적인 차원에서 현장의 주체들의 언어가 기록되는 것과 연구를 통해서 다원예술에 대한 새로운 정의와 가치를 담을 수 있는 자료들이 쌓였으면 한다. 2008년 안정희, 「다원예술 현황 및 활성화 방안 연구 : 서울프린지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다원예술 창작현황 연구」, 2010년 안진주, 「다원예술의 예술지형에 대한 파급 효과」, 2013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다원예술 현황과 전망보고서」 등 손에 꼽을 정도로 자료가 없었으며 현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내 자료 검색이 되지 않아 보는 것조차 힘든 상황이다. 그만큼 생태계에 대한 관심이 부재하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앞으로 많은 것들이 보강되어야 하고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다원이 가진 발전 가능성을 본다면 기대를 할 수 있는 지점이 많다고 본다.

다원은 시대와 상황에 맞게 정의하고 해석해서 만들어가는 것
단일된 규정과 틀에 가두지 않는다는 것

그동안 익숙하게 정의된 틀에 우리를 비집고 넣었다면, 현장의 목소리가 모여 지금의 '다원'을 다시 살펴보고 뒤집어도 보면서 현재성에 맞는 다원을 정의해보는 것이다. 이것 또한 우리에게는 새로운 시도이자 도전일 수 있으면 새롭게 상상해볼 수 있는 시간이 가능할 수 있다는 지점이 흥미롭다. 또다시 지금의 '다원'을 정의해보고 우리가 다시 만들어갈 생태계에 대한 기대로 이 글을 마무리한다.

종합토론

박경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김준기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실장
정진세 극단 문 대표
임인자 서울변방연극제 전 예술감독
남하나 서울프린지네트워크 사무국 총괄
정윤희 문화민주주의 실천연대 공동운영위원장

사회 박경주

포럼 2부를 진행하겠습니다. 앞서 1부에서 발제하신 세 분의 발제자분과 추가로 토론자로 참여하시는 두 분이 계십니다. 2부 순서 함께하실 분들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정윤희 문화민주주의 실천연대 공동운영위원장님 토론자로 와 계십니다. 남하나 서울프린지네트워크 사무국 총괄님이 토론자로 참여하시겠습니다. 여기까지 새로 토론자로 참여하신 두 분 소개해 드렸고요. 조금 전에 발제해 주신 임인자 서울변방연극제 전 예술감독님, 정진세 극단 문 대표님, 김준기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실장님 토론 이어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문화예술위원회 유튜브 채널, 네이버TV, 페이스북 3개 채널 통해서 라이브 나가고 있는데요. 사전 질문 포함해서 온라인에서도 여러 가지 질문을 해 주셔서 토론 중에 그 부분도 같이 다뤄보려고 합니다. 질문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계신 방청객분들도 마찬가지로 질문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1부에서 발제했던 내용에 대해서 정윤희 문화민주주의 실천연대 공동위원장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는지 의견 먼저 들어 보도록 할게요.

정윤희

안녕하세요. 정윤희라고 합니다. 저는 미술 작가고요. 앞서 김준기 선생님, 정진세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다원예술의 활동과 그간의 변화들을 경험하면서, 창작 활동을 이어 온 작가입니다.

임인자 선생님께서 잘 밝혀 주셨는데, 다원예술 지원사업이 폐지됐던 이유는 딱 한 줄로 2015년 예술진흥본부장이었던 이○○ 본부장님께서 진술하신 거죠. '2016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영계획안에서 다원예술지원, 우수문예지지원사업, 공연예술단체 대관료지원사업 등이 폐지 또는 축소된 것은 블랙리스트가 해당 사업에서 너무 많았기 때문이다.' 앞서 발제를 들으셨던 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다원예술 지원사업이 복원된다는 것은 블랙리스트로 인해 이 지원사업이 폐지되면서 피해를 입은 예술가들을 회복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원예술 지원사업은 블랙리스트로 인해 폐지되었고 이것이 복원되는 것은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에서 문예위에 권고한 개선 과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문예위의 자발적 의지라기보다는 실제로 책임을 지고 제대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앞서 김준기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다원예술 소위원회가 정책적 실험 등을 통해 변화들을 만들어 나갔고, 정진세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사각지대, 기존 장르의 체계에 포섭되거나 포괄되지 않는 새로운 실험적이고 다양성을 추구하는 예술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곳인데, 이런 부분들이 블랙리스트로 인해서 그냥 사라진다는 것은 기존 제도가 굉장히 취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다원예술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 경계 없는 예술로 표현이 되죠. 경계 없는 예술이라고 하는 건 권위자를 통해서 수직적인 방식들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체들 간의 수평적 관계 속에서 민주적인 방식으로 결정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심사 제도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실제로 문예위와 관련된 여타의 지원사업들과 관련돼서 불만들을 얘기하다 보면 대부분 지원 심사에 대한 문제를 얘기합니다. 이건 2014년, 15년, 16년까지 이루어졌던 블랙리스트 사건에서 더 심각하게 가시화되었지만 실제로 지금까지도 지원 심사라고 하는 것들, 지원제도라고 하는 것들이 공정성, 개방성, 투명성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인식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다원예술 정책이 이제 시작되는데, 만들어질 때 예술 현장의 의견들을 제도적으로 반영하는 데 초점을 두고 진행해 보고 문제점이 발생됐을 때 이것들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제 의견을 마칩니다.

사회 박경주

이어서 남하나 서울프린지네트워크 사무국 총괄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남하나

안녕하세요. 남하나라고 합니다. 오늘 현장에서 같이 축제를 참여하고 만나 봤던 동료들이 많아서 조금 더 힘이 되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앞서 저희 프린지가 많이 언급됐는데요. 프린지가 시작한 출발점과 저희 다원예술의 출발점이 같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독립예술제를 시작으로 권위적인 예술을 탈피하고 예술가 스스로가 예술을 할 수 있는 장을 만드는 게 프린지페스티벌의 가장 큰 취지인데요. 저희가 지향하는 이 가치가 2015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인해서 많이 좌절되는 경험을 했습니

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단순히 사업이 없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이 생태계가 무너졌다는 것이고, 저희와 함께했던 예술가들의 장이 없어진다는 것을 같이 많이 분개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블랙리스트를 직접 경험한 당사자이고 당사자와 같이 지켜보았던 입장에서, 지원 제도 안에 체크 박스 하나 없는 것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실히 느꼈고요. 한 해 한 해 지나면서 저희 예술가들이 규정할 수 없고 말하지 못할 수 있는, 그리고 탈 장르를 넘어 다양하게 이야기될 수 있는 판들이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축제, 그리고 동료의 축제들이 얼마나 힘든 시기를 겪었는지를 더욱더 체감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의 자리가 다원예술을 어떻게 규정하고 이야기한다기보다는 이 생태계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지향점들을 더 많이 얘기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정윤희 선생님도 말씀하셨듯이 다원예술이 취약하게 된 계기들에 대해서 한 번 되짚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프린지에서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많은 준비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단순히 지나간 사건의 블랙리스트가 아닌 현재 진행형으로 왜 지금 그리고 앞으로도 다시 계속 얘기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더 많은 분들이, 그리고 현 시대를 같이 살아가는 청년 예술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분들이 더 공감하고 얘기 나누는 자리이기를 바랍니다.

사회 박경주

다음으로 발제해 주셨던 분들도 추가로 의견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의견 주실 분 있으시면 자유롭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준기

저는 오늘 임인자 선생님 발표를 듣다가 사실 좀 깜짝 놀랐습니다. 제 이름이 저 리스트에 있는 걸 오늘 처음 알게 됐네요. 이름이 김준규로 나왔습니다. 김준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아닌가 보네요.

사실 이 대목이 참 묘합니다. 저는 한나라당 산하의 기관, 부산시립미술관, 대전시립미술관, 제주도립미술관에서 큐레이터, 학예실장, 관장으로 일했기 때문에 딱히 제가 블랙리스트에 있을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이하 작가의 작품을 대전시립미술관의 액티비스트 아티스트들의 작품을 모은 소셜아트 전시회에 이하 작가의 작품을 출품했는데, 디스플레이 과정에서 (학예실

장은 디스플레이 현장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담당 큐레이터하고 조율하는 과정에 현직 대통령 얼굴이 드러나는 작품, 그것도 법정에서 선거법 문제로 계류되어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이것을 처리하는 과정에 큐레이터하고 작가가 협의를 했겠죠. 그래서 작가가 스스로 작품 이미지 위에다가 A4 용지를 덮어서 '미안하지만 사정상 이미지를 보여 줄 수 없습니다'라고 종이로 스스로 덮어서 처리하는, 일종의 유머 코드로 넘어갔습니다. 현장에서는 전시를 디스플레이를 할지 말지를 두고 서로 협의를 하게 되죠. 디스플레이된 상태에서라면 몰라도 디스플레이를 위해서 그렇게 협의한 것은 종종 벌어지는 일입니다. 워낙 어려운 시대였으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시민이 발견했고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작가 작품을 가리냐고 미술관 너무 심한 것 아니냐'고 언론에 기사가 났습니다. 그 기사를 청와대에서 보고 거꾸로 조사가 내려와서 '어떻게 된 거냐' 소동이 벌어졌는데, 이제 그렇게 지나간 듯하였으나 나중에 블랙리스트 조사 위원회에서 저를 불렀습니다. '뭐 이런 일이 있었는데 뭐 어떠냐? 피해 본 건 없냐?', '저는 피해 본 건 없습니다. 괜찮았습니다.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점점 이상하게 흘러가는 거죠. 블랙리스트를 조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분명히 이 사건의 피해자가 있으니 가해자가 나와야 되는 거죠. 이하라는 작가가 피해를 봤다라고 피해자성으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요. '제가 피해 본 것 없습니다'라는 말 뒤에 나중에는 점점점 내가 가해자일 의도가 없었음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형편으로까지 인터뷰가 쭉 흘렀는데, 아마 나중에 저에게 소명의 여지가 있었으나 제가 개의치 않고 그냥 넘어갔더니 뭔가 개운치 않은 뒷맛이 있는 걸로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직접 보지는 못했고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보니 분명히 적시해서 대전시립미술관 학예실장 김준규를 관리를 했군요. 관리당했다는 것에 대해서 일견 분노가 먼저 일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저처럼 기관에서 일하는 사람, 그러니까 예술위원회에서 일했던 사람, 지금 여기 계신 다원예술에 관계된 많은 분들에게 상처를 줬고 결과론적으로 상처를 주었던 그 많은 분들이 혹여 저와 같은 마음을 가진 분이 있지 않을까.

제가 사실은 엊그저께 예술위원회 사무처 관계자와 전화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당시의 정황이 어땠고, 그 이후에 어땠느냐?' 솔직한 심정으로 제가 그 워딩을 그대로 옮겨 쓸게요. 익명이니까 괜찮을 것 같습니다. '더럽혀졌다', 더럽혀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연히 임인자 선생님 발제를 통해서 알게 된 김준규라고 하는, 2014년, 2015년 대전시립미술관에서 공무원 노릇을 하고 있었던 제가 겪어야 했던 그 과정, 이하라는 작가의 액티비스트 예술 행동을 소셜아트 관점에서 전시에 올리고 싶었던 저의 생각과 그것이 당시 정황 속에서 왜곡되고 사건화되고 공론장에서 갈등을 빚었던 그 사건들이, 어쩌면 예술위원회 사무처에서 일하는 많은 분들에게도 있을 법한 일이지 않을까? 그리고 그보다 앞서 현장에서 예술 활동을 하는 이하와 같은 사람들, 또 다원예술의 오성화, 임인자, 김연호 선생님, 이런 많은 분들에게 투영된 한 시대의

어려움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연히 그 정보를 보고 착잡한 생각이 들고요.

오늘 위원장님이 제일 먼저 말씀해 주셨고, 발제자들, 특히 임인자 선생님이 어렵게 우리의 아픈 과정들을 공유했습니다. 오늘 이 토론 자리가 모든 분들에게, 피해의 입장에 서서 어려움과 고통을 겪어왔던 분들, 그리고 또 말할 수 없이 가해자의 입장에 서서 지금도 고통스러워하실 모든 분들에게 치유로 나아가는 하나의 과정이기를 바라는 마음을 밝힙니다. 이상입니다.

사회 박경주

조금 전에 정윤희 공동운영위원장님과 남하나 사무국 총괄님이 주신 내용을 토대로 해서요. 정윤희 공동위원장님 말씀이 '지금 다원예술 지원사업이 복원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냐? 그것은 예술가들을 회복시키는 의미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이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 마침 사전 질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왜 다시 다원인가요? 이전에 논의하던 다원과 현재의 문화예술계에서 진행되는 다원예술 간의 변화가 있었을 것 같은데, 현재 다원은 지역 세대 경험 등에 따라 어떻게 읽히고 있다고 생각하며 어떻게 이해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여러 가지 질문 주셨는데 저는 일단 이 질문에서는 '왜 다시 다원인가요?'를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보면 어떨까 생각해요. 사실 안타깝게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사업 자체가 폐지되긴 했지만 왜 그럼 다시 우리가 다원을 복원시켜야 되는지, 왜 '다원이'를 다시 불러서 우리 옆에 세워야 하는지, 그 의미에 대해서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혹시 먼저 이 의미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분이 계실까요?

정윤희

사실 아르코의 다원예술 지원이 폐지되면서 다원예술 하는 예술가들이 지역문화재단을 통해서 지원받거나 혹은 유사한 여타의 공공기관에서 하는 사업들을 쪼개서 받아 왔었죠. 그런 과정 중에 갈등이 있다고 봅니다. '이게 다원이야? 아니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질문에서도 보면 '다원의 정의라는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들이 있는 거죠. 저는 다원예술이 왜 아르코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현시점에서 봤을 때 기존의 장르별 구분, 장르에 충실하게 창작행위를 해 가는 예술가들이 있는 반면에요. 기술적인 조건들 혹은 사회적인 이슈들, 사회적인 문제가 더 가시화되고 이를 해결함에 있어서, 예술이라는 것이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문제들을 해결하거나 그 관계 속에서 담론이나 이론들을 생산해 가는 역할, 그런 새로운 실천이라고 하면, 그런 새로운 실천들을 받아 줄 수 있는 지원이 과연 어디일지 생각하면 다원예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다원예술이라고 하는 장르에 대한 정책적인 정의는 새로운 장르에 대한 접근과 다원적인 의미를, 예술적 가치들을 생산하는 예술이라고 보거든요. 굉장히 포괄적이죠.

그 포괄적인 의미들을 예술계에서 '다원예술이 뭐야?'라고 하면서 정의를 내리면서 좁혀가는 건, 예술이 가진 실험성, 전위성이라는 것을 공적 지원과 연결했을 때, 공적 지원 제도에 대해서 사실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들을 좁히는 행위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아르코에서는 정책혁신소위에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활동할 내용은 지금 예술의 현재성이라는 것을 연구하면서 이것들은 정책적으로 반영시켜 가려고 합니다. 청년 예술가들, 젊은 세대의 예술가들이 취하는 방식은요. 프린지네트워크의 활동도 그렇고, 지금 옆에 남하나 선생님만 봐도 화가, 시각예술가이면서 기획도 하면서 다 장르 간의 활동들을 만들어가고 있죠. 그리고 프린지네트워크에서 겪었던 국가 폭력인 블랙리스트, 그 본질적인 내용은 수직적이고 일방적인 관료 체제가 작동했기 때문에, 예술적 가치를 보전하고 가치를 지원하고 했던 행정 주체들이 자신들의 가치 실현이나 성과를 놓아버린 셈이 된 거거든요. 그 관료 체제의 문제가 실제로 변하지 않으면 예술 지원에서 예술가들은 계속 구획되어진 사업지원 속에서 거기에 맞춰서, 마치 어떤 지원금 사냥꾼처럼 변해 갈 수밖에 없는 것을 청년 예술가들 활동들을 보면서 느껴요.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기초예술연대를 통해서 시작했다면, 아르코가 지향하는 관점과 운영 원리라는 것이 있고, 그 운영 원리를 실현해 보는 테스트 베드나 정책적 실험이 다원예술이라고 본다면요. 앞으로 아르코가 지향하는 것이 단순하게 기술적 융합을 통한 지원, 혹은 기후위기를 섹션화한 지원이 아니라, 각종 의제나 세대, 지역, 젠더, 이런 여러 의제들을 실제 기존의 예술 지원 구조에서는 지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다원예술로 지원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좀 더 얘기해 볼게요. 제가 그냥 제가 혼자 생각해 봤는데요. 투 트랙 정도를 생각했어요. 기존에 왕성하게, 예술가들의 플랫폼, 예술가들의 실험적인 활동들을 지원해 줬던 '플랫폼 위의 플랫폼'이라고 표현했던 '프린지네트워크'라든가 '변방예술제'라든가 '아이공 미디어페스티벌'이라든가는 기존에 수년간 쌓아 왔던 경험이 굉장히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 단체가 커지기보다는 예술계가 더 풍성해지고 활발해지기 위한 활동들을 지속해 왔기 때문에, 그런 곳들 같은 경우는 공적 재원을 어떻게 평등하게 배분해서 그것들을 잘 나눌 것이냐는 심사지원에서 심사위원을 통한 선정 과정보다는, 그 경험들이 축적되고 인적 네트워크, 예술가 네트워크가 형성된 그런 장에서는 공적 재원을 평등하게 배분해서 쓰는 것들을 고민해 보는 것. 또 한 축으로는 (여러 질문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새로운 예술 혹은 기존 제도에서 포섭하지 못하는 예술이라고 하는 활동들을 발굴해 내고, 그런 예술에 대한 현시점에서의 동시대성, 담론 등을 조명해 주고, 그런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주체들을 연결해 주고 발굴할 수 있는 사업. 저는 그렇게 두 가지로 섹션을 나눠서 상상해 봤습니다.

사회 박경주

아주 좋은 제안입니다. 특히 첫 번째 말씀하신 플랫폼에 대한 지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다원예술 지원사업 설계할 때 회의하면서 이미 초반에 나왔던 얘기예요. 사실 다원예술 분야에서 오랫동안 축제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축제 운영의 공적 지원금이라는 게 쓸 수 있는 용도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 사실 축제를 운영하시는 운영 주체들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예를 들면 비영리사단법인에서20년 가까이 어떤 축제를 운영을 했는데, 그런 분들이 매년 처음 열리는 축제와 똑같이 시스템 속에서 과정을 반복해야 한다면 오히려 공정하지 못한 게 아닌가라는 걸 저희가 초반에 이야기했기 때문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후에 충분히 논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답변을 드리자면, 좋은 제안이시고요.

두 번째 새로운 예술 지원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하신 의제나 세대나 지역이나 젠더별, 소수자들의 문제나 여러 가지 저희가 발굴해야 될 사회적 의제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한 가지로 정해지기보다는 다양한 새로운 예술, 방향성을 가진 것들이 기존의 장르들이나 장에 포섭되지 않은 초기에 발굴하고 성장시켜서 메인스트림에 보내서 성공시켜야죠. 저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메인스트림이 바뀌지 않으면 예술 장 자체가 바뀔 수 없기 때문에요. 특히 한국의 경우는 문화예술도 어떻게 보면 정치 권력화되어 있고, 또 학계, 학연 등도 많이 연결되어 있는데요. 다원예술은 민주적인 것들을 좋아하는 분들, 또 새로운 걸 시도하려는 분들이 많이 오시는 분야, 그런 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발굴해서 키워서 주류로 진입할 수 있는 단계를 만들어주는 것이 문화예술위원회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저도 생각됩니다. 좋은 제안이신 것 같고요.

임인자 감독님 이어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임인자

아까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말씀드린 것 중에 변화된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는 폐지도 있지만, 폐지하면서 기획사업 형식으로 바뀐 것에도 있습니다. 그 의미는 예술위원회에서 예술을 통제하겠다는 의미이죠. 다원예술지원 분야의 가장 중요한 점은 통제하지 않고 예술위원회가 스스로 뭔가 정의 내리지 않는 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공공예술에 대한 부분들도 있었고 거리예술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융복합이라든지 많은 부분들이 예술가들이 자유롭게 상상하고 실험했던 것들이 이제 다른 장르로 분화해 가고 있거든요. 예술위원회 다원예술은 스스로 또 다른 계속적인 예술을 만들어가는 데 중요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원예술이 무엇이냐 하는 그 정의에 앞서, 내가 하고 있는 활동이나 내가 질문하는 게 뭔가 먼저 질문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또 아까 통제를 위한 굉장히 많은 각종 자료들을 보여드렸는데요. 지금 또 한 가지 문제는요. 얼마 전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잖아요. 그 판결에서 이런 행위를 공무원들의 일상적인 일로 정의 내렸다는 점이 아주 큰 문제입니다. 지금 다시 2심으로 내려가서 재판을 하고 있는데, 저는 예술위원회에서 얼마나 국가에 의해서 통제를 받았는지 반드시 의견서를 제출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2심 재판에서 예술위원회 직원분 중 한 분이 판사가 '이런 일들이 그전에도 있었냐?'라는 말에 '네'라고 대답을 했거든요. 그런데 정말 예술위원회에서 이런 일들이 그전에도 있었다면 조사를 해야 되는 문제이고, 예술위원회의 독립성을 아주 심각하게 훼손한 일입니다. 아까처럼 1월 15일, 1월 22일, 이런 식으로 일주일 간격으로 문체부에 심사 현황을 보고하고 제출하는 일은, 저는 예술위원회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 그 문제에 대해서 예술위원회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않고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저는 앞으로 국가에서 이런 폭력들을 행사할 때 이것이 일상적인 일로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반드시 요청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준기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작품에 종이를 덮은 건 저는 검열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전시된 지는 모르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꼭 이야기하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작년에 예술위원회에 처음으로 가게 됐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에 다원예술에 대한 논의를 하는 자리에 한 번 더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예술위원회에 계신 분께서 '특정한 장르들에 지금은 실험의 과정들이 지원되고 있는데 그러면 다원예술은 무엇을 해야 되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런 관점은 이렇게 통제적으로 된 예술위에 다시 한 번 '역할이 뭐냐?' 이렇게 묻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가 다원예술을 복원한다는 게 다원예술을 정의하자는 게 아니라 다원예술을 새롭게 정의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바로 그 요구거든요. 그것을 강조해서 말하고 싶습니다.

사회 박경주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저희 직원분의 답변과 관련해서 저는 문예위에 일한 지 얼마 안 되지만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밖에서 있을 때와 안에 들어왔을 때는 굉장히 다른 걸 보게 되더라고요. 비공개이지만 저희가 간부급 직원들과 온라인으로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서 논의한 적이 있는데, 제가 그때 집으로 가면서 느꼈던 건요. 물론 자신의 실수는 있죠. 그런데 엄연하게 따져보면 국가 폭력에 의한 결과물로써의 블랙리스트라는 것을 또 많이 확인했어요. 저희가 직원들과 의논해서 요청하신 의견서를 낼 수 있는지 없는지보다는요.

저는 요즘에 직원들이랑 대화를 나누고 싶더라고요. 왜냐면 이 직원들도 그 과정 속에서 분명히 고통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거기에 관여하지 않는, 목소리를 내지 않는 직원들도 계시

거든요. 저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문화예술위원회가 다시는 이런 국가 폭력에 노출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 (예술가의 가장 중요한 거죠) 저희는 그런 걸 지켜줘야 될 파트너잖아요. 그런데 직원들이 만약 업무상의 그런 어려움이 있다면 저희가 마음을 열고 같이 내부적으로도 논의를 해서 같이 해결해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아울러서 이제 다시는 이런 폭력의 상황에 예술가는 물론 지원단체인 저희 기관의 직원들도 노출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에 대한 대안이 저희 조직 자체에도 마련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위원회의 7기 위원님들 모두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발전적으로 생각하고 계시고, 위원장님과 저희 직원들도 다 동의하는 선에서 토론하고 논의하는 공론의 장을 만들고 싶고요. 그렇게 저도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른 분 혹시 또 의견 있으신가요?

남하나

아까 질문에서 '다시 다원'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그 말 그대로 저희 프린지는 축제를 기반으로 활동을 하고, 플랫폼의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프린지 아니고도 다른 축제라든지 다른 매개 공간들, 같이 활동하는 그룹들이 있을 텐데요. 이런 플랫폼과 플랫폼의 연결이 조금 더 확대되어야 된다는 생각에 많이 동의하고요. 개별 예술가가 움직이는 힘보다는 이들이 뭉칠 수 있는 발판, 그게 플랫폼 안에서 잘 구조화되면 그것을 바탕으로 다원예술이 활성화되고, 다시 다원이 복원돼야 된다는 것에 큰 의의를 두는 것 같아요.

특히나 축제는 단순히 향유의 문화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생태계를 같이 만들어가는 예술가가 있겠고 창작자가 있겠고, 그 안에 관계자와 저희가 동료이자 파트너라고 생각하는 행정가들도 같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함께 이 플랫폼과 예술의 생태계를 얼마나 더 선순환적으로 만들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되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하고요.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고 질문들에서도 많이 반복적으로 얘기 나오지만, 다원이란 예술이 어떤 한 장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의 지원사업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만들어져 구조화되어야 하고, 이것이 앞으로 단기적으로 누군가의 수혜로서의 지원사업이 아닌 생태계 전반에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좀 더 탄탄해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게 앞으로 저희가 더 많이 고민해야 되는 지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 박경주

저희가 '왜 다시 다원인가?'에서 시작했는데요. 그러면 또 이 자리에서 절대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주제로 넘어가 보면 어떨까 생각해요. '다원예술이 과연 무엇인가?' 사전 질의에 보면 '다원예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최근 다원예술에 대한 정의와 의의가 단순 장르 융합형, 과학기술 기반 공연으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다원예술이 하나의 독립된 장르가 될 수 있을까요? 다원의 정의와 범위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고 정의할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라는 사전 질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논의해 보면 어떨까 제안 드립니다.

정진세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원제도 안에서 가장 신선한 충격을 받았던 게 다원예술 파트에서 낙선포럼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낙선포럼은 그 해 지원에서 선정되신 분이 아니라 선정되지 못한 예술가분들과 (이를테면 심사위원이 될 수도 있고 다원예술소위 위원이 될 수도 있는데) 이야기를 나눴어요. 저는 낙선포럼이 있었다는 얘기만 들었는데요.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죠. 다원예술 지원사업에 선정이 됐다고 해서 다원예술인 것인지 아닌지 모르는 것이고, 그리고 선정되지 않고 탈락됐다고 해서 그 예술이 다원예술이 아닌 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정 여부와 탈락 여부와 상관없이 다원예술이라는 지원사업의 카테고리를 보고 자기가 이를테면 스스로 사각지대에 놓인 예술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장르의 교차성이라든지 경계성을 강하게 느끼는, 필요를 느끼는 예술가들이 자신이 하고 있는 활동을 다원으로 규정짓는다면 저는 그게 다원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의는 이미 지원사업 항목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려졌다고 생각은 드는데요. 다원예술 지원에 있어서 선정의 합의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은 공감합니다. 그런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선정이 됐다고 해서 완벽한 다원예술이고 탈락했다고 해서 다원예술이 아니라는 관점에서 벗어나서, 이를테면 낙선포럼을 했다는 것은 끊임없이 다원예술이 뭔지에 대해서 탈락한 사람도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인식 자체를 좀 확대해 보면 문화예술위원회뿐만 아니라 한국의 예술지원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방향성이나 질문을 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원제도에 선정이 되고 떨어졌고 그런 문제를 떠나서 우리가 우리의 예술을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런 논의 자리 자체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원예술 어떤 분야이기 때문에 낙선포럼 같은 것도 가능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아마 듣고 싶은 답변이 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쩌면 아르코가 8년이 되었던 다원예술지원 분야에서 10년째를 맞이하면서 했어야 되는 일이 (이를테면 2015년, 2016년에 다원예술을 폐지할 게 아니라) 다원예술이 10년 동안 어떤 걸 했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궁금

해하는 그 다원예술을 한 시점에서 중간 점검 차원에서 정의도 내렸어야 되고, 아예 시작을 다원예술로 정한 예술가들에게 지표가 될 수 있는 학술적인 자료 같은 것들이 나왔어야 되는데요.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사업 자체를 폐지하게 되는, 그러니까 지금 다원예술계에서 요구되는 미션들을 전혀 하지 않고 그 사업 자체를 아예 제로화하고 리셋한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제가 상상했을 때 아주 안타까웠던 지점들은 바로 이런 것이고요.

다원예술이 뭔가에 대한 논의는 8년이라도 좋고 지금 2021년 이 시점도 좋은데, 그간 우리 예술계가 쌓아왔던 중간 점검들은 계속 이를테면 낙선포럼의 형식으로 계속 갱신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다음 해, 그다음 해 예술가들은 그 전년도의 개념을 가지고 또 치열하게 싸우고 새로운 것들을 제시하는 쌓아 나가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복원의 의미는 그런 빈 여백까지도 아울러서 사고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어떤 문제를 다원예술에 내가 포함이 되냐, 안 되냐고 보시기보다는, 아까의 표현대로 말씀을 드리면 '왠지 내가 이 다원예술지원 트랙을 통해서 내가 어떤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면 아마 그것이 다원예술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 박경주

지금 현장에 와 계신 현장 참여자분들께서 얘기를 하고 싶어 하십니다. 마이크를 전달해 볼게요. 먼저 앞줄에 계신 아이공 김장연호 대표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고 싶다고 하십니다.

김장연호

안녕하세요. 앞에 발제에 저희 단체도 여러 번 나오고, 실제로 '서울국제뉴미디어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블랙리스트 사건을 경험하면서 예산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없어서 거의 노마드처럼 예산을 구걸하면서 돌아다니는데 정말로 아주 힘들었고, 지금도 그런 힘든 과정을 겪고 있고요. 지금도 정체성이 모호하다는 이유로요. 그래서 저희가 영화제 쪽에서 지원을 받는 것을 모색하면서 그쪽이 갖고있는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그쪽에서 봤을 때는 여전히 저희는 정체성이 모호하다는 평가를 계속 받으면서 저희가 받았던 예산에 또 50% 감액을 당했어요. 그 이유는 저희가 갖고 있는 행사의 정체성이 모호하다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대안영상예술이라는 행사명까지 변경하면서 작년에 그런 사태까지 발생했거든요. 저희가 뉴미디어페스티벌이라고 하는 행사명을 바꿨을 때는 뉴미디어가 가져다주는 새로운 상상, 새로운 쓰임에 계속 주목하고, 그 안에서 나오는 다양한 감수성,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듣겠다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었던 뉴미디어였는데, 이게 사회적 정의가 다르다는 이유로 저희가 계속 예산 감액이 된 거예요. 정체성이 모호하다는 이유로. 그래서 작년에 내부에서 결심을 하고 서울국제대안영상예술페스티벌로 바꿨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자의적인 용어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또 계속 예산감액을 당하는 상황. 21년이나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지금 방황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발을 디디지 못하고.

올해의 예술상을 받게 되면서 드디어 저는 다원예술이 우리가 갖고 있는 예술가들의 작업들이 인정을 받는 분야, 그리고 그런 벗들이 생겼구나 생각을 하고, 그 당시에 너무 행복하고 감격이 넘쳐서 상을 받았었을 때 울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도 투 트랙인데 저는 다른 식의 투 트랙을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시대가 지나가면 기술적인 변화에 의해서 예술의 방향들이 새롭게 계속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문예위에서 융복합사업이라는 게 계속 나오고 있고, 온라인미디어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 모든 사업들이 다원예술 안에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원예술 지원사업은 맨 처음에 그런 예술들을 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다원예술 안에 현재 만들어진 융복합도 포함돼야 되고요. 융복합이라는 지원사업은 사실 기술 매체에 대한 측면들만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술은 기술적인 측면의 발전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절대 아니거든요. 그렇게 되면 AI가 나왔던 이루다 사건처럼 어떻게 보면 기술 매체들은 어느 누군가를 계속 타자화하고 어느 누군가를 계속 비하하고 혐오하는 식의 문화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다원예술 안에 융복합사업들이 다 포함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원예술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아까 김준기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새 장르라고 하는 공공예술이라는 부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다양한 정체성이거든요. 다중의 정체성이 다원예술을 통해서 다양한 예술의 방향들을 만들어가는 게 사실 다원예술의 궁극적인 취지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원예술지원을 받았던 다양한 행사를 보면요. 키움문화축제도 있었고요. 변방연극제 안에서도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 여성, 인종, 젠더. 얼마 전에 또 젠더에 관련된 두 명이나 너무 안타까운 죽음을 저희가 보게 됐잖아요. 그렇게 다원으로서 우리가 인간은 다중적인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 것이지, 한 가지 정체성을 갖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원예술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정체성이 아니라 다양한 정체성을 이해하고 서로를 환대하는 그런 분위기로 예술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원예술이라는 단어는 그것까지 포함한 거였고, 그렇기 때문에 nemaf (서울국제대안영상예술페스티벌)가 갖고 있는 다중적인 정체성의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지금까지 예술가들한테도 nemaf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이유거든요. 다원예술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예술로 표현되는 것들. 그러면 당연히 말씀하셨던 것처

럼 다양한 예술의 형태들은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어우러지고, 서로 밀가루처럼 반죽도 되고 그 반죽이 떡도 되고 떡국도 되는 그런 식의 문화들이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 박경주

말씀 감사합니다. 다른 참여자분께서도 의견 있으시다고 했는데요. 추가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장수미

안녕하세요. 저는 공연예술가 장수미라고 합니다. 저는 저를 무용수, 안무가, 퍼포머, 교육자, 그리고 예술연구가라고 소개하고 싶어요.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오면서 기대했던 것은 일단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저는 상당히 궁금했었고요.

아까 발제자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다원이 출발했는지, 그 시작 당시의 의도, 이런 부분을 들으면서 상당히 긍정적이고 굉장히 중요하다는 인식을 했어요. 다원이 하나의 장르가 아닌 방향성이고, 어떻게 보면 스타일이고, 어떻게 보면 하고자 하는 어떤 예술가 개인의 의지이자 입맛인데, 그렇다면 이것이 장르가 아닌 어떤 형태로 발전하느냐에 있어서, 그 경계에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혹은 경계를 넘는다는 부분에 대해서 자꾸 재질문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이번에 제가 아르코 2차 창작 지원사업, 특히 창작실험 부분을 보면서 다원이 빠져 있더라고요. 읽다 보니 기초예술분야의 연극, 무용, 이렇게 다 들어가 있었어요. 그렇다면 예술 안에서의 분류, '기초예술'과 '그렇지 않은'이라는 분류, 과연 이렇게 돼야 하는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아까 예로 들었던 정구영 예술가 같은 경우도 해외에서 활동할 때는 안무가로 혹은 무용 컨텍스트 안에서 발표를 하고 있어요.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기존 예술 장르가 변하지 않고서, 거기에 대립되는 또 다른 장르로 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렇게 봤을 때 어떻게 이것을 정의하느냐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예술가들, 또 많은 분들이 좀 알아야 되는데요. 그럴 때 많은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부분들이 생겨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고요. 좀 더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고민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저도 예술가이기 때문에 지원사업에 있어서 예술 정책이 앞으로 어떻게 갈지가 상당히 저는 궁금해요. 특히나 지원과 거기에서 결정되는 과정이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 심사위원들 구성이 기존 장르의 전반적으로 일률적인, 평등한 조합으로 이루어질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다른 방법으로 갈 수 있을 것인지, 특히 예술 분야뿐만이 아닌 사회

와 문화 모든 것을 통괄할 수 있는 분야라면 그 분야의 사람들과 과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을 것인지, 예술가가 예술 정책 관련된 부분 사람들과 어떻게 서로 간에 교육이 가능할지, 저는 그런 부분도 앞으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심사가 끝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심사위원들이 미리 공지되고 미리 만날 수 있는 것.

그리고 다원이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예술가가 결정을 하는 건데, 지원서를 쓰다 보면 구체적, 형식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갇혀지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이것이 더 넓어져서 예술가가 자기가 직접 장르를 결정할 수 있는, 방향성을 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는 건지. 그렇다면 그것을 심사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또 그에 따른 배려도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다원이 다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소위 기존 장르들이 더 같이 붕괴될 수 있는, 섞일 수 있는, 교차될 수 있는 방법을 전체적으로 다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자리가 다원에서만 아니라 다른 장르 쪽에서도 같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사회 박경주

너무 좋은 의견들 많이 주셨습니다. 주신 질문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답변을 드리자면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다원예술 올해 사업 구상하면서 계속 저희도 내부적으로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으로, 방금 주신 의견과 그전에 주신 의견들도 사실 우리 모두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이에요. 오늘 주신 내용들은 저희가 모두 다 숙지하고 이것을 더 발전시켜서 고민하도록 노력해 볼 것이고요.

또한 저희가 지금 첫 번째 포럼인데, 다원예술 분야에서 올해 안에 한 번 더 포럼을 기획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또 발전된 내용을 가지고 현장과 공유하는 자리를 꼭 갖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토론하다 보니까 시간이 생각보다 짧네요. 그래도 오늘 이 자리에 발제하고 토론해 주신 토론자분과 발제자분들이 마지막으로 또 하시고 싶은 말씀 정도는 짧게 1분 30초씩 하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김준기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질문 주신 분들 중에서 김사빈이라는 분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예술인증명하려고 했더니 다원예술, 다원공연 작업을 전시로 분류해서 불이익을 받았다거나 인정을 못

받았다. 이런 질문인데요. 이 대목에서 다원예술은 시각예술과 공연예술, 전시와 공연이 섞일 수 있잖아요. 이럴 때 예술노동의 성격에 대해서 한 번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술노동은 두 가지 형태로 표현이 되겠죠. 하나는 용역이고, 하나는 재화입니다. 공연은 주로 용역이고, 전시는 주로 재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공연에서는 일값을 치릅니다. 출연료를 주죠. 전시회에서는 물건값을 치릅니다. 출품료를 주거나 작품 대여료를 지급합니다. 그러니까 재화, 용역으로 표현되는 전시와 공연이 다원예술이라는 이름으로 한 군데 얽히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투여된 예술노동에 대해서 일값을 치르거나 물건값을 치를 때 예술경제 차원에서 한 번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우리 미술관에도 예술인 고용보험 의무 가입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술관에서 전시 출품을 하면 그 준비 기간과 전시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그 예술가를 미술관이 고용하는 형태가 됩니다. 끝나고 나면 고용에서 해제되고 그러면 실업급여를 받게 되는 사이클이 돌아가는데요. 그럴 때도 미술은 특수성이 있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술이라는 예술노동은 일이 아니라 물질, 결과, 재화로 표현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작품을 출품한 사람에게 예술노동에 대한 대가로, 몸이 출연하지 않더라도 작품을 출품했더라도 예술인 고용보험에 해당된다 유권해석을 해서 지금 미술관에서는 그렇게 준비 중입니다.

차제에 이런 예술노동의 차이, 특수성, 그리고 그것들이 서로 얽혔을 때의 문제 등을 예술경제 개념으로, 그러니까 예술노동이 어떻게 화폐로 교환 가치로 치환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정교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마침 예술경영지원센터의 김도일 대표 같은 분은 '예술경영이 아니라 예술경제로 개념 전환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공공연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도 예술을 통해서 이윤을 창출하겠다는 개념, 예술경영이 아니고 예술노동과 그것의 환류, 그래서 예술을 통해서 살림살이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예술경제 개념에 대해서 모두가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 저도 개인적으로 관심 가지고 들여다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림책협회에서 질문 주셨는데요. '그림책도 다원예술인가요?' 당연히 그럴 것 같은데요. 왜냐면 그림책에는 서사와 시각예술, 이야기, 그림, 출판, 이 모든 것이 융복합되어 있고 장르 혼용으로 성립되는 다원예술이 아니겠습니까? 그 답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임인자 선생님이 '그림 덮은 것 검열 맞습니다'라고 단언을 하셔서 제가 이걸 들여다보다가 맥락 없이 그 말씀을 들어서 어떤 맥락인지는 제가 나중에 끝나고 들어보겠지만요. 이하 작가는 그 전시 이후 지금까지 저와 여러 차례 전시를 통해서 계속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사자가 피해자성을 주장해서 저와 의절하고 있거나 그 이후로 작업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당시의 특수한 상황에서 전시장에서 벌어질 수 있는 특수성이 있다, 그것은 비평적으로 접근해서 볼 문제이지, 검열이냐, 아니냐의 큐레이터와 작가의 윤리 문제로 갈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도 저와 관련된 김준규라고 하는 큐레

이터가 명단에 있는 걸 처음 알았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더 성찰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특히 미술관에서 일하고 있는 공인으로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오늘 이 토론 자리에서 나온 여러 어려운 이야기들을 더 성찰해서 저 스스로 큐레이터로서, 평론가로서 창작자와 어떻게 만날지에 대해서 더 고민하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진세

저도 주신 질문에 답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앞서서 그림책 당연히 다원예술이라고 말씀을 주셔서 저도 그것에 동의하고요.

그런데 제가 이런 경험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문학 분야에서 단순히 책을 출판하고 문학적인 성과물을 만드는 프로젝트가 아니라, 수행성을 가지는 프로젝트의 심사를 들어가 본 적이 있는데요. 그때 그림책을 만드시는 분께서 '문학 분야에서 수행성이 요구되는 프로젝트를 기다려 왔다. 그림책 같은 것은 (질문하신 대로) 아동문학과 시각예술 사이에서 소외를 받아왔는데 수행성이 요구되는 프로젝트라는 지원이 열리는 순간 그림책도 호명을 받는다는 느낌이었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이전에 저는 그걸 몰랐다가 사각지대에 놓인 예술가의 당사자적인 발언을 통해서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2005년에 다원예술이 정책 실험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지금 2021년인데요. 어떻게 보면 다원예술이라는 큰 지원사업을 통해서 발굴해야 되고, 발견해야 되는 다원예술가도 있고, 개별 장르에서 수행성이 요구되는, 기존의 연극은 연극해야 되고 무용은 무용해야 되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다른 식의 수행을 통해서만 발견되는 예술가들이 있기 때문에, 각 장르에서도 다원적인 활동들을 눈여겨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다시 이 얘기로 돌아가서, 그럼에도 아마 2020년대 다원예술의 미션에 포함될 것 같은데요. 제가 한국 사회의 예술계 혹은 문화계를 살펴보면 성장해도 돌아갈 '계'가 없고, 지금 너무 힘이 미약해서 씬을 구축하는 것만으로도 버거워하는 분야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아르코의 다원예술은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매개하고, 심사위원들도 그런 것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경험치를 같이 쌓아 나가는 과정으로서의 설계가 필요하지 않을까? 만약에 그런 것 없이 기존의 다원예술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 방식이라면, 이를테면 질문 주신 분들은 여전히 지원은 하되 선정이 되지 않는, 그 분야가 갖고 있는 굉장히 다원적인 예술의 가치 같은 것들이 증명되지 않는 그런 아쉬움이 반복되지 않을까? 그림책 얘기를 주셨지만, 생각보다 아까 위에 디제잉이라든지 하위문화라든지 서브컬처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부분, 활동, 작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발제 때 얘기드렸던 2010년

초에 발견했던 것들도 그런 굉장한 다양한 활동들이어서요. 여전히 그런 활동들은 충분히 다원예술로써 호명받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임인자

김사빈 연출님 질문하신 부분에서 저도 연극을 하고 미디어 퍼포먼스를 하거나 다큐멘터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도 증명서를 떼 보니까 연예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연예인이 아닌데, 지금 장르, 그러니까 그 분야가 전혀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혹시 이 생방송을 듣고 계시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관계자가 계시면 다원예술 분야도 반드시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활동이 무엇인지 증명이 안 되는 것 같아서요.

저는 블랙리스트 싸움도 거쳐 왔지만 사실 2018년에 미투운동 이후에 굉장히 많은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왜냐면 우리 예술 창작 환경에서 굉장히 많은 폭력적인 환경에 대해서 정말 많이 감각하지 못하고 있었구나 하는 부끄러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원예술을 생각했을 때 우리 현재에 대해서 질문하고, 그래서 굉장히 뭔가 해 왔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반면에요. 또 한편으로는 저 같은 경우 간과하고 있었던 게 참 많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유튜브로 민희 님께서 '다원예술 장르 내에서 주류와 비주류는 어떤 의미인가요?' 이런 말씀 주셨는데, 제 답변이 맞는지는 모르지만 남성 중심, 또 한국인 중심, 비장애인 중심, 만약 그런 감각으로 예술 활동을 해 왔다면 그런 부분들이 이야기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다원예술 분야를 얘기할 때 다양한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우리 사회에서 예술이 해야 되는 역할을 보다 폭넓게 고민하는 자리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림책 관련해서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마 김준기 선생님께서 계실 때 새 장르 공공예술 지원사업이 있었는데요. 2007년인가 제가 지원을 했었어요. 그때의 고민은 연극을 하고 있는데 연극은 사라지잖아요. 없어지는 게 너무 아쉬워서 5일 내내 구 역사에서 KTX 서울역이 새로 만들어졌을 때 거기 가서 5일 내내 공연과 전시를 하면서 프로젝트를 했어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나의 고민으로부터 내가 감각하는 것의 고민으로부터 예술 활동이 진행된다고 생각해요. 정의가 내리는 무엇인가를 저희는 예술가로서 하는 건 아니라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남하나

저도 연이어서 온라인상에 질문을 주신 것을 말씀드릴게요. 유튜브에 진 님께서 '다원예술을

정의하기 어렵다면, 그리고 시대를 거듭하며 변화되는 의미를 가진 장르라면 모호한 장르라고 생각하는데 그 점이 맞는지?'라고 질문에 주셨는데요. 이게 답변이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예술은 다양한 어떤 레이어드, 정의 내릴 수 없고 규정할 수 없는 것들이 존재해서 가장 매력적이고 그 안에서 재미남을 경험하고 그것을 가장 행복해하는 생태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어떤 모호한 장르가 아니라 저희들이 늘 하나하나 행하는 것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김장연호 님께서 말씀하신 융복합, 기술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저희가 프린지에서 하는 예술가들이 자기가 선언하는 예술의 어떠한 장르가 될 수 있고, 아니면 지금 현장과 유튜브를 보시는 분도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것들이 그게 다 예술이 될 수 있기 때문에요. 이게 모호하다거나 어렵다기보다는 이것들이 켜켜이 쌓일 수 있는 환경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것이 어떻게 규정된다는 압박감에 너무 시달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이런 규정과 구분은 행정의 편의에 의해서 세분화되고 쪼개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르코에서 그것을 의회에 설득하기 위한 하나의 언어일 뿐이지, 저희가 그걸 이해하고 그것에 맞춰서 수혜자적 태도를 갖는 것은 사실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자꾸 정의를 내리고 구분해야 된다는 압박감을 가지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더욱더 오늘의 자리가 더 중요한 것이고, 앞으로 더 실천적이고 행동할 수 있는 포럼이 꼭 더 필요할 것이고요. 그리고 문예위에서는 그 가치를 어떻게 더 확산시킬지, 이게 단순히 어떤 정보 공유가 아닌 이 가치와 의의를 어떻게 더 알릴지에 대한 고민을 더 많이 하셨으면 합니다.

정윤희

전반적으로 질문을 보면 사실은 아르코에서 직접 대답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마 아르코에서도 계획이 있다고 보는데요. 지역문화재단이라든가 여타의 예술 관련된 공공기관들과 협력을 통해서 이런 정보를 공유하고 대안이나 답을 찾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과 관련돼서 실제로 그런 진행 과정이라든가 온라인 매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 플랫폼을 형성해서 각각의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관련된 현장의 질의들을 검토해서 그에 대한 대안들을 마련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블랙리스트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아까 임인자 선생님 보셨듯이 블랙리스트를 계속 얘기하는 것 저도 너무 힘들거든요. 그런데 블랙리스트 피해자의 피해 문제가 해를 거듭할수록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정부는 책임지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나의 삶은 더 나아지지가 않는 거죠. 내가 속하는 지원사업의 제도 개선이라든가 내가 여타의 부조리하거나 불공정하다고 여기는 것들이 변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드러났는데 그것들에 대한 해결이 안 되는 것을 수년간 축적해 오면서, 좌절을 경험하면서 피해는 가속화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점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것은 '너 괜찮아. 심리적으로 트라우마

해결해.’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이런 공공기관에서 갖고 있는 기존의 단단한 그 행정 구조 문제, 관료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시도들을 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까 다원예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요.

사실 예술위원회에서 이런 고민들 꽤 많이 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사무국에서도 하고 계시고, 위원장님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예술가들의 친구, 동료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의 구조라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해서 균열을 내고 어떤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제도적 동형화를 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사례가 필요하고, 그럴 때 다원예술로써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남하나

제가 한마디 더 하고 싶어서 마이크를 또 잡았습니다. 정윤희 선생님이 더 많이 활동하시고 또 잘 아시겠지만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가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시고 기억사업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서 어떻게 알릴지, 그리고 공감대를 형성할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희 말고도 다른 플랫폼 민간에서도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걸(프린지 블랙리스트를 말하다) 보여드리고 싶어서 가져왔는데요. 저희도 이렇게 기억하고 현재 진행형의 블랙리스트가 단순히 사건에 끝나지 않고 앞으로 더 공부해야 되고, 앞으로 저희가 사업복원을 통해서든 현장에서든 이런 얘기들이 발화될 수 있는 지점들을 많이 만들려고 합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개인들도 있을 것이고, 단체들도 있을 것이라서 아르코에서 더욱더 협조를 더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도 있고요. 저희가 많이 움직일 테니 현장에서도 많이 호응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마지막 마치겠습니다.

사회 박경주

마무리하기 전에요. 유튜브에 음악 관련해서도 질문이 올라온 게 있어요. 칙피아라는 유튜브 아이디 가지신 분이 ‘독일 베를린 같은 경우에는 언더그라운드 클럽 공간이 공식적인 문화기관으로 인정받아서 클럽 공연이나 디제잉, 이런 일렉트로닉 뮤직이 하나의 문화로서 인정받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현재 아르코에서는 지원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또 춤이라는 부분을 너무 잘못된 시선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다’고 써주셨어요. 저희 문화예술위원회가 예전에는 직접 곡 쓰시고 인디 작업하시는 분들 지원을 했는데, 그게 콘텐츠진흥원과 사업이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작년부터 계속 그런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고요. 저희 기관에서는 콘텐츠진흥원과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하고 있는 중이고요. 저희가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기관과 쌍방 간에 잘 협의해서, 만약

에 그쪽에서 정 안 된다면 저희라도 다원예술에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고민해 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밥 딜런은 노벨문학상을 받는데 왜 한국의 문화예술위원회에서는 그런 싱어송라이터에 대해서 대중적인 연예인으로만 생각을 하는 걸까? 저는 인디 아티스트들이 독립적으로 음악 활동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문화예술위원회가 지원을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만약에 콘텐츠진흥원에서 그런 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저희가 좀 더 내부적으로 협의를 해서 저희도 밥 딜런 같은 노벨문학상 수상자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나라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드렸고요.

질문해 주신 모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중하게 내부 검토를 거치도록 할 거고요.

오늘 이렇게 해서 저희 온라인 포럼 첫 번째 포럼 마칠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요. 오늘 자리해 주신 모든 분들과 발제자분들, 토론자분들, 또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박종관 위원장님과 직원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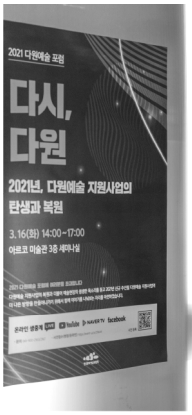
제가 마무리 멘트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읽어보도록 할게요.

다원예술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이는 다원이의 탄생부터 다원이가 우리 곁을 떠났던 시간, 그리고 우리 곁으로 돌아온 현재까지도 계속되는 질문입니다. 다원이는 왜 우리 곁으로 다시 왔을까요? 다원이가 우리에게 돌아와야 할 어떤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2021년 다원예술 사업의 복원, 올 한 해 우리는 함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현장의 다원예술가분들이 함께 말입니다.

오늘 의미 있는 포럼을 함께 준비해 주신 서울프린지네트워크 오성화 대표님, 김준기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실장님, 임인자 서울변방연극제 전 예술감독님, 정진세 극단 문 대표님, 김장연호 아이공 대표님, 이원준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다원예술 사업을 올해 구성하면서 내부에 자문으로 위원분들을 모셨는데, 함께 구상했다는 것도 밝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또 오늘 포럼을 가능하도록 지원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박종관 위원장님, 그리고 지원총괄부 이종국 부장, 다원예술을 아주 사랑하는 양지나 대리 등 저희 직원분들께도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포럼을 함께 시청하고 계신 예술가분들에게도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다원예술 사업이 멋지게 성장할 수 있도록 꼭 함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다원예술 포럼
다시,
다원
2021년,
다원예술 지원사업의
탄생과 복원


2021 다원예술 포럼
다시,
다원
2021년, 다원예술 지원사업의
탄생과 복원
3.16(화) 14:00~17:00
아르코 미술관 3층 세미나실






2021 다원예술 포럼
다시, 다원
2021년, 다원예술 지원사업의 탄생과 복원


2021 다원예술 포럼
다시, 다원
2021년, 다원예술 지원사업의 탄생과 복원


2021 다원예술 포럼
다시, 다원
2021년, 다원예술 지원사업의 탄생과 복원


2021 다원예술
다시, 다원
2021년,
다시, 다원
3.16(화) 00~17:00
층 세미나
온라인
YouTube
NAVER
정진세


다시,
2021년, 다원예술


2021 다원예술 포럼
다시, 다원
2021년, 다원예술 지원사업의 탄생과 복원


탄생과 복원


2021 다원예술 포럼
다시, 다원
2021년, 다원예술 지원사업의 탄생과 복원
발제 3
사라진 목소리, 사라질 미래
다원예술 장르지원 사업의
임인자 서울변방연극제 전 예술감독
다시, 다원
00~17:00
층 세미나실
온라인
YouTube
NAVER
정진세


2021 다원예술 포럼
다시, 다원
2021년, 다원예술 지원사업의 탄생과 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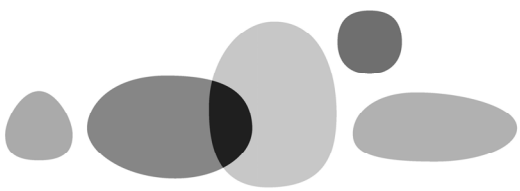







2021 다원예술 포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21 다원예술 포럼

다시, 다원

2021년 다원예술 지원사업의 탄생과 복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58326)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40 (빛가람동 352)

대표전화 061-900-2100, 2200